

2007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Since 1961

전국재해구호협회

Korea Disaster Relief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Activity Programs for the Community-based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s(CDPOs)

2007. 10

연구책임자 : 권태호 (세명대학교 건축학과)

공동연구원 : 양기근 (경남발전연구원)

박 희 (서원대학교 사회학과)

자문위원 : 오금호 (국립방재연구소)

김영선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김선정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

윤순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이은애 (전국재해구호협회)

권영섭 (전국재해구호협회)

목 차

| | |
|---|-----|
| 표 목 차 | iii |
| 그림목차 | iv |
| 요 약 | v |
| | |
|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 |
| 1. 거시적 차원의 배경 | 1 |
| 2. 미시적 차원의 배경 | 3 |
| 제2절 목적 및 목표 | 4 |
| 제3절 연구과정 및 방법 | 4 |
| 제4절 자료수집 | 5 |
| 제5절 핵심어의 조작적 정의 | 6 |
| | |
| 제2장 시민사회론과 자원봉사 | 7 |
| 제1절 재난관리 환경의 변화와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 7 |
| 1. 재난관리 환경의 변화 | 7 |
| 2.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 12 |
| 제2절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와 지역자율방재 | 15 |
| 1.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와 재난저지공동체 | 15 |
| 2. 지역자율방재의 이념과 활동프로그램의 필요성 | 19 |
| | |
| 제3장 지역자율방재의 이론고찰과 국내·외 자율방재 현황 | 23 |
| 제1절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BDM)와 재난저지공동체(DRC) | 23 |
| 1. 재난취약성과 지역사회 | 23 |
| 2.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BDM) | 24 |
| 3. 재난저지공동체(DRC) | 28 |
| 제2절 우리나라의 지역자율 방재 | 33 |
| 1. 지역자율 방재정책 방향 | 33 |
| 2. 자율방재 관련 주요 조직 | 35 |
| 3.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 | 38 |

| | |
|---|------------|
| 4. 관련 조직 간 유기적 관계 설정 | 40 |
| 제3절 국외 지역자율방재 조직 사례 | 41 |
| 1. 일본의 자주방재 | 41 |
| 2. 미국의 자주방재 | 53 |
| 제4절 지역자율방재의 지역특성 반영 | 57 |
| 제4장 현장중심 활동 사례 및 분석 | 58 |
| 제1절 활동 사례 예시 | 58 |
| 제2절 활동 사례의 장애요인과 함의 | 74 |
| 1. 활동사례의 장애요인 | 74 |
| 2. 활동사례의 함의 | 75 |
| 제5장 지역자율방재 활동프로그램 개발 | 78 |
| 제1절 활동프로그램의 정의 및 단계 | 78 |
| 1. 활동프로그램의 정의 | 78 |
| 2. 활동프로그램의 단계 | 78 |
| 제2절 단계별 활동프로그램(Activity Program)의 개발 | 80 |
| 1. 개발의 원칙 | 80 |
| 2. 활동프로그램 분류 기준 | 80 |
| 3. 단계별 활동프로그램 | 82 |
| 제6장 활동프로그램 활용방안 | 140 |
| 제1절 시나리오, 활동프로그램 그리고 활동사례의 관계 | 140 |
| 제2절 분야별 프로그램 유형 그룹 | 141 |
| 제3절 활동프로그램 활용방안 | 148 |
| 1. 재난자원봉사 관리자(coordinator)의 중요성과 역할 | 148 |
| 2. 활동프로그램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점검 | 150 |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53 |
| 제1절 결론 | 153 |
| 제2절 제언 | 154 |
| 참고문헌 | 156 |
| 부 록 | |

표 목 차

| | |
|--|-----|
| (표 1-1)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 | 2 |
| (표 3-1) ADPC의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 원칙 | 26 |
| (표 3-2) CBDM 계획과정의 주요 연구자간 비교 | 27 |
| (표 3-3) DRC 계획의 10가지 원칙 | 29 |
| (표 3-4)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안) | 36 |
| (표 3-5) 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운영현황 | 37 |
| (표 3-6)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자주방재 조직률 | 43 |
| (표 3-7) 니시노미야시 자주방재조직의 활동내용 및 가입원수 | 49 |
| (표 3-8) 캘리포니아주 Torrance시의 CERT 자원봉사자 기본훈련 모듈 | 54 |
| (표 3-9) 도시와 농촌의 재난관리 환경 비교 | 57 |
| (표 4-1)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 119소방교육대 체험교육내용 | 68 |
| (표 5-1) 프로그래밍(programming)의 단계에 관한 선행연구들 | 79 |
| (표 5-2) 활동프로그램 분류 기준 매트릭스 | 81 |
| (표 6-1) 교육분야 활동프로그램 | 142 |
| (표 6-2) 구조분야 활동프로그램 | 143 |
| (표 6-3) 구호분야 활동프로그램 | 143 |
| (표 6-4) 방역/의료분야 활동프로그램 | 144 |
| (표 6-5) 복구분야 활동프로그램 | 144 |
| (표 6-6) 시설점검/감시 분야 활동프로그램 | 145 |
| (표 6-7) 심리치료분야 활동프로그램 | 145 |
| (표 6-8) 재난정보 분야 활동프로그램 유형 | 146 |
| (표 6-9) 치안/예찰 분야 활동프로그램 | 146 |
| (표 6-10) 협력/행사진행 분야 활동프로그램 | 147 |
| (표 6-11) 행정지원 분야 활동프로그램 | 147 |
| (표 6-12) 조직운영분야 활동프로그램 | 148 |

그 림 목 차

| | |
|---|-----|
| (그림 1-1) 연구 흐름도 | 5 |
| (그림 2-1) 최근 30년간 집중호우 일수 및 재산피해 증가 현황 | 10 |
| (그림 2-2)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의 관계 | 13 |
| (그림 2-3) 사회변동과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의 전개 | 14 |
| (그림 3-1) 재난저지 공동체 5단계 계획과정 | 30 |
| (그림 3-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관련조직의 네트워킹 | 35 |
| (그림 3-3) 관련조직 간 역할분담 체계 | 41 |
| (그림 3-4) 니시노미야시 자주방재조직의 피난구호용 표준기자재 | 49 |
| (그림 3-5) 효고현 방재훈련 전단지와 응급심폐소생센터 | 51 |
| (그림 3-6) Citizen Corps와 협력조직들 | 55 |
| (그림 5-1) 활동프로그램 카드 양식(NOIM 모델) | 81 |
| (그림 6-1) 시나리오-활동프로그램-사례의 위계적 관계 | 140 |
| (그림 6-2) 활동프로그램의 분류 패러다임 변화 | 141 |
| (그림 6-3) 활동프로그램 그룹의 상황 단계별 적용 | 150 |

요 약

제1장 서론

□ 배경, 목적 및 목표

온난화, 엘리뇨 등 최근의 지구 차원의 기상이변은 지난 40여 년간의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압축적 개발의 부작용과 맞물리면서 이제 자연재해와 인위적·사회적 재난이 단순 대응·복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과성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가 자발적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사전에 예방/대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동체적 이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지방화, 분권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시·군정부와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기반 방재접근이 중요한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역자율 방재조직은, 방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적극 유도할 지역사회 여건에 부합되는 이론무장과 실무 노하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난관리의 전 과정, 즉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단계에 걸쳐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배워야 할 활동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총체적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 방재 조직의 활성화, 즉 교육과 훈련에 필수적인 활동프로그램의 구축하는 데 그 목적(Goal)이 있다. 연구의 주요 목표(Objectives)는, 전반부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i) 시민사회론과 자원봉사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ii)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자율 방재의 이론을 설명하고, 후반부는 미시적 차원에서 iii) 지역자율방재조직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v)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과정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사례연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실증적(empirical)이며 탐색적인(exploratory) 특성을 지닌다. 전반적인 접근은 거시적 차원의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시적 차원의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2원적 방식을 취하되, 이론 고찰의 결과를 실제에서 확인하고 비교·검토하여 자율방재조직의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정에 반영한다. 방재관련 봉사활동프로그램 및 사례의 수집을 위해 사례지역을 방문하여 관련 자원봉사자, 지역주민과의 집단 또는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녹취하며, 해당 지자체 및 자원봉사 센터 등으로부터 관련 1차 자료를 수집한다.

제2장 시민사회론과 자원봉사

□ 재난관리 환경의 변화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의 기상기록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상이변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한편,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재난피해가 대규모화되는 동시에 재난위협요인 또한 가중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위험(shared risk)은 지역사회에 공동의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이 있으므로 적절한 재난관리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된 위험은 특정 지역 위험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완화시키도록 공공부문의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조직만으로는 위험 취약지역의 재난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다.

□ 자원봉사와 재난관리

공유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시민사회의 자기조직화 과정(self-organizing processes)의 출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와 지역 사회를 연결 짓는 가교로써 시민사회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의 재난 취약성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이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 결성 및 권능부여(empowerment)를 통해 취약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참여를 통한 자기의존(self-reliance)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자율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자발성을 기초로 성립하는 사회인 동시에,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맥락으로서 지역사회는 시민의 자발적 봉사가 있어야 하는 갖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는 사회현상이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지역자율 방재조직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는 조직이다. 특히 지역사회조직들 간의 역학 관계와 인간행동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율 방재조직에 ‘자발성’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는 실현될 수 없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율방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3장 지역자율방재 이론고찰과 국내·외 자율방재 현황

□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BDM)와 재난저지공동체(DRC)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BDM)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재난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재난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CBDM은 우선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그룹의 방재역량강화 및 재난취약지구의 취약성 경감을 위한 노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사람’과 ‘현장’ 우선의 관점은, i) 주민이 현장(knowledge)을 가장 잘 알고, ii) 재난발생 시 현장근접성(proximity)이 가장 높으며, iii) 그들이 바로 복구의 최종책임자(responsibility)라는 인식을 근간으로 하면서, 첫째 취약성의 경감, 취약계층의 대응능력 강화 그리고 재난 시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손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대응능력 강화, 둘째 인적 손실(human suffering)의 최소화 그리고, 셋째 빠른 복구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

재난저지공동체(DRC)도 CBDM과 유사한 접근을 취하나, 이 개념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유지케 하는 방재측면의 장기적, 전략적 방재전략으로 이해되며,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전에 재난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DRC는 재난에 대비 가능한 지역사회를 설계, 건설,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의 지식을 학제적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을 가지며,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원 가능한 원칙과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지역자율 방재

한국의 방재조직이 관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되면서 현재 46개의 시범조직을 운영중인 지역자율방재단이 대표적 사례이다. 소방방재청은 지역자율방재단 추진방향으로서 첫째 초기에는 조직의

확대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기반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둘째 자율성 보장을 위해 관주도성 배제하며, 셋째 지역실정에 적합한 안을 선택하고, 넷째 시·도는 시·군·구의 방재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방재단의 운영은 아래의 3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짜여진다. 첫째 민간중심의 민·관 파트너십에 충실해야 하며 관주도성을 되도록 배제한다, 둘째 일반회원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활동을 부여하고, 전문회원은 개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활동을 부여한다, 셋째 활동시점(또는 단계)과 유형을 적용한다.

의용소방대는 1958년 최초로 조직되었고 현재까지 민방위대 소집으로 갈음되는 수방단에 비교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의용소방대원은 무보수로 봉사하게 되나, 기본수당, 활동비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인 자원봉사센터는 199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248개소가 운영 중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존 조직과의 역할 중복, 상이한 담당 행정 부서의 양립(재난관리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등)과 여기에서 오는 단원들의 중복가입 문제 등은 당분간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자율 방재조직 구성의 초기인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범지역 방재단의 전국적 활성화로 판단되며, 장기적 측면에서 방재단의 전국화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고,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know-how)가 충분히 축적 되면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전국재해구호협회, 적십자조직 등과의 관계 정립이 상위의 거시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됨이 바람직하다.

□ 국외 지역자율 방재

일본은 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해, 안전·안심인 사회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행정에 의한 「공조」뿐만 아니라, 시민에 의한 자조(自助) 및 공조(共助)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자주방재조직은 “스스로의 지역은 스스로 지키자”라고 하는 슬로건에 근거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으로, 전국 2,418 시·구·읍·면 중 1,988 시구읍면에서 설치되어 2005년 현재 64.5%의 조직율을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자주방재조직은, 평상시에는 방재관련 훈련실시, 지식계발, 예찰 기자재 등의 공동구입 등을 실시하고, 재해 시에는 초기소화, 주민 등의 피난 유도, 부상자 등의 구출·구호, 정보의 수집·전달, 급식·급수, 재해 위험 개소 등의 순찰 활동 등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자주방재조직 사례로서 일본재해구호 볼런티어(NVNAD), 니시노미야시 자

주방재 조직, 西宮(니시노미야)시 니시구찌마을 자주방재회, 西脇(니시와끼)시 고우다 이마찌 자주방재회, 神戸(고베)시 주오구 히가시가와사카 만남의 마을만들기협의회 방재부회 등을 설명하고 일본 자주방재조직의 문제점을 i) 조직정착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ii) 조직원이 자주 교체되는 관계로 전문적 방재인력 육성이 어려운 점, iii) 고령화 등으로 차세대 리더 육성이 어려운 점, iv) 지역 내의 기업이나 단체와 협력이 부족한 점으로 요약한다. 미국의 민간주도 방재활동은 전국재난자원봉사협회(NVOAD), 지역재난 대응팀(CERT), 적십자사, Citizen Corps 등 다양하며,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전 미국인이 스스로 그들의 인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자율적 조직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 지역자율 방재의 지역특성 반영

본 연구는, CBDM과 DRC의 이론고찰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역방재역량이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환경여건, 경제기반 및 재원, 지역 전통과 문화적 맥락, 재난경험 및 인적 자원 등 수 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됨에 주목하면서,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구성, 운영 그리고 활동프로그램 등 모두는 전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도시와 농촌에서의 재난관리 환경의 차이를 지형적 특성, 인구구조, 개발패턴, 방재 전문성 및 복구자원 수준 등 지표로서 비교·설명한다.

제4장 현장중심 활동 사례 및 분석

□ 활동 사례 예시

본 연구는 재해현장 면담자료, 시·군에서 발간한 재해백서 그리고 각종 미디어 자료를 분석하여 1) 심리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필요성 (강릉시), 2) 마을만들기를 통한 방재신문 만들기 (강릉시), 3) 현장 봉사자들의 효율적 배치와 관리 문제 (강릉시 및 단양군), 4) 봉사자 간 네트워킹의 중요성 (평창군), 5) 농산촌 수해의 협력적 대응·복구를 위한 평소훈련의 중요성 (인제군), 6) 수해극복 희망나눔 장터 (마산시), 7) 밤낮 잊은 자원봉사 활동 (마산시), 8) 장애우의 헌신적 복구봉사 (마산시), 9) 종교단체의 복구자원 봉사 (마산시), 10) 건설기업의 마을회관 무료보수 봉사 (마산시·창원시), 11) 농축산기업의 비상발전기 양돈농가 지원 (마산시), 12) 군부대·농협·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한 정부양곡 긴급 이송 (마산시), 13) 자원봉사조직의 교육문

화시설 복구봉사 (마산시), 14) 지역축제와 연계한 안전홍보 추진 (인천시), 15) 2006년 집중 호우 시 한강 제방 예찰활동 (김포시), 16) 재해취약지역 Safety Line(안전선)설치 운영 (파주시), 17) 읍·면 민간단체의 응급복구 봉사 (함평군), 18) 민·관 합동 자체방재시스템 구축 (예천군), 19) 시민안전봉사자 협의회 활성화 (서귀포시), 20) 수해복구 청소 자원봉사 (영등포구), 21)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제천시), 22) 지역적인 특성고려 (경상남도), 23) 홍수지도의 주민대피 활용화 방안 (경상남도), 24) 학교 분담제 실시 (경상남도), 25) 민·관 협력을 통한 빠른 수해복구 (산청군), 26) 자원봉사협의회 재해예방 간담회 (거제시), 27)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 (남해군), 28) 우정119 봉사단 (경상남도) 등 28개 사례를 요약하고 설명한다.

□ 활동사례의 장애요인과 함의

사례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i) 자원봉사조직과 정부조직 간 공조 미비, ii) 리더의 부재와 시기적 그리고 여성 편중, ii) 봉사인력의 지역적 편중과 봉사 전문성, 그리고 지속성 미흡, iv) 봉사활동 관련 부서들의 난립과 관리체계 미흡, 그리고 v)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재해보상 부족 등이 지적 되었다.

또한 28개의 활동사례 분석이 모든 도시와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으로부터, 첫째 평소 교육·훈련의 중요성, 둘째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셋째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넷째 민·관·군·산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 시 지역 특성의 고려 그리고 여섯째, 봉사자의 효율적 배치와 지원 등의 중요성이 관련 함의로서 도출되었다.

제5장 지역자율방재 활동프로그램 개발

□ 활동프로그램의 정의 및 단계

본 연구에서 활동프로그램이란 “효율적 재난관리의 수단으로서, 자율방재조직에서 활용 가능한 재난(특히 자연재해) 관련 봉사활동들을 유형화하고 이를 계획안(plan)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재난관련 봉사활동프로그램은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단계 역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반적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프로그램

간결성, 소통과 이해의 용이성 그리고 내용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활동 프로그래밍을 i) 프로그램 명칭 (Name: N), ii) 프로그램 목표설정 (Objective: O), iii) 프로그램 실행 (Implementation: I) 및 iv) 프로그램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Monitoring and Feedback: M)의 4단계로 구분하되, 단계 별 영문명칭의 첫 글자를 따서 'NOIM' 모델로 명명한다. 이 모델에서 욕구사정은 생략되었으나, 향후 시·군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활동프로그램들을 원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지역 주민 욕구에 대한 사정(assessment)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단계별 활동프로그램 55개 개발

기존 사례들의 장애요인들과 함의(해결방향)를 반영하면서 관련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활동프로그램 개발의 원칙은 i) 주민의 참여 및 동기부여의 원칙, ii) 상호학습의 용이성, iii) 호기심과 학습의욕(자극)의 고취성, iv) 실행의 용이성 및 경제성, 및 v) 프로그램간의 상호연관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이다. 활동프로그램 분류는 재난관련 봉사분야, 진행주체 그룹, 대상지역, 대상집단, 재난유형 및 단계를 기준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프로그램별로 코딩(coding)한다. 이 분류작업은 지역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활용 시 편의성과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이재민 체험, 재해지역 탐방을 포함하는 23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대응단계에서는 이재민 가족 찾기 및 현장재난관리센터 (현장‘95’캠프) 운영 등 17개 프로그램이, 그리고 복구단계에서는 재난관리 해설자교육 및 20년 후 우리 마을 만들기 등 15개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제6장 활동프로그램 활용방안

□ 시나리오, 활동프로그램 그리고 활동 사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현장 사례- 활동프로그램 -시나리오의 관계는 이용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i) 교육·훈련 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변형이 요구되는 데, 이 때 분야별 시나리오와 사례를 참고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 ii) 활동프로그램을 그룹화하고 이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면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측능력이 강화될 수 있고, iii) 지역 여건에 맞게 필요한 활동프로그램 분야별로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2개 분야별 프로그램 유형 그룹

제시된 55개의 활동프로그램들을 재난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기존의 시각, 즉 하향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이 아닌, 지역사회기반 재난접근을 위한 관점, 즉 상향적이고 주민 참여적 관점에서 프로그램 간 상호 관련성 유무를 기준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재난관리자들이나 자율방재조직이 활동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비용과 시간절감이 가능하고, 나아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55개 활동프로그램을 12개 분야(교육, 구조, 구호, 방역/의료, 복구, 시설점검/감시, 심리치료, 재난정보, 치안/예찰, 협력/행사진행, 행정지원, 조직운영)로 재분류하고 분야별 유형 그룹과 유형별 프로그램을 도표화 하여 제시한다.

□ 활동프로그램 활용방안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재난관련 자원봉사 관리자 그룹에서 우선적으로 실행되고, 이들 중간관리자의 채널을 통해 일반 봉사자와 방재단원 속으로 확산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들이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며, i) 프로그램 기획과 조직(준비와 자료구축 포함), ii) 조직배치와 지원 (봉사자 직무설계 및 배치), iii) 통제(프로그램 기획-준비-평가), iv) 재난관리 전문조직의 위상 (전문 리더십의 발휘), v) 정부와의 관계 (정보 소통과 자원 협력)를 담당해야 한다. 한편 12개 분야의 55개 프로그램을 지역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i) 지역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며, ii) 지역의 재난관련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iii) 프로그램의 치밀한 준비, iv) 개방적 실행 그리고 v) 과급효과까지를 일관성 있게 평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거시적 차원의 배경

196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그리고 압축적 개발방식의 누적은 최근 지구적 차원의 기상이변(온난화, 엘리뇨 등)과 맞물리면서 자연재난(특히 수해)의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를 대형화, 다기화 그리고 일상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0여 년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장위주의 도시 및 지역관리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재난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와우아파트 및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수 많은 대형재난은 한국사회에서의 위협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규모의 다양한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가 복합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전통적 위험(danger)과 구조적, 복합적 위험(Risk)에 이중적으로 노출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돌발성, 예측불가능성 및 통제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재해는 최근 10여 년간 발생건수가 지난 1960년대 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의 예에서 보듯이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립방재연구소, 2003), 이러한 재난발생의 대형화, 다기화 및 일상화는 피해지역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2조 9,812억원으로 1985년부터 5년간 피해액(6,950억원)의 4.29배이고, 2001년부터 5년간 자연재해 복구에 27조 9,802억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 정부부담인 26조 5,680억원을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계산하면 약 55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동아일보, 제26608호).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풍수해 피해액 및 치수사업비도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1%를 초과하였다.

이제 수해를 비롯한 재난의 문제는 발생 시 단순 대응(Response)과 복구(Relief)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과성의 예외적(On-off and Exceptional) 사건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 도시, 지역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큰 틀 속에서 사전에 예측, 대비(Preparedness)되고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Response) 위기관리(Risk

Management)로의 패러다임전환이 요구된다 (ADPC, 2006; Sanderson, 2000; Yodmani, 2001). 환언하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상향식 재난관리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도시정부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화, 분권화의 패러다임 변화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군정부와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기반 방재접근(Community-based Disaster Prevention Approach)이 중요하다.

(표 1-1)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

| 속성 | 기존 관점 | 새로운 관점 |
|-----------|-------------------------------|------------------------------|
| 기본철학 | 재난은 발전도상의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내지 사건 | 재난은 발전도상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미해결 문제 |
| 접근방식 | 정부 주도의 하향적 | 지역사회 주도의 상향적 |
| 본질적 특성 | 경직된 개입적 특성 | 탄력적 자율적 특성 |
| 중점관리 단계 | 재난발생 후 복구중심 | 예방/대비 통한 경감중심 |
| 복구주체 | 정부 (외부 전문가, 기술자) | 지역사회-기반(주민, 자원봉사자) |
| 복구목표 | 재난이전 상태의 회복 | 재난은 사회적 통합과 발전의 기회 |
| 복구수단 | 기술 중심적, 법규중심 | 지역사회 내부 방재역량 강화 |
| 지역주민(이재민) | 복구과정의 구호대상 | 재난관리의 파트너 |

출처: Allen(2006) 및 Victoria(2002)에서 요약·정리.

21세기는 안전한 환경에서의 삶은 사치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다. ‘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국민 건강, 안전, 공공복리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사회의 방재문제는 이제 인권의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도 이제는 재난관리의 문제를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복구비를 받는 수동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재난관리가 주민 모두의 ‘삶의 일부’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방재접근을 해야 한다.

방재의 문제가 지역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기는 어려우나, 부차적 편익, 즉 환경적,

사회적, 기업경제적 측면의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일상화, 대규모화, 다기화(多岐化)하는 재난이 주민생계(livelihood)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방재의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의 한 축인 경제·사회적 형평성에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다.¹⁾

2. 미시적 차원의 필요성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지역자율 방재조직은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CBDM)의 핵심적 주체로 역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결성 초기인 현 상황에서 조직의 방재역량(capacity building)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유도할 한국의 도시 및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자율방재의 이론적 토대와 실무적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보인다.

특히 재난관리의 전 과정, 즉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단계에 걸쳐 지역자율방재 조직의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배워야 할 활동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일반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원론적 논의 (예를 들어, 김동배, 2005; 이성록, 2005; 주성수, 200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7)에 그치거나, 안전관련 봉사자의 활성화 방안 (오금호, 2002), 재해지역의 자원봉사 일반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 2003; 2005)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방재단을 포함하는 지역기반 방재관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²⁾의 전 과정에 관련된 활동프로그램(activity program)을 개발하여 전파하는 일은 시급한 연구과제이다.

1) 예컨대 집중호우는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 경제기반은 쉽게 무너뜨리지만 부유층의 주택이나 재산은 그렇게 될 개연성이 매우 낮다.

2) 재난관리의 시점(단계)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예방과 복구의 2단계 구분, 완화-준비-대응-복구 4단계, 완화-예방-대비-계획-대응-복구의 4단계 구분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의 구분을 따른다.

제2절 목적 및 목표

□ 목적(Goal)

: 지역사회의 총체적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활성화, 즉 교육과 훈련에 필수적인 활동프로그램을 구축함

□ 목표(Objectives)

○ 연구의 전반부는 거시적 차원(macro-scale)에서 21세기 방재환경의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중심으로,

- i) 시민사회론과 자원봉사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 ii)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접근(life cycle-based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자율 방재의 이론고찰 (국내·외 연구동향)을 한다.

○ 연구의 후반부는 미시적 차원(micro-scale)에서 지역자율 방재조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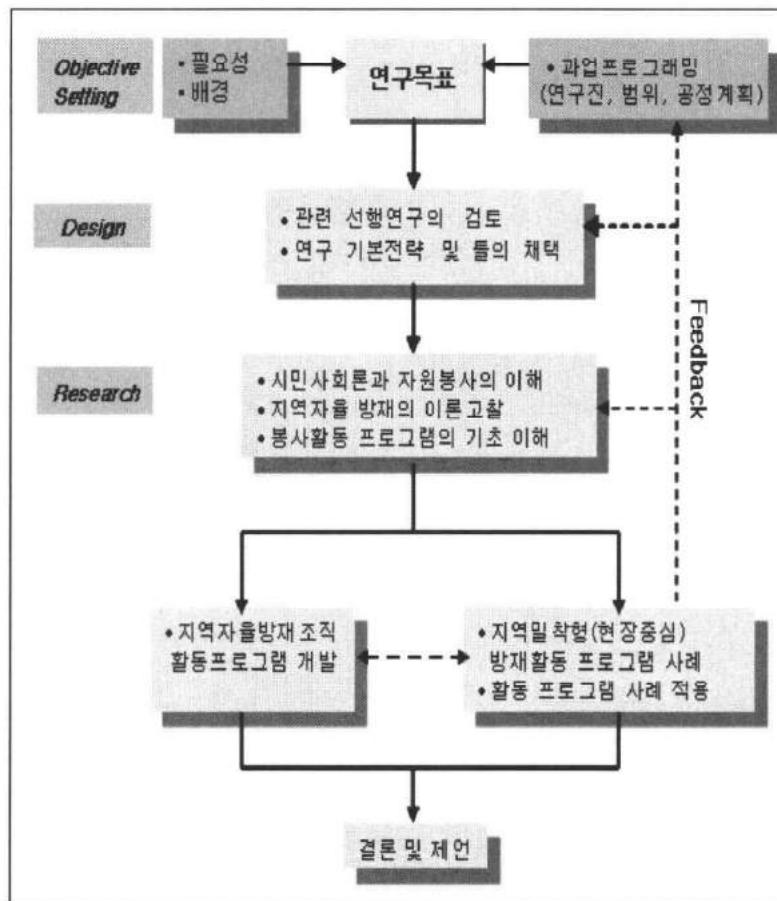
- iii) 활동프로그램의 이론과 활동 사례분석을 기초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iv) 활동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과정 및 방법

□ 본 연구의 구성은 이론연구와 사례연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실증적(empirical)이며 탐색적인(exploratory) 특성을 지닌다.

□ 전반적인 접근은 거시적 차원의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시적 차원의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2원적 방식을 취하며, 단계별 연구흐름은 아래와 같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4절 자료수집

2차 자료(secondary data)에 주로 의존하는 이론연구와 1차 자료(primary data) 주로 의존하는 사례연구로 나누어 진행하되 두 부문 간의 유기적 연관성과 일관성 유지한다. 이론(theories) 고찰의 결과를 실제(realities)에서 확인하고 비교·검토하여 자율방재조직의 활동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한다. 방재관련 봉사활동프로그램 및 사례의 수집을 위해 사례지역을 방문하여 관련 자원봉사자, 지역주민과의 집단 또는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녹취하며, 해당 지자체 및 자원봉사 센터 등으로부터 관련 1차 자료를 수집한다. 국내·외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처는 아래와 같다.

- 방문 및 인터뷰 사례지역(기관): 강원도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단양군 영춘면 등

- 국외 자료수집(070704-070706): 일본 니시노미야시, 고베시, 효고현, 오사카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연구센터(CSCD) 등

제5절 핵심어의 조작적 정의

- 재난(disaster) : 불확실성과 위험발생의 가능성을 속성으로 하는 재난은 “발생 시 그 지역사회 자체의 자원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인적, 물적 또는 환경적 피해를 야기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능이 심각할 정도로 마비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재난에는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및 자연 재해를 모두 포함하나, 2004년 3월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통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용이 풍수해 등 자연 재해 현장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준비됨을 감안하여,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해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다만 화재, 폭발사고 등의 인위적 재난의 개념도 광의에서 재난의 조작적 개념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관리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그 활동이 전(全) 단계적 접근으로 되어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³⁾
- 재난취약성(vulnerability) :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민감성(susceptibility)을 증대시키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 또는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제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재난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는 해당지역 사회의 인구구조, 환경여건, 기술적 요인, 사회·문화와 다양성, 지역경제 및 정치적 여건 등이 포함된다.
- 시나리오(scenario) :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란 용어는 각종 재난재해의 대비 또는 발생 시 봉사자들이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 그룹으로 구성되는 각본의 의미로서 사용되며, 따라서 활동프로그램들을 공통적 속성(attributes)을 가지면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끼리 그룹화(grouping) 하였을 때 도출되는 각 유형을 실행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실행된다고 본다.

3) 재난관리와 종종 혼용되는 용어로서 위기관리(emergency management)나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각각의 용어는 지칭하는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다 (이재은 외, 2006: 63-66).

제2장 시민사회론과 자원봉사

제1절 재난관리 환경의 변화와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1. 재난관리 환경의 변화

1) 정치체계의 변화

근래에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⁴⁾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즉 한 쪽에서는 분배의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경제현상의 흐름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결과적으로 분배도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는 1980년대의 구소련의 붕괴,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분배보다는 성장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어왔다 (김광두, 2005: 1).

한국 사회도 이러한 성장 중심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사태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양상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악화로 인해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맹진학, 2006: 2). 이러한 성장 중심의 이데올로기의 보편화와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사회정치적으로 여러 갈등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게 되고, 또한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낳게 되었다.

또한, 최근 국제경제는 과거 미소 등의 냉전체제는 사라졌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근대사회가 확보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은 여전히 불완전한 수준이다. 즉 국가 간 폭력 위협이나 근본주의가 야기하는 역현대화 문제, 범죄의 위험, 성적 폭력 문제 등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로 야기하고 있다 (임현진 외, 2003: 23-25). 냉전체제가 사라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난 듯 보이나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2004년 스페인의 3.11 열차테러, 2005년 영국 런던 폭탄 테러 및 우리나라의 2003년 화물연대파업, 2005년 아시아나 항공 노조 파업 등 최근 들어 사회적재난의 강도와 범위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사회재난은 다음과 같다.

4) 이데올로기란 Lodge(1987)에 따르면 ‘한 국가사회의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와 목표설정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실제적 아이디어의 총체로서,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가치를 실제적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내용으로 실체화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최악의 물류 대란으로 하루 1억9000만달러의 수출 차질을 야기 시켰던 2003년 화물연대총파업은 2003년 4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래 파업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아 5월 12일 비상대책반을 가동했고, 무역 차질과 국가신인도 하락 등 직간접적인 손해비용이 수천억 원에 이르렀다. 한국무역협회는 부산과 광양항의 수출비중, 반출입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9~14일 5억4000만달러 가량의 운송 및 선적 차질이 발생했다고 추정하였다. 여기에 포스코 INI스틸 한보철강 등 화주(貨主)업체들은 운송업체가 화물연대와 운송료를 15% 정도 인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수송비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금전적 피해 이외에도 한국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외국 바이어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수출 경쟁력에マイ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다단계 운송계약체 문제, 지입차주 문제, 영세한 운송업체 문제, 취약한 화물정보 공개시스템, 지나치게 높은 육상 운송 비율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사회재난이다(동아경제, 2003.5.15일자 ; 이재은 외, 2005: 59-60).

그리고 물류대란이나 사스(SARS), 광우병, 조류독감 등의 신종 위험이 증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경제·안보적 측면에 대한 파급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위협요소까지도 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가 재난관리에 또 다른 획을 그었던 것이다. 기존의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유형과는 다른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재은 외, 2005: 62).

이렇듯 사회재난은 금융, 통신, 댐, 에너지, 교통 등과 같은 국가핵심기반(critical infrastructure)과 관련된 위기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생존을 위협하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가핵심기반 영역은 안보, 통치, 경제적 생명력, 일상생활의 기반으로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시설(facilities), 체계(system), 기능(functions)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핵심기반은 고도로 상호의존적으로 함께 작동하는 인적 자산, 물리적 시스템, 사이버 시스템을 포함한다(The White House, 2003: viii).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물리적·사이버 공격의 위협은 국가 안보,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적 안녕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IDA, 1997: 1).

2) 경제체계의 변화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

에서 탈 국가적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차츰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요인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 모색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IMF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화는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내적인 요소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전 분야에 걸친 세계화의 범지구적 추세 속에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장성호, 2005: 101). 이와 같은 세계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로 경제개혁의 실시와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축소하고 갈등을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놓여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에 걸쳐 압축적 근대화를 진행함으로써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난 사회적 역량이 경제발전에 집중된 결과로써 경이로운 성취로 비춰지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수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즉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재해 사후복구를 위해 지출하고 있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꿈꾸고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회, 사전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일시적으로만 논의되고, 피해원인이 자기가 아닌 타자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이것이 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신흥국가들은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제3세계 후발산업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 부산물인 불균등 지역발전을 경험하고, 경제정책기조, 산업정책, 공간정책 모두에서 산업 부문적, 지역적 편중성을 띠고 있다 (윤상우, 2005: 324-325).

이러한 불균등 지역발전과 함께 IMF 경제위기 사태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양상이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맹진학, 2006: 2).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외환위기를 필두로 급격한 경제위기는 정치 및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더 큰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윤, 2005: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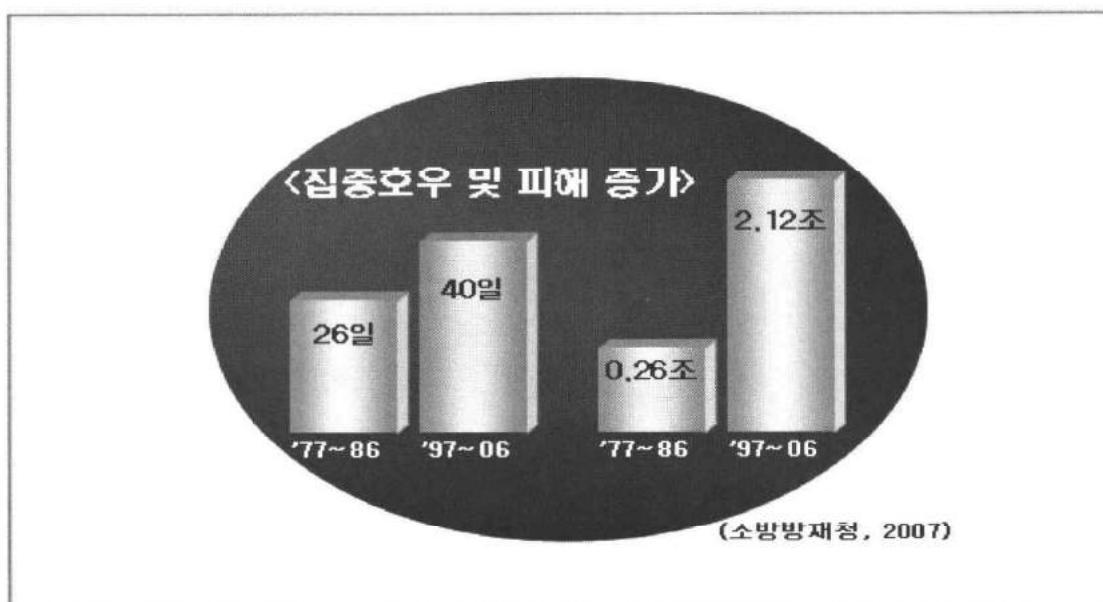
또한,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로 대형재난 발생이 우려된다. 대구지하철 참사 등 복합재난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 초래와 복합영상관, 쇼핑몰 등 대형 인명·재산피해 우려대상이 급증하고 있다.

3) 급격한 기상이변 및 사회구조의 변화

1996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자연재난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는 47%, 태풍에 기인한 피해가 19%, 강한 저기압으로 인한 폭풍피해가 17%를 차지하는 등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등 자연재난 발생원인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과거의 기상기록과 상식을 초월하는 강풍, 집중호우, 해일 등 기상이변 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피해도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의 태풍 루사⁵⁾, 2003년의 태풍 매미⁶⁾, 2005년 태풍 나비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는 이제 정부의 예산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1) 최근 30년간 집중호우 일수 및 재산피해 증가 현황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급속한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자연재난 양상은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재해의 유형이 황사·적조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형화되면서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난관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재난관련 조직·인력 보강 등의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였다. 소방방재청(2007)에 따르면 최근 30년간의 자료 분석결과, 80

5)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는 최대일우량이 870mm로서 기상관측 이래 최대일우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6)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는 순간최대풍속 60m/s로서 기상관측 이래 순간최대풍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mm/일 이상 집중호우⁷⁾ 일수가 1.5배 증가(14개 계측지점 누적호우, '77~'86년: 26일 → '97~'06년: 40일)하였고, 연평균 재산피해는 8배 증가하여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77~'86년: 0.26조 → '97~'06년: 2.12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 2007).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물순환 메커니즘을 변화시켜 수자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 및 강수특성과 증발량 등이 변화하면 홍수 및 가뭄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온상승은 해수의 팽창, 고산지대의 빙하 및 극지방 빙원의 용해를 가져오고, 용해된 물의 해양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게 된다 (심우배, 2005: 39). 또한 이러한 지구의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겨진 고무줄을 갑자기 놓는 것처럼 변한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지구온난화 및 엘니뇨(ElNino)와 라니냐(LaNina) 등의 기후변동에 따른 전 세계적 기상재해 및 기하급수적인 경제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오재호, 2005: 66).

한편, 21세기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갈등의 출현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집단간·계층간 갈등이 격화되는 한편, 집단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미암은 대형화된 사회적 갈등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 및 복잡화로 인하여 국가 사회 전반의 제반 운영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마비되면 연쇄적으로 위협받게 되어있다. 또한 고도화된 교통·수송체계의 형성, 원자력 발전의 이용, 에너지 의존율의 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의 첨단화, 첨단산업 기업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비는 국민의 일상생활, 산업활동, 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은, 2005: 16-17).

그리고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여가증대(주5일 근무) 등으로 안전수요 증대 및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급속히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모습도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종국, 2005: 291).

한편 새로운 재난요소의 증가로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곤란하고, 국지적인 분쟁 등으로 테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최근 재난환경의 변화가 국내·외적으로

7) 한 시간에 30mm이상이나 하루에 80mm이상의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라 한다.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대한 경직된 대응이나 무대응은 때때로 재앙적인 사고나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로 닥치기도 한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연적·사회적·기술적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2.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1) 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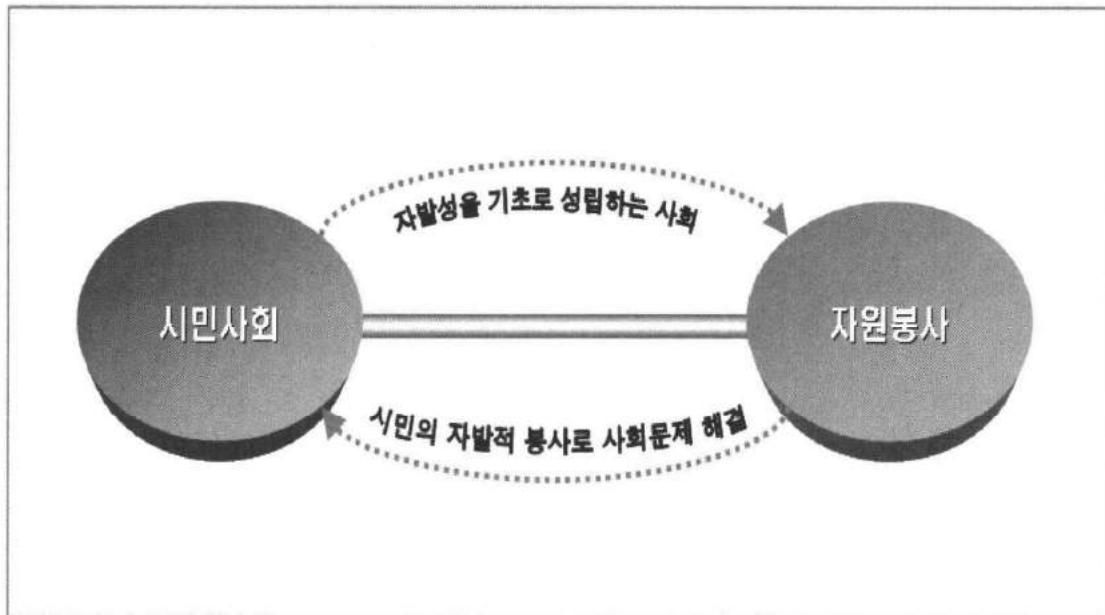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아마도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언제나 있었을 것이다(김경동, 2007: 13).⁸⁾ 현대사회의 자원봉사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 공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사회마다 이제는 지난날의 작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오순도순 돈독하게 지내는 목가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산업 사회 이후의 사회는 농경사회처럼 일을 어울려 하고 품앗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기계나 컴퓨터를 중심으로 각자 맡은바 일을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다. 누가 옆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바로 나서서 대신해주거나 힘을 모아 처리할 길이 없다. 또한, 도시는 본래 수많은 사람이 한 지역에 집중하여 살다보니 서로 배경이 다르고 이름도 모르며 특별한 볼 일이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여유가 별로 없는 관계 속에서 지내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재난에 직면하면 가족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되기 쉽다. 그러므로 반드시 친척이나 이웃, 친구가 아니라도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다. 누가 이런 도움을 주겠는가? 서양의 초기 산업혁명으로 그런 처지인 사람들이 대거 생겨났을 때는 우선 기독교 정신에 따라 교회의 신도들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것이 말하자면 근대화 과정에서 시작된 자원봉사의 효시라 할 것이다(김경동, 2007: 14). 새로이 태어난 근대도시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속속 생겨났으므로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 돋자고 나선 사회봉사의 모습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원봉사는 근대 시민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셈이다.

8)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social animal)이다. 인간은 원래 혼자 살기 어려운 조건을 타고났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즉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서로 돋고자 나서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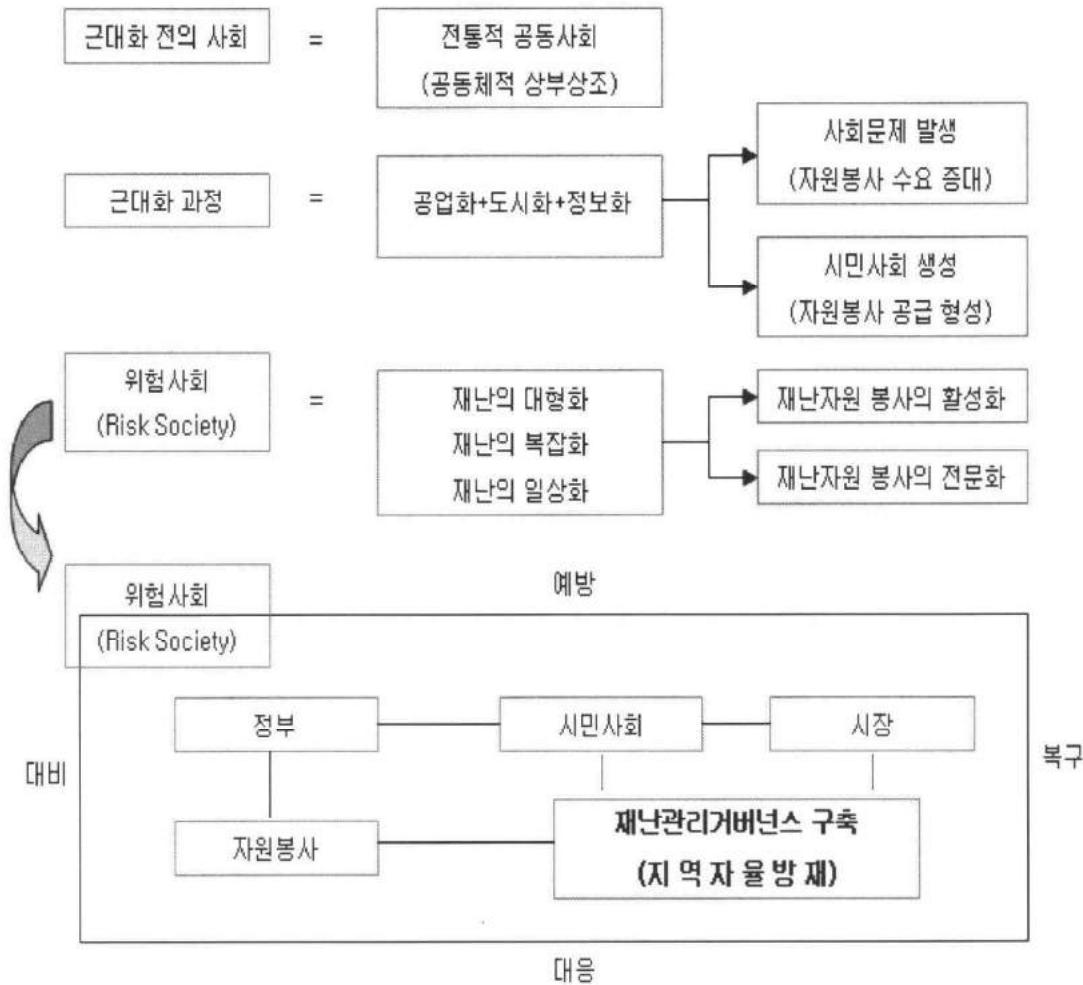
시민사회는 자발성을 기초로 성립하는 사회인 동시에,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맥락으로서 도시사회는 시민의 자발적 봉사가 있어야 하는 갖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는 사회현상이다.

(그림 2-2)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의 관계



최근의 위험연구는 그 지향점이 초기의 합리적으로 계산되고 측정될 수 있는 위험관념으로부터 관찰의존적인 위험 관념으로 이행하고 있다. 결정자/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시각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요청과 함께 위험객관주의와 위험주관주의로부터의 이반(離叛)이 일어난다. 위험을 단일한 시각에서 이해하던 틀에서 벗어나서 정부/시장/시민사회 혹은 중심/주변, 전문가/일반인의 시각분화가 사회학적 위험연구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와 함께 관찰자 위치의 탈위계화가 위험연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상황과 관련 없이 전제되는 위해로서가 아니라 위험사건에 대한 복합적인 소통의 결과로서 간주된다(노진철, 2005: 44). 그러다보니 위험관리에서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상호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2-3) 사회변동과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의 전개



2) 공유된 위험과 책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자기조직화 과정

우리사회는 국가적인 재난의 발생 시마다 체계적인 대응과 항구복구로 재발방지에 힘쓰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임시처방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새로운 국내·외적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재난관리에서의 공공부문이 가지는 한계가 여실히 노정되고 있으며, 국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위험(shared risk)은 지역사회에 공동의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이 있으므로 적절한 재난관리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Comfort, 1999: 3-4). 공유된 위험은 공공부문의 위험

(public-risk)을 나타내며,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도록 기여했던 기여하지 않았던지 간에 위험 취약지역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공유된 위험은 특정 지역 위험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완화시키도록 공공부문의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조직만으로는 위험 취약지역의 재난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다. 즉 위험 취약지역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며,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또한 모두 재난관리 대응 과정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유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시민사회의 자기조직화 과정(self-organizing processes)의 출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재은·양기근, 2004: 54).

또한 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 짓는 가교로써 시민사회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의 재난 취약성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강예진, 2006: 42).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이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결성 및 권능부여(empowerment)를 통해 취약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참여를 통한 자기의존(self-reliance)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자율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절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와 지역자율방재

1.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와 재난저지공동체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의 기상기록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상이 변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한편,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재난피해가 대규모화되는 동시에 재난위협요인 또한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8년과 1999년의 집중호우와 2000년 태풍 프라피룬,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와 2004년 충청도 폭설과 태풍 메기, 그리고 2006년 태풍 에워니아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 거의 해마다 발생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수방 및 물관리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약 130여 명의 인명 피해와 약 1조 6,600억 원의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규모 인적재난 역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재은·양기근, 2005: 105-106).

이렇듯 대규모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기후환경의 변화로 예상하지

못하는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안전의식의 부재와 국토개발정책에서 안전성을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공간과 협소한 활용 가능지로 인해 신중한 국토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신시가지의 개발에 있어서 하천이나 지형적인 특성, 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됨으로써 수해피해가 대규모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재준, 2004: 2-3).

이에 반해 미국 정부는 2000년에 재해예방 및 완화법(Hazard Mitig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모든 지방정부로 하여금 연방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3년 11월까지 재해예방계획안의 수립을 권고한 바 있었다. 위에서는 연방정부, 밑으로는 재난저지공동체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서서히 예방우선의 거대한 방재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희민, 2003: 98). 즉 재난이 발생한 후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를 하였느냐보다는 사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 같은 예방위주의 미국 재난관리정책은 재난발생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유발하는 우리 사회의 방재문화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나라로 지금까지의 재난 발생 후 대응과 복구에 치중하였던 재난관리정책을 사전예방 위주의 재난관리정책으로 대폭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자주적 재난관리 이념에 입각하여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를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는 지역자율방재의 이념과 근거 및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며, 이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재난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천을 보면, 미국의 재난관리는 그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그 기능이 바뀌어 왔다. 최근의 재난저지공동체(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라는 개념도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신개념과 접목되어 단시간에 효과를 보는 전시적인 재해관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 경제적 문제나 재난관리 문화의 정착이라는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이희민, 2003: 98).

역사적으로 미국의 재난관리 변천사를 살펴보면 (이희민, 2003), 1930년 이전까지는 미국연방정부가 재난관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1917년에는 치수법(Flood Control Act)이 제정되었고, 1930년대 중·후반의 대공황 시기에는 국가비상심의회(the National Emergency Council) 등이 설립되는데, 이는 주로

수해에 따른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후대책 방안들이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비로소 미국의 재난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는 1950년의 재해구호법(Disaster Relief Act)의 제정이다. 1958년에는 최초로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인 민방위국(the Office of Civil Defence Mobilization)이 구성되었고, 이후에는 재난관리와 재난의 유형에 따라 다수의 연방 관련 부처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행정업무의 분화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있어 재난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방재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1979년 카터 행정부하에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연방정부 관련 부처들이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으로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의 재난관리기구간 대비(Preparedness) 및 대응(Response) 단계에 필요한 역할 분담과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실 1930년대 중반부터 Gilbert White 등 여러 학자들의 제안으로 재난예방 및 완화(Prevention and Mitigation)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초기에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역할이 미비했다. 따라서 195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미국의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비하거나 대응하는, 즉 재난이 임박한 시점에서부터 초기 복구(Recovery)까지 시민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에 비중을 두는 소극적 혹은 대응적(Reactive)인 차원의 재난관리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소극적 · 대응적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미국은 인명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으나 곧 문제점이 나타났다. 소극적 · 대응적 재난관리 모델은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 프리에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the 1989 Loma Prieta Earthquake), 1992년 플로리다 남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허리케인 앤드류(the 1992 Hurricane Andrew), 1993년 미국 중부 미시시피강 유역에 범람했던 홍수(the 1993 Midwest Floods), 그리고 1994년 캘리포니아 노트리지 지역의 지진(the 1994 Northridge Earthquake) 등 1989년부터 1994년까지 해마다 그 피해액수가 1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큰 규모의 자연 재난을 겪으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인명손실은 줄어든 반면 재난 피해비용은 몇 배로 늘어나는 소위 선진국형 재난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연방정부로서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재난 피해 비용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위험 지역 내의

개발을 제한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정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일차적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책임이 있는 주와 지방정부에게 재난 예방 및 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게 되었다 (이희민, 2003: 94).

재난저지공동체(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는 토지이용규제 등을 통하여 재난 위험 지역 내에 파괴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며 이미 지역 내에 개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법규의 강화를 통해 물리적 충격을 줄이는 등 주로 비구조적 예방 및 완화계획(Non-Structural Hazard Mitigation Plans)의 수립, 집행을 담당한다. 또, 지역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면에서 다른 전통적 의미의 재난 예방 및 완화방안과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지방정부, 영리조직, 자발적 비영리조직이나 일반주민 등이 재난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재해문화를 변화시키고 이와 함께 재난취약성(Hazard Vulnerability)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Proactive) 재난관리 모델로의 변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재난의 주요 원인은 재난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재난복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재난예방 방법은 위험지역을 피해 개발하거나 재개발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대부분의 재난위험 지역은 해안이나 강가 그리고 산기슭 등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또는 수변공간을 끼고 있어 개발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⁹⁾

지난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도시는 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하였으나 부족한 경제력 안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려는 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안전의 관점에서 도시환경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후유증은 1990년대 들어 거의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재난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는 도시의 안전성 결핍과 재난 취약성, 그리고 작은 사고조차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김현주, 2004: 6).

우리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¹⁰⁾한 개발(Sustainable

9) 실제로 미국의 대도시를 보면 동부나 서부해안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고, 전체인구의 27.9% 정도가 해안선에서 100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구밀도의 증가와 물가인상 등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취약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희민, 2003: 95).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표현은 1713년 독일 작센의 산림청장이던 폰 카를로비츠가 그의 저서 ‘산림경제’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그 당시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벌목량은 새로 심은 나무의 성장에 의해 보충될 수 있을 만큼만 허용 된다”는 것이었다(브로이엘 편저: 29). 이는 당시 급증하는 목재 이용으로 인하여 전 유럽의 숲이 헐벗게 되면서 숲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다

Development)을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고유한 수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잠식하지 않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WECD: 43).¹¹⁾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재난관리에도 역시 타당하다. 즉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재난 위험지역에의 개발과 정착을 이제는 재고하여야만 한다. 최근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재난저지공동체(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의 개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기존의 대응적인 재난관리만으로는 더 이상 매년 반복적인 재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난위험 지역 내의 개발을 제한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와 더불어 최근 재난관리에 있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즉 재난관리 영역 등 공공재 생산부문에 민간조직의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다. 지역자율방재조직은 자주적 재난관리 이념에 입각하여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를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와 지역자율방재의 개념은 서로 상통되는 개념으로 향후 재난관리의 핵심 내용으로 등장 할 것이다.

2. 지역자율방재의 이념과 활동프로그램의 필요성

지역자율방재조직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조직결성이 어렵기 때문에 방재담당자가 자주방재의 조직화를 추진하고

만,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생물다양성의 개념 등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 전반적 환경문제 또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아님도 분명하다 (선우영준, 2003: 117).

11) 노르웨이의 수상 브룬트란트가 위원장을 맡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국제연합에 의해 설치됨)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들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 변화, 노동, 식량, 에너지 등의 충실, 지속가능한 수준의 인구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등장 아래 그 시비 여부와 채택을 둘러싸고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말이기도 하다. 발전의 영속성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영속적 발전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논의다. 또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대산업이 영속적인가, 혹은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농림업을 중시하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있다. 그리고 이른바 남측에는 개발의 권리가 있고, 북측 여러 나라에는 더 이상의 개발은 무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한한 지구 생태계 안에서 영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가라는 논의도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는 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한 금세기 최대의 회의가 되었다 (선우영준, 2003: 115).

있다 (이성록, 2007: 28-29). 그 결과 자발적 주민참여가 간과됨으로써 자주방재조직의 독자성, 자주성이 결여된 채 행정주도의 관변조직으로 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다. 현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험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반면교사 삼아, 근본적인 정신을 간과하고 조직화 비율 증가에 급급함으로써 실제로는 형태만의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치밀한 방재사상·의식의 보급은 실시하지 않은 채, 조직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행정조직 간에 조직비율을 높이는 경쟁을 함으로써, 조직화 추진만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역자율방재조직화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조직들 간의 역학 관계와 인간행동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자율방재 조직에 자발성이라는 정신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는 실현될 수 없다.

1) 자발적 사회¹²⁾

인간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인센티브로서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들라면 힘(force)과 돈이다 (김경동, 2007: 72). 국가란 원래 합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힘(권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권위에 의해서 국민인 시민을 강제하고 복종케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다.¹³⁾ 이에 비해서 시민사회는 그러한 강제적 구속력을 지니고 행사할 힘의 근거가 없다.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강제가 아닌 자발성이다.

다른 한편, 시장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경쟁의 마당이다. 경쟁에는 규칙이 있지만 목표는 이익 극대화다. 특히, 시장에서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돈, 즉 경제적 부(富)다. 내게 이익이 생기면 교환과 경쟁에 참여해서 규칙대로 움직이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참여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 보상이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는 시장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작동원리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 특히 경제적 보상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발성이야말로 시민사회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가장 뚜렷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작업의 대표적인 보기로 ‘자발적 사회’(the Voluntary Society)라는 개념이 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사회학자 숀츠(James Shultz)가 제안한 개념으로 자발적 사회란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루

12) 이 부분은 김경동(2007)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pp. 69-110에서 많은 부분을 참조하였음.

13) 국가는 필요하면 심지어 폭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강제할 수도 있다. 국가의 권력은 사실상 정당성을 인정받은 폭력이라고도 한다.

하되 힘과 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은 조직 원리로 구성하는 사회다. 자발적 사회는 상대적으로 비폭력적이고 비강제적이며 비물질적인 사회이다. 자발성(voluntarism)이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고 사회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요 수단이 된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규정을 하자면 자발적 사회는 봉사의 이상을 깨우치고 장려함을 조직 원리로 하는 사회이다 (김경동, 2007: 73-74 재인용).

(1) 조직체 차원의 자발성

자발적 사회는 봉사의 이상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할 때 봉사의 이상이 높은 사회 또는 조직체의 특징은 자율적이고(autonomous) 공헌 지향적이며(contributive) 높은 뜻 혹은 대의(cause)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발성이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회나 조직체의 목표와 수단을 자체 구성원들과 지도자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공헌지향성은 근본적으로 자발적 사회나 조직체는 친사회적인(pro-social) 성격을 띠고서, 사회변동에 적응함과 동시에 도덕적 기업가 정신(moral entrepreneurship)¹⁴⁾으로 무장하여 사회변동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회나 조직체는 가치를 제고하는 어떤 목표를 내걸고 실천을 시도하게 되는 데 이때 그러한 실천은 일정한 사회적인 대의(大義) 혹은 높은 뜻을 지닌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렇게 대의를 내걸고 달성하려는 목표를 향한 노력의 도덕적인 가치가 구성원들이 신뢰할 만한 호소력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이 큰 뜻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그만하면 믿고 동참하여 이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한 큰 뜻이 있는 일이라는 말이다. 이 세 가지가 자발적 사회의 조직적 차원의 구성요소이다.

(2) 개인 차원의 자발성

이처럼 자율적이면서 공헌지향적인 대의를 실현하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의 내면에 ‘자유재량에 의한 봉사지향’(discretionary service orientation)을 요구한다. 자신의 자유재량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바꾸어 말하면 사회가 강제력과 돈으로 개인의 봉사를 유도하려는 확률을 대폭 줄여 주는 정신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남의 강제나 혹은 회유 없이 스스로 재량껏 봉사하는 성향은 조직체 수준의 자율성 및 공헌지향성의 이념과 맥을 같이한다.

2)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관리

14) 여기서 도덕적 기업가정신이란 사회가 변하는 와중에 허물어져 가는 사회의 주요가치를 되살리고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서 사회가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변화를 추진하는 성향을 일컫는다.

왜 지역중심의 재난관리(CBDM)가 필요한가? 이는 지역사회 주민이 재난의 잠재적 피해자이며 동시에 재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처음으로 대응을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주체가 지역사회주민이다. 또한 재난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지역주민이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관리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중심의 재난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 동기부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적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의 고취, 모든 차원에서 상호지원협력, 정책과 실행 간의 간극 좁히기, 제도화 및 정치적 책임, 비용효과적이면서 실용적인 구조적, 비구조적 방법을 통한 “집단 안전” 확보 등이다.

3) 지역자율방재 활동프로그램의 필요성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일반 시민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하는 사람은 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주로 시민인 만큼 시민이야말로 제1차 구조대원이자 응급조치를 취하는 사람이다. 시민들은 또한 가정, 동네, 직장, 교회, 지역사회 중심지에서 위험경감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 비상대응교육(CERP)은 비상대응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을 조직하고 교육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소방대원 및 구조대원과 같은 지역 전문 인력이 교육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은 안전감, 개인적 책임감,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율방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비상대응교육(CERP)은 각 지역사회 또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를 지역자율방재조직이 중심이 되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점이 본 과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자율방재조직의 활동프로그램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라 본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 활성화를 위한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5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질 것이다.

제3장 지역자율방재의 이론고찰과 국내외 자율방재 현황

제1절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BDM)와 재난저지공동체(DRC)

1. 재난취약성과 지역사회

지역자율방재의 문제를 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핵심 개념의 하나는 재난취약성(vulnerability)이다. 재난취약성의 문제가 지역자율방재 역량을 저해하는 핵심적 장애가 되는 것은 많은 경우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또 다시 동일한 재난을 반복해서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취약성의 수준이 높아져 지역사회의 총체적 방재역량과 의욕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취약성 수준과 재난발생의 빈도 내지 강도가 ‘누적적 악순환(cumulative vicious cycle)’의 함정에 빠질 때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및 생태적 보존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권태호·오금호, 2006: 156-157).

1992년 6월 리우(Rio) 회의의 실천강령(Agenda21)이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의 유지를 위해 재난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2005년 1월 고베시에서 개최된 재난경감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f Disaster Reduction: WCDR)도 향후 10년(2005-2015)간 행동강령의 전략적 목표로서 재난경감의 문제, 즉 취약성의 이슈를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통합하고 있다. 즉 지역 기반 재난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이 재난관리 영역을 넘어서 해당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담보하는 결정적 요건이 됨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취약성 수준을 예방/대비의 차원에서 경감시켜 재난 시 인적, 물적 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적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방재역량을 중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 참여와 계획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적 방재역량 강화계획에서 상호 밀접히 관련되는 두 가지 접근은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CBDM)¹⁵⁾와 재난저지공동체(Disaster Resistant Community: DRC)이다.

15) 학자에 따라 Community Based Disaster Risk Management(CBDRM) 또는 Community Based Disaster Mitigation(CBDMit)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BDM)

지난 20여 년간의 재난관리 경험에서 정부주도 하향식 복구위주의 자원배분 전략만으로는 결코 지역사회의 방재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특히 재난취약계층(특히 빈곤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었다. CBDM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향식 접근의 대안으로 1980년대부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목받게 되었다.¹⁶⁾

CBDM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재난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재난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장단기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과정 재난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재난취약성의 경감 및 취약요인 제거에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QoL) 향상에 기여한다는 개념이며, 이는 주민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재난관리의 경험, 방법, 수단을 공유하면서 내부 방재역량을 강화하는 적응적 전략(adaptative strategies)인 동시에 정부(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 수준의 연대까지)와 유연하게 협력·연대하는 상향적 접근을 의미한다 (Allen, 2006:83; Benson, et als., 2000).

CBDM 접근은 우선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그룹의 방재역량강화 및 재난취약지구의 취약성 경감을 위한 노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사람’과 ‘장소’ 우선의 관점은 이 개념이 아시아를 비롯한 발전도상국의 개발문제, 특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슈와 연계되어 조명되고 접근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1) CBDM의 존재이유(Rationale) 내지 필요성 세 가지(지식, 근접성, 책임)

- i) 현장의 지식(knowledge):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지역 재난취약성과 방재역량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
- ii) 현장의 대응 근접성(proximity): 재난 발생 시 외부의 구호나 지원이 도착하기 전, 또는 외부 지원이 불가능 할 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자원은 지역주민들이다.

16) 아시아 지역의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의 대표적 노력으로는 방콕소재 Asian Disaster Preparedness Center(ADPC)가 USAID와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실행한 ‘아시아도시재난경감프로그램(Asian Urban Disaster Mitigation Program: AUDMP)’ 및 2002년 후쿠오카의 United Nations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UNCRD)에서 실행한 3년 프로젝트인 ‘Sustainability in Community Based Disaster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UNCRD, 2004; Victoria, 2002: 270).

- iii) 복구의 최종책임자(responsibility): 외부 봉사자과 복구지원 인력이 모두 떠났을 때 최종적으로 복구를 마무리하고 책임져야할 주체는 결국 지역사회와 주민들이다 (Shaw and Okazaki, 2004: 8-9).

2) CBDM의 세 가지 목표

- i) 취약성의 경감, 취약계층의 대응능력 강화 그리고 재난 시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 (손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대응능력 강화
- ii) 인적 손실(human suffering)의 최소화
- iii) 빠른 복구의 추진 (Victoria, 2002: 171).

3) 계획 원칙

ADPC(2006: 15-17)는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4가지 차원, 즉 윤리적 (핵심가치), 전략적, 전술적 그리고 실행 차원에서 모두 16가지의 원칙을 제시 한다 (표 3-1). ADPC의 원칙들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곧 인간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기본 인식에 기초하여 재난경감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실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s)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지표적용 과정에서의 지역여건과 발생가능한 부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3-1) ADPC의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 원칙

| 수준 | 원 칙 | 내 용 | 자율방재 조직과의 연관성 |
|------------------|---------------|--|---------------------|
| 윤리 (핵심 가치) | 기본권 | •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는 인간의 기본권 | ● |
| | 정보공유 | • 위험-재난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책임의식도 강해짐 | ● |
| | 평가정보 | • 위험평가 정보 및 결과의 공유, 특히 NGOs 등 | ● |
| | 협력 | • 방재 주체(정부, NGOs 등)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요구됨 | ● |
| 전략 | 전략적 고려 | • 목표, 자료, 평가방법 등 전략적 차원 고려사항 반영 | ○ |
| | 신뢰 대(對) 통제 | • CBDM 운영에 있어 신뢰와 통제(control) 간 조화, 균형 | ○ |
| | 구성원 | • CBDM 구성원의 사명감 및 협력적 경쟁유도 | ● |
| 전술 | 고려사항 | • 전술적 차원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 | ○ |
| | 기준자료 | • 객관적 평가를 위해 기준(baseline) 자료에 충실할 것 | ○ |
| | 지표측정 | • 성과관련 정량, 정성지표 구분 명확히, 측정 객관성 확보 | ○ |
| | 최소요구조건 | • 성과관련 지표의 최소 요구조건 명확히 설정 | ○ |
| | 지표타당성 | • 각 지표 타당성 충분히 검토 | ○ |
| | 지표 updating | •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지표 updating 유지 | ○ |
| | 관련계획과 부합성 | • 개발계획, 정책, 프로그램, 지속가능개발정책 등 관련 계획들과의 부합성(일관성) 유지 | ○ |
| 실행 | 지표 현실성 | • 해당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 여건을 반영하여 지표 적용 | ○ |
| | 지표 부작용 | • 적용되는 지표의 발생가능한 부작용 고려 | ○ |

출처: ADPC(2006: 14-17)에서 요약.

주: ● 강한 연관성, ○ 약한 연관성, ○ 직접적 연관성 없음.

4) CBDM 계획의 과정 및 특성

CBDM의 계획과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맥락과 여건, 그리고 재난의 유형 및 강도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할 것이고, 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그 계획내용이 반드시 이러한 지역요인들을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프로토콜(protocol), 의사소통체계(communication system), 의사결정수(decision-making tree) 그리고 구호·지원전달시스템(care delivery system)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Cingerich, 2004: 48).

선행연구 (Allen, 2006: 83-90; Kafle and Murshed, 2006: 16-22; Shaw and Okazaki, 2004; Victoria, 2002: 274-275; Yodmani, 2001: 493-497)들은 CBDM의 일반적 과정을 대체로, i) 재난과 관련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취약지구와 계층의 선정, ii) 지역사회 재난위험평가, iii)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iv) 계획실행 및 평가, 그리고 v)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의 순서로 제안하고 있으며 (표 3-2), 이러한 과정은 계획이론에서 보편적으로 강조되어온 ‘문제의 진단-대안의 탐색-실행 및 평가’라는 전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재난, 특히 자연재해의 경우 거의 매년 발생하는 점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과정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진행됨을 감안하면, 계획과정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특성을 띤다고 할 수 있으며, 계획실행이 곧 대상지역의 재난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위험수준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작업임에 비추어 보면 환류(feedback)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전 과정을 통해 전제되어야 함을 감안하면 이 계획은 옹호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초기단계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취약지구와 계층을 선정하면서 중요한 점은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지구, 특히 재난취약지구의 구성원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신뢰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와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과 실행이 추진될 수 있고, 그래야만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표 3-2) CBDM 계획과정의 주요 연구자간 비교

| 연구자 | Kafle and Murshed(2006) | Yodmani(2001) | Victoria(2002) |
|-----|---|---|--|
| 단계 | 1. 커뮤니티의 선택 2. 구성원간 관계 · 신뢰 형성 3. 참여적 재난위험평가 4. 커뮤니티기반 재난 위험관리계획 수립 5. 커뮤니티에서 계획 실행 6. 모니터링 및 평가 | 1. 취약커뮤니티설정 (involvement) 2. 커뮤니티 프로파일링 3. 커뮤니티 (재난)위험 평가 4. 상세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5. 실행 및 모니터링 6. 평가 및 환류 | 1. 과정의 차수 2. 커뮤니티 프로파일링 3. 커뮤니티 (재난)위험평가 4. 재난위험경감초기계획 준비 5. 재난대응조직 구성 6. 위험경감조치 실행 7. 모니터링 및 평가 |

3. 재난저지공동체(DRC)

재난저지공동체¹⁷⁾ 개념은 미국의 방재학자 D. Geis에 의해 소개된 후, CUSEC(Central U.S. Earthquake Consortium),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에서 도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논의한 CBDM과 유사한 접근이다. 이 개념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유지케 하는 방재측면의 장기적, 전략적 방재전략으로 이해되며,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전에 재난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DRC는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 가능한 지역사회를 설계, 건설, 관리하기 위해 우리의 지식을 학제적으로 활용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모델, 과정, 지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하는 동시에,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원 가능한 원칙과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성을 극소화하는 수단을 의미하기도 한다(Geis, 2000: 152).

1) 계획원칙

계획 측면에서 Geis(2000: 152-154)의 연구를 참조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DRC의 주요 원칙을 제시하면, 1) 지속가능개발 개념과 통합, 2) 지속가능 지역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 3) 총체적·통합적 계획, 4) 도시·건축계획 시 방재 개념도입, 5) 방재관리기능 강화, 6) 지역맥락의 반영 및 상향식 접근, 7) 민-관의 참여 역량 강화, 8) 지방정부 역할 강조, 9) 인권으로서의 방재 중요성 강조, 및 10) 부차적 편익의 고려 등이고, 이 중 원칙 6부터 10은 지역자율방재 조직과의 연관성이 높다.

17) 공동체는 다의적(多意的) 개념으로서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들, 즉 상호작용과 문화적 연대성을 가지는 집단을 지칭하며, 따라서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사회라는 용어와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재난저지공동체와 유사한 용어로 재난복구 공동체(Disaster Resilient Community)가 있지만, ‘복구’는 재난발생 후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저지’는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가 있어 재난저지공동체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어로 보인다.

(표 3-3) DRC 계획의 10가지 원칙

| 수준 | 원칙 | 내용 | 자율방재조직 과의 연관성 |
|-----------|------------------------|--|------------------|
| 지속가능개발 | (1) 지속가능 개발 개념과의 통합 | • 계획·실천과정은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의 큰 틀 속에서 이해, 통합 (지속가능성: 재난취약성을 저지, 최소화를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 | ○ |
| | (2) 지속가능 지역사회의 수단으로 인식 | • 지속가능 지역사회의 구축, 유지(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야함 | ○ |
| 관련계획 | (3) 총체적 통합적 계획 | • 개발패턴, 건축계획, 시설계획, 토지이용 등 관련 분야와의 밀접한 상호관련성 속에서 총체적, 통합적으로 접근 | ○ |
| | (4) 도시·건축 계획 시 방재개념강화 | • 건축, 교통 및 인프라시설, 상업지, 공공시설의 계획·설계에 방재 개념통합 | ○ |
| | (5) 방재관리 기능 강화 | • 위험·취약성 평가, 경감원칙 및 기법활용의 최적화방안이 포함되어야 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 | ○ |
| 추진방식 | (6) 지역맥락의 반영 및 상향식 접근 | • 지역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계획·개발의 틀과 조화, 반영 • 주민차원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사회문화 특성을 반영하면서 상향적으로 수립 | ● |
| | (7) 민·관 참여역량강화 | • 비상관리관, 계획가, 공무원, 주민 및 기업가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적 수단을 제공 | ● |
| | (8) 지방정부 역할강조 | • 계획, 프로그램은 지방차원에서 계획, 실천되어야함 (중앙 및 도 정부는 정치적, 정책적 지원역할) | ○ |
| 이념과 인식 전환 | (9) 인권으로서의 방재 | • 안전한 환경에서의 삶은 사치가 아니라, 규정하는 기본권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임 (헌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민건강, 안전, 공공복리보장 등)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지원금, 복구비)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방재가 주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추진 | ● |
| | (10) 부차적 편익 고려 | • 방재문제가 지역의 우선관심사는 아니므로, 부차적인 편익 - 환경적, 사회적, 기업경제적 - 이 지속기능개발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함 | ○ |

출처: Geis(2000: 152-154)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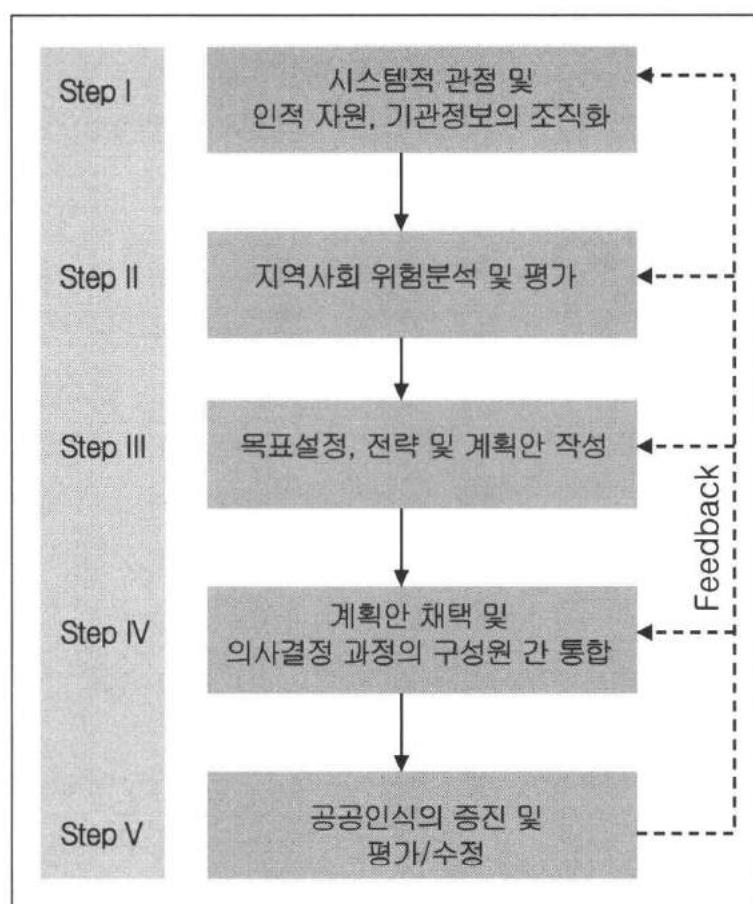
주: ● 강한 연관성, ○ 약한 연관성, ○ 직접적 연관성 없음.

2) 계획과정

지속기능개발의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하여 종합적 차원에서 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서의¹⁸⁾ 재난저지공동체 계획과정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Berke와 Campanella(2006)의 연구, Geis의 5단계 과정(Geis, 1996), FEMA(2000)의 10단계 과정, CUSEC(1997)의 4단계 과정, Petterson(1999), Sanderson(2000) 및 Yodmani(2001),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2004)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재난저지 공동체 계획과정을 아래와 같이 5 단계로 제안한다.

(그림 3-1) 재난저지 공동체 5 단계 계획과정



□ 1 단계 : 시스템적 관점과 인적자원 · 기관 · 정보의 조직화

I-1 (시스템적 관점의 유지) :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재난관리전략을 종합적으로 설

18) 동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통합적 계획틀(Planning Framework)을 갖는 전략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 사항은 Van Den Broeck (2004)를 참조.

명하되, 자신들의 건물·재산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제 환경요소들이¹⁹⁾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임을 인식시킨다.

I-2 (계획수립을 위한 인적 자원 조직화) : 계획과정은 계획 그 자체만큼 중요하므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이끌어 갈 최적의 팀을 구성한다.

I-3 (공공참여) : 잠재적 피해주민, 지역 기업가, 공공시설 관리자 및 기술진 등 관련 그룹을 모두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시킨다.

I-4 (유관 부서 및 기관과 협의 조정) : 유관 부서 및 기관들은 기술적 지원을 하며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5 (재난관련 자원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 계획수립, 운영에 유용한 재난 관련 연구자료, 정보, 문헌, 전문가, 현지 전문가, 전문팀 및 사례 그리고 유용한 방법 등을 수집,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 2 단계 : 지역사회 위험분석 및 평가

II-1 (위험 평가) : 재난취약성 평가(HVA: Hazard Vulnerability Assessment) 등을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 구체적인 취약부문, 자원 및 기회요소를 분석하고, 재난에 의해 핵심 기반시설을 평가한다.²⁰⁾

II-2 (평가결과에 대한 참여자 동의) : 밝혀진 위험요소에 대해 계획참여자들의 동의를 획득한다.

□ 3 단계 : 목표설정, 전략 및 계획안 작성

III-1 (목표설정) : 주민들이 협동해서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III-2 (가능한 전략 및 수단 검토) : 가능한 재난 예방, 대비 수단들을 검토하되, 각 수단별 발생 비용(Cost)과 편익(Benefits)을 면밀히 분석한다.

III-3 (계획안 작성) : 재난위험분석 결과 및 재난경험으로 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19) 건물 블록(Building Blocks), 근린주구, 지역사회, 가로, 공원, 하부구조 및 기타.

20) 이 단계에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은 i) 재난 발생지역의 확인, ii) 예상되는 개발 시 재난취약성 평가, iii) 재난대비 설계의 적용 및 iv) 관련정책 의사결정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Parentela and Nambisan, 2000).

지역사회의 지속가능개발 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될 수 있는 개발·설계
지침을 여러 개 마련하되, 가능하면 간략하게 작성하고, 계획수립과정, 추천하는
대비조치들, 예산 및 실행 일정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 4 단계 : 계획안 채택 및 의사결정 과정의 구성원 간 통합

IV-1 (계획안 채택) : 계획실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내용에 대한 주민 동의 및 인지·교육을 강화하고 최종계획을 확정한다.

IV-2 (우선순위 유지) : 계획실행을 위한 의사결정의 각 단계²¹⁾에서 재난저지공동체의 가치(중요성) 및 우선순위가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내도록 한다.

□ 5 단계 : 공공인식의 증진 및 평가·수정

V-1 (공공인식 증진) : 의사소통 자료, 미디어 활동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주민교육은 재난저지공동체 계획이 지역사회에서 착근, 확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계획 비전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통해 재난저지공동체 계획실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계획하는데 추가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V-2 (실행 평가 및 수정) : 계획의 진전(Progress), 강점(Strengths) 및 약점(Weakness)을 평가할 수 있는 전략적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부수되는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한다.

21) 용도지역제, 건축규정, 예산책정, 교통계획, 시설관리, 토지분할 등이 중요한 부분임.

제2절 우리나라의 지역자율 방재

1. 지역자율 방재정책 방향

2007년 2월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민간의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 단 확대추진 지침’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i)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 증대 요구,
- ii) 따라서,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조직 필요,
- iii) 재해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주체가 없으며,
- iv)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추진방향으로서 다음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2007).

- i) 신설 조직이므로 초기에는 조직의 확대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기반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 ii)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조직구성이나 운영에 관(官) 주도성 배제 단, 조직구성이 완료되고 안정적 운영 시까지 일부 분야에 자치단체의 개입 필요
- iii) 지역별 방재단 구성은 착안사항 중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안(案)을 선택하여 추진
- iv) 시·도는 시·군·구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구성 적극 독려
- v) 중앙지원단을 활용한 단원의 교육 지원 등
 - 자치단체 및 각 방재단은 조직구성·운영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 「중앙지원단」에 자문요청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중앙에 중앙지원단 지원 요청 가능

- vi) 각 시·군·구는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방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 필요시 시·도에서 일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조례 제정 가능
 - 자치단체와 방재단의 역할 정립은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 상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작성
- vii) 방재단은 구성과 동시에 반(班)을 구성하고 반별 임무를 부여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확보
- viii) 중·장기적으로는 전국단위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되 인위적인 조직 확대 지양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의 지역자율 방재 관련 조직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의 정책 방향이라기보다는 시범운영 중인 46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강화를 위한 세부적 운영방향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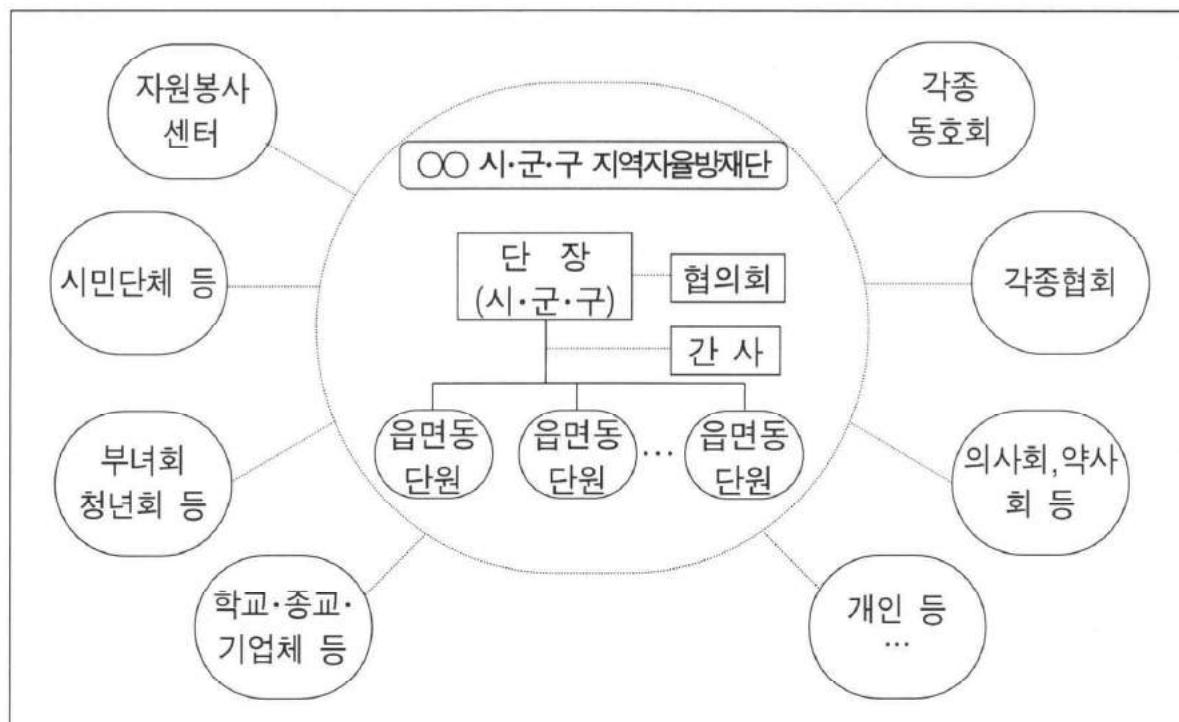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율 방재조직 운영의 궁극적 목적이 i)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단계에 걸쳐 지역사회의 총체적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ii) 나아가 지역의 재난취약성을 최소화함으로써, iii) 재난저지공동체 실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 지역자율 방재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은 첫째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갈 주체(actor)로서의 구성원의 교육과 훈련, 둘째 구성원 간의 신뢰(trust)와 협력 시스템(system) 구축, 셋째 재난에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할 수 있는 혁신적 운영프로그램(action program)을 개발, 제시 한다.

2. 자율방재 관련 주요 조직²²⁾

1) 지역자율방재단

2006년 착수하고 2007년 현재 현재 46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부녀회,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방범조직 등, 단일 활동을 주로 하는 기존 관련 조직의 위상을 극복하고 지역의 제 관련 민간조직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유지하여 재난 발생 시 지역의 총체적 주민참여 방재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며, 민간중심의 민·관 파트너 쉽을 강조하며,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그림 3-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관련조직의 네트워킹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은 구성과 동시에 전문성 및 활동분야를 기준으로 반(班)을 구성하고 반별 임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

22) 본문에 언급된 단체 외에도 민방위대(20~45세 남성으로 의무적 구성),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시민안전봉사대, 재난극복자원봉사총연합(민간단체 8개호 구성), 재난안전네트워크(민·관·산·학 협의체, 22개 기관 참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많은 단체들이 재난발생 시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여 단원들의 방재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2항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구체적인 사항은 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되, 방재단의 구성·운영·지원, 역할 정립, 교육·훈련 및 인센티브, 기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3-4)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안)

| 구분 | 제 1 안 | 제 2 안 | 제 3 안 |
|----|---|--|---|
| | 기존조직 활용 | 신규조직 구성 | 기존조직+신규조직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중 원하는 단체를 N/W로 연결·구성 필요시 단원을 시군구에서 구성하여 읍면동에 배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조직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활동단체를 N/W 하고, 개인 신청자로 신규 조직을 통합 구성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조직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봉사와 연계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참여가 용이하고 지역적 안배가 좋음 구성·운영에 기존조직의 구애를 받지 않음 방재활동의 독자성이 발휘되고 집중도가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직활용 및 신규조직 구성으로 상호보완적 구성 가능 기존조직의 시스템 활용으로 운영정상화가 빠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가능 방재조직의 독자성과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동시에 총족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조직결성은 용이하나 개인 참여가 차단되고 지역안배가 소홀해질 수 있음 기존 조직들의 고유영역에 의해 집중도가 낮고 주도권 문제 등으로 실질적 방재성과에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조직구성 및 역량발휘가 어려움 운영의 방향성 확보가 어렵고 운영의 정상화 까지 상당 기간 소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구성이 다소 복잡함 |

출처: 소방방재청(2007).

2) 의용소방대

1958년 최초로 조직되었고 현재까지 민방위대 소집으로 갈음되는 수방단에 비교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의용소방대원은 무보수로 봉사하게 되나, 기본수당, 활동비, 재해보상비, 자녀장학금, 피

복비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는 수방단의 경우 민방위대와 업무가 중복되고 인센티브가 없어 활동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는 평상시에는 화재경계 업무,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 시 진화, 구조 등 소방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199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2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41개 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행정자치부, 2007b: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15조에서 규정하는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및 6)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운영 형태는 직영 61%, 위탁 33%, 법인형태 6%로서 운영 민영화율은 39%이고, 총 상근인력 784명 중 민간인이 74.1%인 581명을 차지한다 (표 3-5). 최근에는 봉사활동 분야가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통봉사뿐만 아니라 의료지원과 재난복구 등으로 그 영역이 다양화 되고 확대되고 있으나, i)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 저조, ii) 자원봉사의식 결여, iii) 전문인력의 참여 부족, iv) 단기성 자원봉사자가 많고(대부분 6개월 미만), v) 중도탈락자가 많은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표 3-5) 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운영현황

| 연도 | 조례제정 지자체 | 운영형태 | | | | 상근인력 | | |
|---------|-------------|------|-----|----|-----|------|-----|-----|
| | | 직영 | 위탁 | 법인 | 계 | 민간인 | 공무원 | 계 |
| '03. 12 | 170 | 140 | 99 | 9 | 248 | 486 | 208 | 694 |
| '04. 12 | 200 | 137 | 102 | 11 | 250 | 543 | 191 | 734 |
| '05. 12 | 207 | 146 | 95 | 9 | 250 | 557 | 211 | 768 |
| '06. 12 | 241 | 151 | 83 | 14 | 248 | 581 | 203 | 784 |

출처: 행정자치부(2007b: 4).

3.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

1) 구성 원칙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경우에도 시·군·구 단위로 묶어서 시·군·구별 하나의 방재단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단원의 거주지,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단위까지 단원을 배분하되 가급적 자연부락 단위까지 세분하여 배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 기존의 민간단체 뿐 아니라 동호회, 종교, 학계 등 모든 분야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권장하면서, 관주도성을 배제하고 민간중심의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2) 조직 방향

방재단 조직의 기본적 사항들은 지자체별로 제정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단장을 중심으로 읍·면·동 대표, 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²³⁾ 방재단 결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하되, 방재단이 결성되고 단장이 선임되면, 단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 후 해체한다. 방재단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일반조직(일반회원)과 전문조직(전문회원²⁴⁾)으로 대별한다. 회원은 가능한 마을별로 1명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오지마을 등은 반드시 회원을 확보하고, 해당마을에서 회원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마을 회원을 지정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회의소집 연락 및 서류작성, 행정기관과 상시 연락체계유지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 1인을 지정한다.

명칭상 OO반은 OOT팀으로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일반조직인 감시반,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전문조직인 인명구조, 급수, 급식, 교통통제, 방역, 의료, 구호, 주택복구, 통신, 장비지원, 차량지원, 피해진단팀 등은 모두 재해 발생시 운용되는 조직으로서 평상시의 학습·교육, 봉사활동 관련 팀 구성은 빠져있다. 따라서 평상시와 재해 발생시

23) 예를 들어 충북 단양군의 경우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2006년 1월 제정하고 제4조에서 단장 및 간사의 선출(위촉)방식, 방재단원의 참가자격 및 모집 등 조직의 기본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운영협의회로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4) 전문회원은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지정 가능하도록 한다.

로 구분하고, ‘유연하게’ 편성, 운영함이 바람직하고, 조직, 운영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끌어가는 총괄팀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다.

3) 운영 원칙

방재단의 운영은 아래의 3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짜여진다. 첫째 민간중심의 민·관 파트너십에 충실해야 하며 관주도성을 되도록 배제한다, 둘째 일반회원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활동을 부여하고, 전문회원은 개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활동을 부여한다, 셋째 활동시점(또는 단계)과 유형을 적용한다.

활동시점은 평상시(일상적) 또는 재해 발생시(비일상적)의 구분이며, 평상시는 예방/대비 단계, 재해 시는 대응-복구 단계로 볼 수 있다.

4) 평상시 및 재난 시 주요 활동

방재단의 평상 시 활동은 i)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센터, 새마을회 등 기존 관련 조직과의 수평적 협력과 연대, ii) 방재관련 (상호)학습 및 토론을 통한 방재의식 및 참여의식 고취(예: 읍·면별 현장기반 재해위험 지도 만들기, 중앙-시·군정부-방재단 간 연계활동프로그램개발 등), iii) 지역별 재해 위험지구 등에 대한 점검과 예찰 (예: 점검과 예찰의 팀별 전문성 유지, 우선순위 유지 등) 그리고 iv) 자원봉사 (예: 사회복지관, 보건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의료시설, 각급학교, 지역사회/행사, 가사봉사, 보육시설 등) 등이 중심이다.

한편 재난 시 활동으로는, 우선적으로 초기대응·구출·구조, 정보수집 및 전달, 주민안전 대피유도, 봉사단체와의 협력·지원, 대피소 관리·운영, 방역·의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은 활동이 필요한 장소(disaster place)를 지체 없이(without delay) 파악하고 가능한 신속하게(most promptly), 가장 적절한 인력(best manpower)을 공급하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방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인적자원과 물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모니터링, 관리하는 네트워크화 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4. 관련 조직 간 유기적 관계 설정

46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율 방재단을 시범운영 중인 현 단계에서 방재단의 위상과 잠재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존 조직과의 역할 중복, 상이한 담당 행정 부서의 양립(재난관리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등)과 여기에서 오는 단원들의 중복가입 문제 등을 당분간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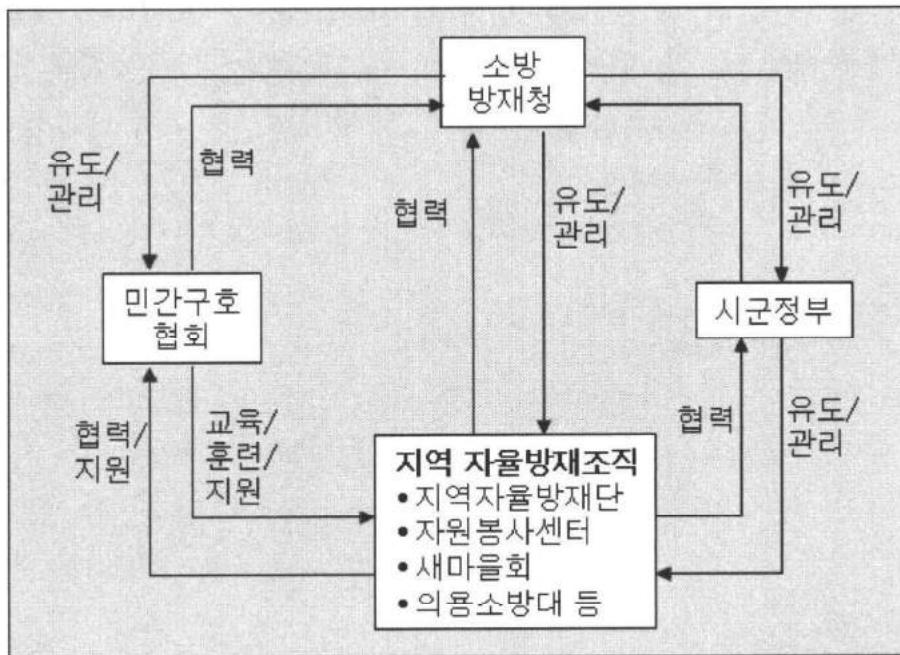
기본적으로, 지역자율 방재조직 구성의 초기인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46개 시범 지역 방재단의 활성화를 통한 전국 단위로의 확대가 요구되며, 장기적 측면에서 방재 단의 전국화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고,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방재단 내에 충분히 축적 되면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전국재해구호협회, 적십자 조직 등과의 관계 정립이 상위의 거시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됨이 바람직하다.

평상 시 기관은 고유의 봉사활동에 충실히 원칙으로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예방-대비 차원에서 관련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대비 관련 학습,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방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둔다. 재해 시에는 지역자율 방재단이 중심이 되어 관련 조직과 협력하면서 대응-복구의 선도적 민간 조직으로 역할 하도록 하고, 동시에 시-군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에 있어서도 민간 조직의 대표성을 갖도록 한다.

민간구호단체는 재해현장에서 임시지휘소를 중심으로 구호물품 및 장비 제공 등을 통해 지역자율 방재단을 지원하며, 평상 시 사례 별 필요성이 있을 시 방재단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등 지역의 자율방재조직들과 민간구호단체의 가능한 상호 역할분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이 두 그룹간의 의사소통 시스템과 유기적 협력체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 축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조직이 현장 지식과 봉사 인력을 담당하고 민간구호단체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면 장기적, 거시적 측면에서 재난관련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역할분담을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유도와 조정을 통해 민간조직 간의 협업체계가 강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집합적 효율성(collective efficiency)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3-3) 관련조직 간 역할분담 체계



제3절 국외 지역자율방재 조직 사례

1. 일본의 자주방재

1) 자주방재 정책 방향

일본에서는 재해를 경감해, 안전·안심의 사회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행정에 의한 공조(公助) 뿐만 아니라, 시민에 의한 자조(自助) 및 공조(共助)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⁵⁾. 경도대학 방재연구소장인 河田惠昭(2006: 94-95) 역시 자조(自助), 공조(共助) 및 공조(公助)의 세 개념을 정착하고, 조화롭게 활성화하는 것이 일본 자주방재의 핵심 선결 과제라고 강조한다.

첫째 자조(self-help)는 개인적 차원의 이슈로서, 예를 들어 자신의 주택이 붕괴되지 않도록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주택의 내화성능을 높이도록 하는 등의 노력과 지진에 대비하여 가구를 고정하고 최저 3일분의 식량과 물을 확보하는 등의 준비를 말한다.

25) 2007년 7월 6일 인터뷰한 효고현청의 히라타 마사노리(平田 正教) 계장도 자조(自助), 공조(共助) 및 공조(公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상호협력 정신인 공조(mutual-help)는 공동체 유지의 핵심자원이다. 지역사회 차원의 피해자지원제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 테, 효고현 주택재건공제 제도를 예로 들면 연간 5천 엔씩 적립할 경우 재해 시 최고 600만 엔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방대, 자주방재조직의 구축, 자원봉사자의 조직화 등 공조(共助)의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공조(public help)는 국가나 도·도·부·현 시·정·촌의 방재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최근 까지도 국가차원의 방재운동의 전개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역공동체 기반의 자주방재가 중요한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효용성은 그리 높지 않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고베지진 시 피크(peak)기 1주일 간 대피소(즉 공조 장소) 수용인구는 32만 명이었고, 지진 후 40일간 수용인구 평균은 전체 재해민의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86%의 재해민은 자조(自助) 및 공조(共助)의 방법 즉 친지 집, 회사에서 지정한 시설, 아파트, 호텔 등에 대피하였다. 재해발생 전에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조(自助) 10%, 공조(共助) 20% 및 공조(公助) 70%의 의존율로 생각하기 쉬우나, 현실에서는 자조(自助) 70%, 공조(共助) 20% 및 공조(公助) 10%의 역할을 비율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자주방재 활동의 추진²⁶⁾

(1) 자주방재 조직의 설치현황

자주방재 조직²⁷⁾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지역은 스스로 지키자”라고 하는 슬로건에 근거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으로, 2005년 4월 1일 현재, 전국 2,418 시구읍면 중 1,988 시구읍면에서 설치되어 그 수는 11만 5,814 조직으로, 조직율은 64.5% (전년 대비 2.0포인트 증가)이지만, 지역에 따라 결성 상황에 큰 차이를 보인다 (표 3-6).

(표 3-6)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자주방재 조직률* (2005년 4월 1일 현재, %)

26) 2006년 일본방재백서를 요약 정리함.

27) 1962년에 만들어진 재해대책기본법에는 ‘자주방재조직’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지 않았으며, 1963년 국가방재기본계획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의 한신 아와지 지진이후이다. 자주방재조직은 지진, 풍수해, 화재 기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를 방지하고 또는 경감하거나 화재나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이 연대, 협동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설치 운영하는 방재조직을 말한다.

| 도도부현명 | 조직률 | 도도부현명 | 조직률 | 도도부현명 | 조직률 |
|-------|------|-------|------|-------|------|
| 北海道 | 41.4 | 東京都 | 75.9 | 滋賀縣 | 61.6 |
| 青森縣 | 25.9 | 神奈川縣 | 80.3 | 京都府 | 84.7 |
| 岩手縣 | 58.9 | 新湯縣 | 29.9 | 大阪府 | 64.8 |
| 宮城縣 | 80.0 | 富山縣 | 38.4 | 兵庫縣 | 94.7 |
| 秋田縣 | 58.5 | 石川縣 | 61.3 | 奈良縣 | 24.4 |
| 山形縣 | 55.4 | 福井縣 | 55.9 | 和歌山縣 | 69.2 |
| 福島縣 | 77.6 | 山梨縣 | 96.2 | 鳥取縣 | 62.3 |
| 茨城縣 | 55.1 | 長野縣 | 73.7 | 島根縣 | 27.0 |
| 栃木縣 | 84.5 | 岐阜縣 | 82.9 | 岡山縣 | 43.6 |
| 群馬縣 | 62.1 | 靜岡縣 | 98.5 | 廣島縣 | 61.6 |
| 埼玉縣 | 56.9 | 愛知縣 | 97.8 | 山口縣 | 51.9 |
| 千葉縣 | 53.1 | 三重縣 | 87.3 | 德島縣 | 54.6 |

*조직률 = 조직 완료한 해당 지역의 세대수 ÷ 전국 세대수 × 100(%)

출처: 평성18년(2006년) 일본방재백서.

(2) 자주방재조직의 활동

자주방재조직은, 평상시에는 방재관련 훈련실시, 지식계발, 예찰 기자재 등의 공동구입 등을 실시하고, 재해 시에는 초기소화, 주민 등의 피난 유도, 부상자 등의 구출·구호, 정보의 수집·전달, 급식·급수, 재해 위험 개소 등의 순찰 활동 등을 실시한다.

(3) 자주방재조직의 내실화 및 강화

자주방재 활동이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자주방재 조직을 정비하고, 재해 시 정보 수집 전달·경계 피난 체제의 정비, 방재용 기자재의 비축, 대규모 재해를 상정한 방재 훈련의 축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자주방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의 육성, 조직 운영 노하우의 연수 개최나, 조직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진행시켜 교류를 도모하는 장소로서의 자주방재 조직 연락협의회의 설치 등을 검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소방청에서는, i) 텔레비전 등 미디어에 의한 방재활동의 개발, ii) 자주방재활동용 장비의 정비, iii) 자주방재 조직결성을 위한 CD-ROM의 작성, iv) 자주방재 조직

의 활동 거점 만들기를 통한 지역방재역량의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여건 정비

(1) 최근 방재 자원봉사 활동 여건

재해구조, 대피생활 지원, 가옥복구 활동, 재해지역 및 이재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부흥 활동,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 등 방재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 자립적으로, 여러 주체와 협동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예를 들면, 관동 대지진, 1990년 운전 후젠타케 분화 재해나 1993년 훗카이도 남서바다 지진 재해 시에도 볼 수 있었지만,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서는, 130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방재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7월, 방재기본계획안에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환경 정비’ 및 ‘자원봉사의 수용’에 관한 항목이 설치되어 동년 12월, 재해 대책 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자원봉사에 의한 방재 활동의 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의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함(동법 제8조)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었다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법률에 최초로 명기됨). 또, 동년 12월, 국민이, 재해 시에 있어서의 자원봉사 활동 및 자주적인 방재 활동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재해 준비의 충실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방재와 자원봉사의 날」(매년 1월 17일) 및 「방재와 자원봉사주간」(매년 1월 15일 21일)의 창설이 내각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은 전국 각지에서 방재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보급·계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지진 활동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에 있어서의 지진(후쿠오카현 서방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풍수해의 경험이 적은 지역에서의 피해, 시가지의 대부분이 수몰 한 예(2004년 태풍 제 23호 도카게, 토요카시의 피해)나, 산간부에 있어서의 고립 취락의 동시 다발적 발생(2004년 니가타 쥬에츠 지진) 등, 근년에 있어서의 재해의 다양 다채로운 발생 패턴을 보면, 전국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방재자원봉사 활동이, 안전하고 실로 재해지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형태로 행해지도록 활동 환경을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내각부에서는, 2005년 3월부터, 각지의 방재 자원봉사 관계자와 함께 ‘방재 자원봉사 활동 검토회’를 개최하고,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 방재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최근의 방재 자원봉사 활동

방재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근거하는 자주적, 자발적 활동이며, 그 내용이나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방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재해지역에서의 공조(共助)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요구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고, 동시에 재해지역 정서의 안정에도 버팀목이 되는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너무 대규모로, 혹은 무질서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재해지역에 동시에 투입되면, 활동의 효과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재해지역의 수용 부담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해지역의 각종 봉사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재해지역의 부담증가의 문제없이 안전하게 봉사 활동을 지속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원봉사 희망자의 편재나 지원 요구와의 상호 조정, 운영요원의 충분한 확보, 행정기관과의 제휴등도 필요하고, 동시에 방재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의 장소가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자원봉사 희망자의 접수 원활화나 정보 발신, 재해지역의 지원 요구와의 조정 등, 재해지역 자원봉사 활동과 정보 발신의 거점이 되는 재해 자원봉사 센터가 설치되거나 재해지역 외부로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자원봉사 버스 투어가 기획되는 등, 자원봉사 의욕을 존중하면서, 자발성 및 자율성의 확보와 자원봉사 활동의 유효성이나 안전성, 재해지역의 수용 부담경감을 양립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지혜의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잇따른 재해 교훈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관계자와 행정, 사회복지 협의회, 자치회의 대표자 등이 의견을 교환하는 등 평상시에 있어서의 준비에도 구체적이며, 방재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고 있다.

(3) 방재 자원봉사의 활동을 넓히는 장소로서의 「방재와 자원봉사자 모임」 개최

1995년 12월 내각회의에서 '방재와 자원봉사의 날' 및 '방재와 자원봉사주간'이 설치되었고 내각부에서는 1996년 1월부터 매년 1월 '방재와 자원봉사자 모임' 등 방재 자원봉사의 이해 촉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주적 방재활동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도 '방재와 자원봉사의 때마다 있어' 행사는, 2006년 1월 22일 도쿄도 스미다구에서 개최되어 전국 각지의 관계자,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 약 190명이 참가했다. '방재와 자원봉사자 모임'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에히메현 니이하마시, 효고현 토요카시, 야마구치현 미카와쵸, 미야자키현 미야자

키시 등 재해지역 자원봉사 관계자의 재해지역 상황과 활동내용 발표 및 상호 토론

- 2) '재해지역의 방재 자원봉사 활동', '젊은이와 방재 자원봉사 활동', '지역의 도움 사랑과 방재 자원봉사 활동', '지역의 네트워크 만들기와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작업을 진행하고 자원봉사 문제의식이나, 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3) 최종 전체회의에서는 모조지등을 활용해 각 분과회의 성과를 서로 보고한 후, 전체 의견교환 실시
- 4) 회의장 앞에서는 최근 재해지역 상황을 찍은 사진이나 아이들이 작성한 방재지도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보여주는 패널 전시도 동시에 진행되어 일반시민, 자원봉사자, 정부관계자간의 교류의 폭 확대

(4) 방재자원봉사 활동이 깊어지는 장소로서 「방재자원봉사 활동 검토회」 개최

각 지역의 방재 자원봉사 관계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의 과제나 성과를 수렴해, 지식을 공유화하기 위해, 내각부는, 「방재 자원봉사 활동 검토회」를 개최한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i) 재해 자원봉사 센터의 조직, 운영, ii) 자원봉사의 활동 자금의 확보, iii) 자원봉사 업무의 범위·안전 위생 확보 등 방재자원봉사 활동의 지혜나 과제 토론 등이며,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정보·힌트집, 자료집 등을 내각부 홈페이지(<http://www.bousai.go.jp>)에 게재한다.

(5) 재해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2005년 14개 시정(市町)에 재해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설치되었고, 설치 장소를 보면, 대부분 사회 복지 협의회 내이고, 그 밖에도 자원봉사 센터, 복지 센터에 설치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현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 시정도 있다. 설치형태를 보면, 자원봉사 단체와 제휴해 설치한 경우가 8시정(市町), 그 중 1개 시정은, 자원봉사 단체와 행정과 사회 복지 협의회의 3자가 제휴해 설치하였고, 자원봉사 단체와 제휴하지 않고 설치한 곳(점)이 6 시정이다.

센터의 활동 시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자치회나 민생 위원 등의 협력이 중요하고, 자원봉사 희망자와 이재민의 욕구(needs)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단체, 사회 복지 협의회, 행정이 제휴하면서 센터를 설치, 운영 하

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 개시를 위해 평시부터 제휴 장소를 설치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재해발생을 계기로 현지 자원봉사 단체들과 정보교환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센터설치 기간은 평균 약 14일(최단 3일간, 최장 78일간) 이었다. 수해 시 자원봉사 주요 활동으로는, 재해가옥 토사철거, 뒷처리, 청소, 짐 옮기기, 쓰레기 처리 등, 단기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작업으로, 작업특성 및 안전 위생 상 팀 마다 자주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작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

센터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물품 등을 상비해 둘 수 있는 설치 장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센터의 재량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자금확보가 중요하다. 센터를 설치했을 때에, 기존의 매뉴얼을 참고로 하지만, 지역 상황에 맞추어 재해 유형별로, 센터 설치,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시·읍·면에서도 원활히 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방재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거나 자금에 관한 상호결정을 실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센터 운용 개시 후의 여러 가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센터 개설 직후부터, 방재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유효하다.

4) 자주방재 조직 사례

(1) 일본 재해구호 볼런티어(NVNAD: 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1999년 4월 효고현에서 특정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기업의 임원 등으로 구성되고 정회원, 찬조회원, 명예회원 제도를 두고 있다. NVNAD의 목적은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재해구호에 관련된 국내·외 자원봉사단체, 기타 관련 단체들이 서로 협동하는 동시에 행정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재해지역의 부흥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특정비영리 활동 촉진법’에서 제시하는 특정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관 4조에 명시하고, i) 재해구호, ii) 마을 만들기 추진 관련활동, iii) 지역안전 도모 활동, iv) 어린이 건전 육성도모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니시노미야시를 중심으로 34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NVNAD는 순수 민간 기금으로 운영되며 정관 5조에서 명시한 재해발생 시에는 i) 이재민 구호활동, ii) 자원봉사단체와 재해구원조직과 행정기관 간 연락조정, iii) 재해관련 정보의 수·발신, iv) 자금, 물자 조

달 등 후방지원을 하게 되며, 평상시에는 1) 재난지역 시민복구(부흥) 활동의 측면지원, 2) 국내·외 자원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환, 3) 재해전문가 양성 강좌의 개설, 4) 재해관련 조사연구사업 및 방재훈련 등의 기획 검증, 5) 방재사상 계발 및 보급을 위한 강연 등 이벤트 기획, 출판, 6) 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사업 실시 및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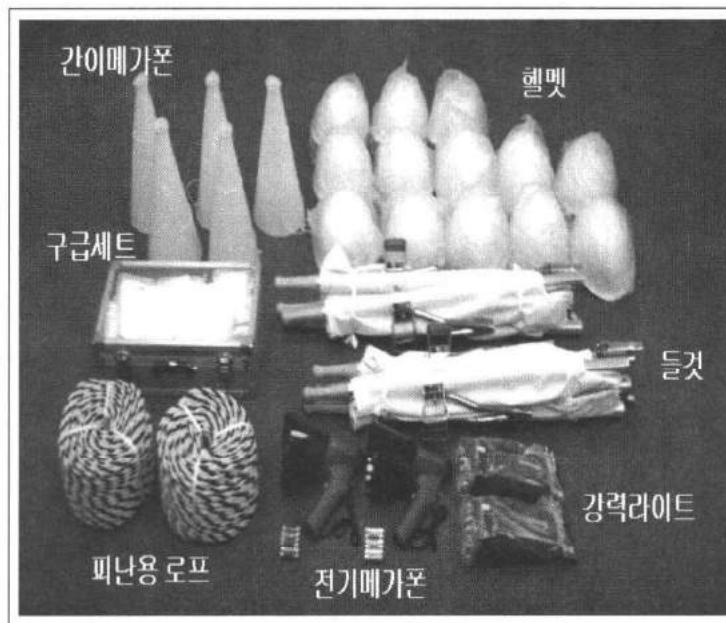
(2) 니시노미야시 자주방재 조직²⁸⁾

1983년 시책사업으로 '자주방재조직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동년 11월1일, 야마구찌쵸 연합방재회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4년경까지 자주방재조직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자주방재 안내서' 등을 활용하여 소방교실 등을 통해 참가하는 각 자치회에 호소함과 동시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37개 방재회를 발족시켰다. 1995년 한신 아와지 지진을 계기로 공공부문 소방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계기로 마을단위 자치회를 모체로 "우리들의 마을은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이념을 기반으로 자주방재조직이 결성되어 2007년 6월1일 현재 173개 방재조직이 결성되었고 결성율은 88.3%에 달한다²⁹⁾. 자주방재조직에 대한 정부지원은 간이메가폰, 들것, 구급세트 등 피난구호용 기자재 및 관련 복구장비 등에 한정되고, 기자재 및 장비의 유지·관리는 방재조직 자체적으로 책임지며, 기타 지원내용으로는, i) 급식훈련에 필요한 알파미 배포, ii) 자주방재 리더에게 텍스트 배포, iii) 방재시설의 견학시 버스 지원, iv) 소방훈련 및 구급강습 실시, v) 자주방재조직이 계획한 이벤트 등에 소방서 참가 지원 및 공동 방재훈련 실시 등이 가능하나, 운영비 지원 등은 하지 않는다.

(그림 3-4) 니시노미야시 자주방재조직의 피난구호용 표준기자재

28) 2007년 7월 5일 니시노미야(西宮)시 소방국 면담자료.

29) 방재전문가인 오사카대학 아츠미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한신 아와지 지진 당시에 볼런티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그 후 봉사활동이 점점 확산되어 1999년경에는 여러 NPO가 조직되고 2000년에는 여러 NPO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2004년에는 정부에서도 민간의 조직적 자주방재활동 확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출처: 니시노미야시 소방국.

(표 3-7) 니시노미야시 자주방재조직의 활동내용 및 가입원수

| 활동 별 | 횟수(회) | 참가인원(명) |
|-------------|-------|---------|
| 소방훈련 | 7 2 | 3,539 |
| 방재지식계발 | 3 1 | 939 |
| 구급강습 | 4 4 | 1,239 |
| 자주방재리더 연수 | 7 | 106 |
| 시 종합방재훈련 참가 | 1 | 136 |
| 시 방재강연회 참가 | 2 | 369 |
| 결성식 · 기탁식 | 1 6 | 150 |
| 방재기자재 점검 | 1 1 1 | 584 |
| 기타 | 2 6 | 7,123 |
| 합계 | 3 1 0 | 14,185 |

출처: 니시노미야시 소방국 자료.

(3) 西宮(니시노미야)시 니시구찌마을 자주방재회(自主防災會)³⁰⁾

한신아와지 지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을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30) 자주방재회 회장 細谷正 2007년 7월 6일 인터뷰.

바탕으로 10명의 반장(한초, 班長)³¹⁾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여 결성되었다. 각 그룹의 리더(leader)인 반장이 조직하는 형태로 하여 여러 반이 연합한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되고 회장은 반장들이 순번제로 맡게 된다. 따라서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 씩은 회장을 하게 된다.

소방국의 명령이나 지침 없이 순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며³²⁾,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장비의 경우 소방국에서 지원 받아 월 1회 점검하며, 월 100 내지 400엔의 회원회비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고, 모임 시 식사비 등은 각자 지불한다. 이 협회와 소방국의 관계는, 초기에는 소방국이 주도 했으나 2년 후부터는 협회의 자율 운영이 정착되었고, 소학교 운동회 시 방재경기(예를 들어 소화, 양동이 릴레이 등)를 실시하여 포상하는 제도나, 현청에서 정기적으로 표창하는 제도가 있다.

니시노미야 시 소방국에서 실시하는 발재형 방재훈련 등에 참가하여 화재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 대피소 대피훈련, 막힌 길 우회도로 찾기, 부상자 응급처치, 응급식 먹어 보기, 양동이 릴레이 등을 교육받는다.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역할(봉사)을 수행하는 조직의 중복은 거의 없으나, 방법분야 등은 가끔 중복되는 데 이 경우 회장이 역할 정리를 해주면 모두 다 수긍하게 되고, 간혹 회원간, 조직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무상의 자원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조정에 큰 문제는 없다.

(4) 西脇(니시와끼)시 高田井町自主防災會 (고우다이마찌 자주방재회)

지역주민의 방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의 자율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소화기 사용훈련, 심폐소생술, 강연·실기, 참가자를 이재민의 입장에서 서서 식음료 등의 배포를 행하는 급식·급수훈련, 자택주변의 소화전이나 저수조의 확인을 행하는 수리확인 훈련 등이다. 특히 심폐소생술 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평상시부터 심폐소생술 기술을 몸에 익힘으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비상사태 발생하면, 주민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훈련한다. 관내 중학교에서도 ‘생명 교육’으로서, 심폐소생술을 훈련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장마나 태풍시기에는 팜플렛을 통한 방재의식 고취 및 보급 활동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방재 기자재의 정비 점검을 함으로써 주민의 의식개발에 힘쓰고 있다.

31) 일본의 반(班)은 대개 15세대 내외로 구성됨.

32) 주민들이 소규모의 자주방재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청의 허가 등은 요구되지 않으며 사전상담 정도를 하게 됨.

(그림 3-5) 효고현 방재훈련 전단지와 응급심폐소생센터



(5) 神戸(고베)시 中央區(주오구) 히가시가와사키 만남의 마을만들기협의회 방재부회

이 지구는 JR 고베역 남측, 대규모 쇼핑몰 등이 위치한 곳으로, 주택가 소규모 공장(마찌코바)이 혼재하는 목재가옥이 밀집되어 있으며, 젊은 층의 참가 저조와 고령화 극복을 위해 지구 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방재주니어 팀’을 결성하였다. 초기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참가가 저조하였으나, 방재훈련이나 시민구명사의 자격을 따기 위한 강습을 받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흥미를 갖고 참여하며, 매월 1회, 학교 또는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방재훈련을 실시한다. 방재 주니어 팀은 월별 활동으로 임명식(6월), 이동식 동력 펌프 취급훈련(7월), 소화기 취급훈련, 로프 취급훈련(8월), 시민구명사 강습회(9월), 클린 작전·방재 패트롤(10월), 특수 재해 강습회(11월), 복지체험(12월), 관제실 견학(1월), 튀김용 기름화재 연소실험(2월), 소방정의 체험 승선, 종료식(3월)을 실시한다.

5) 자주방재 조직의 문제점

자주방재조직의 활동이 잘 정착되지 않거나 정착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 된다. 이는 방재활동이 일상적 활동이 아닌데 일차적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온 기존 조직에 방재역할을 연계하여 맡기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적 방범활동에 방재활동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원이 자주 교체되는 관계로 전문적 방재인력 육성이 어렵다. 예를 들

어 후임자는 전임자로부터 인계를 받았으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서포터(supporter)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청·장년층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고 고령화 등으로 차세대 리더(leader) 육성이 어렵다.

예를 들어 1995년 지진 당시 홀륭한 역할을 수행한 리더들이 75세 이상 고령화되고 있으며,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강습회(30~50세 대상의 시민방재 리더 연수) 등을 개최하지만 젊은층의 참여는 저조하다. 따라서 기존 봉사조직의 리더를 활용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대상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한편, 지역 내의 기업이나 단체와 협력하는 방법을 모른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을 포함한 여러 단체, 조직, 기업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복구의 효율성이 낮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주민-기업-정부-학교 등이 긴밀히 협력하고 재난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면서 역할 분담이 가능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2. 미국의 자주방재

미국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방재 활동은 대체로 전국재난자원봉사협회(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NVOAD), 지역재난대응팀(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적십자사, Citizen Corps 등 다양하며,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전 미국인이 스스로 그들의 인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율적 조직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1) 전국재난자원봉사협회(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NVOAD)

1969년 허리케인 Camile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자원조직의 중복 최소화와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시작된 조직이며, 1970년 최초로 NVOAD가 조직되었고, 현재 48개의 전국차원의 관련 조직과 60개 이상의 주별 VOAD(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로 구성되고 있다 (<http://www.nvoad.org/>).

전국차원 재난자원봉사조직(NVOAD)으로서 상호파트너십(coope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조정(coordination) 및 협동(collaboration)의 네 가지 가치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며, 교육, 외부서비스, 출판 및 연례회의(annual conference)³³⁾, 재난경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state)별 VOAD는 재난전문가와 자발적 참여자로 조직·운영되며, 정부의 대응조직 및 NVOAD와 연계 협력하여 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재난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한다.

2) 지역재난대응팀(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³⁴⁾

지역재난대응팀은 시, 군, 구별 민관합동 조직으로서 지역소방팀, 경찰 및 긴급구조구난팀, 주둔군, 적십자사, 시민단체, 민간봉사단체,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평상시에는 재난대비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재난시에는 평상시 훈련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응급복구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재난봉사 조직이며, 1993년경부터 전국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http://www.citizencorps.gov/cert/>).

33) 제16회 VOAD 연례회의는 “Building a Better Bridge: Creating Effective Partnerships”이라는 주제로 2008년 5월 5-8일 까지 아칸사스주의 Little Rock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4) 종종 Neighborhood Emergency Response Team(NERT) 또는 Neighborhood Emergency Team(NET)으로 불리기도 한다.

CERT의 구성방식을 보면 단일팀으로 조직되거나 팀 리더(team leader)가 여러 명 선출되는 복수의 팀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팀별 3명 이상으로 조직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캘리포니아주 토伦스 시에서는 도시를 6개 zone으로 나누고 zone별 2인의 리더(captain 및 lieutenant)가 라디오비상망(Radio Alert Network: RAN)을 활용하여 연락중심이 되고 있으며, 아래의 9개 모듈(module)로 나누어 자원봉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기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반드시 이 9개 모듈의 훈련을 이수해야 수료증에 주어지며 토伦스 시의 재난 서비스 봉사자(disaster service worker)로 등록된다.

(표 3-8) 캘리포니아주 Torrance시의 CERT 자원봉사자 기본훈련 모듈

| 모듈 | 교육명 | 주요 교육내용 |
|----|-------------|---|
| 1 | 재난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취약지구 및 계층파악 - 준비-대응-복구단계별 봉사자 행동지침 및 요령 |
| 2 | 화재진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공학, 위험물취급, 화재위험, 화재진압요령 - 소화기 안전사용, 상황제압, 시설통재, 소규모화재 진압법 |
| 3 | 재난의료(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분류 및 응급 처치법을 이용한 항공장애, 출혈, 쇼크대처법 |
| 4 | 재난의료(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가(head to toe assessment) 치료가능 장소확보 응급 처치법 - 안전하고 위생적인 치료법 등 |
| 5 | 경미한 수색 및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수색 및 구조계획, 수색기술, 구조기술, 구조자의 안전 |
| 6 | 재난심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자 및 이재민에 가해지는 심리적 충격, 응급심리처치법 (psychological first aid), 준비-대응-복구단계별 심리적 조력법 |
| 7 | 테러리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리스트의 목적, 무기와 유명 테러리스트 - 테러임박 또는 발생 시 징후 인지요령 등 |
| 8 | 봉사팀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시스템의 이해, 봉사자 조직 - CERT 조직원리에 따른 봉사자의 재배치 및 조직관련 문서화 |
| 9 | 재난 시뮬레이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주관의 재난훈련 참여 - 교육받은 내용의 실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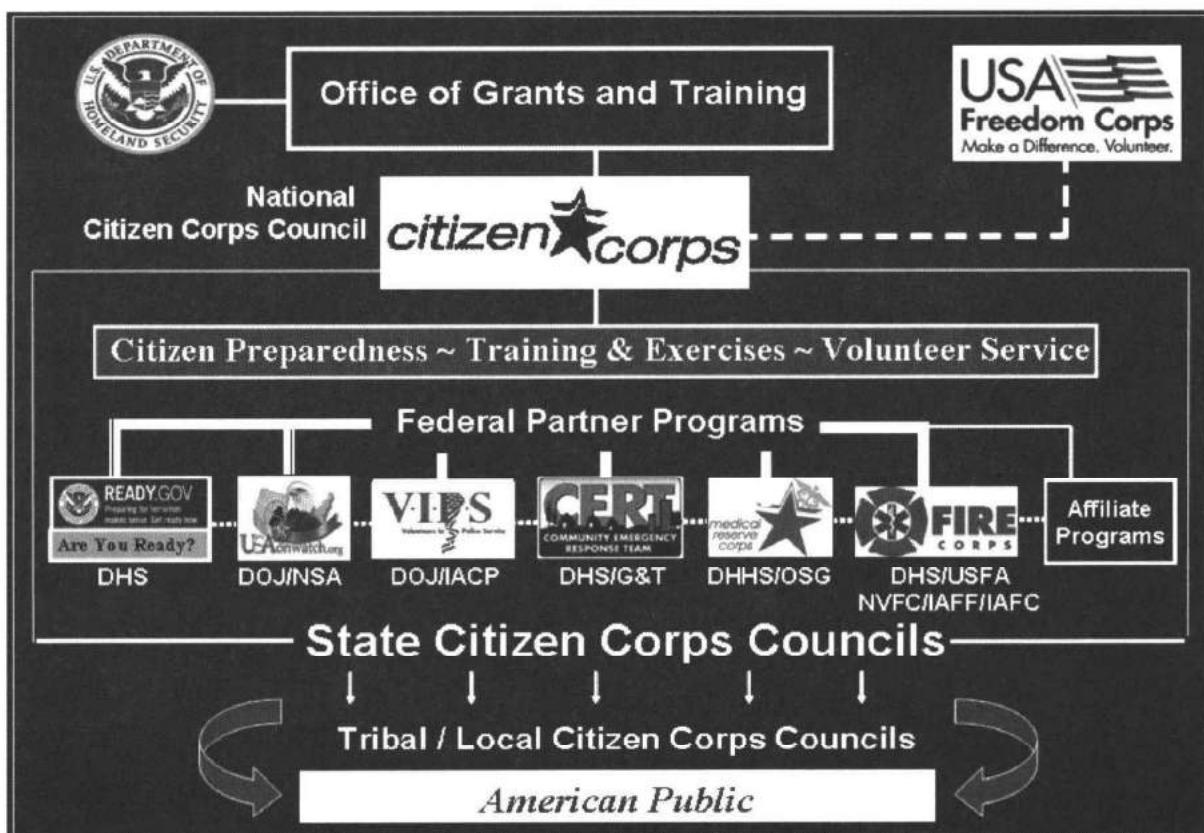
출처: <http://www.ci.torrance.ca.us/TPD/11319.htm>

3) Citizen Corps

교육, 훈련 그리고 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테러 및 범죄를 포함하

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Citizen Corps의 임무이다. 이를 위하여 주-지방-부족지역을 잇는 국가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사회는 Citizen Corps 위원회가 조직되어 여기에서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http://www.citizencorps.gov/>). Citizen Corps는 파트너 프로그램으로서 Volunteers in Police Service(VIPS), Neighborhood Watch/USAOnWatch, Medical Reserve Corps(MRC) Program 그리고 Fire Corps 등 여러 전문조직들과 연계하고 협력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6).

(그림 3-6) Citizen Corps와 협력조직들



출처: <http://www.citizencorps.gov/councils/>

4)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ARC)

1881년 Clara Barton에 의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ARC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상시 대응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ARC의 재난관련 서비스 역할은 훈련된 전문 재해 직원의 배치, 재난운영센터의 운영 그리고 구호활동의 수행 등으로 이루어 진다

(<http://www.redcross.org/>).

ARC는 주택화재, 허리케인, 홍수, 지진, 토네이도, 위험물누출, 교통사고 및 폭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위적, 자연적 재난에 대하여 매년 70,000건 이상 즉각 대응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화재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ARC는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1905년 의회에서 적십자 헌장을 승인한 후 계속적으로 재난구호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ARC의 재난구호는 재난으로 발생되는 이재민들의 즉각적인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대피소(shelter), 식품 및 의료·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복구단계에서는 이재민들이 정상적 일상을 독립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긴급봉사자(emergency worker)를 양성하고, 외부지역에서 쇄도하는 재난관련 문의를 취급하고 있으며, 혈액공급 등도 서비스한다.

제4절 지역자율방재의 지역특성 반영

한 지역의 총체적 방재역량은 그 지역의 인구구조, 환경여건, 경제기반 및 재원, 지역 전통과 문화적 맥락, 재난경험 및 인적 자원 등 수 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구성, 운영 그리고 활동프로그램 등 모두는 전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접근되고 준비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방재 연구는 대부분 도시 그것도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재계획에 관한 여러 주장이나 제안도 도시방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립방재연구소, 2004; 강양석·김현주, 2005; 이창수 외 3인, 2003; 황희연 외 5인, 1999). 이는 농촌지역의 인문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이 반영되는 방재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최적의 접근방식은 해당 지역의 인문·사회 여건 및 자연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자율 방재접근도 이러한 ‘지역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재조직과 운영의 일률적 대안이나 모범답안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봉사가 가능한 조직들도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르다. 도시의 경우 시민사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NGO들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새마을회, 반상회 등 정부주도 조직이나 작목반 등 생업관련 조직이 자율방재를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표 3-9) 도시와 농촌의 재난관리 환경 비교*

| 요인 | 도시 | 농촌 | 비고 |
|-----------|---|--|---|
| 지형적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평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경사지형• 해안 저지대 | |
| 개발패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질서한 개발• 취약지대 밀집주거지 (고밀도)• 불 투수 지표면적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형 주거• 저밀도• 불투수지표면적 | |
| 인구구조 및 분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율 낮음• 인구밀도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율 높음• 인구밀도 낮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중소도시 <농촌, 군지역 |
| 방재활동 전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다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부족 | |
| 복구자원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 유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 불리 | |

* 이 매트릭스는 도시와 농어촌의 방재여건을 개념적 수준에서 이분법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사례연구 등에서 적용 시에는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한다.

제4장 현장중심 활동 사례 및 분석

제1절 활동 사례 예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의 경험을 계기로 효율적 복구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 즉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무조건적 관심과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효율적 복구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재해현장 면담을 통한 1차 자료 및 시군에서 발간한 재해백서 등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중심의 방재활동사례를 설명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시사점 내지 문제점을 분석한다.

1) 심리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필요성 (강릉시)

2006년 초 목원대학교 연구진이 강릉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재난관련 심리치료 연구결과를 발간하였다. 전문가의 조사·분석에 의존하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방재단원들이 같이 심리치료나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것을 배워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제기되었다. 아니면 레크리에이션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진행은 YMCA에 맡기되 같이 가서 어울릴 수 있도록 주민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축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사실 자원봉사자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감을 주면 혼란스럽다. 방재단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재난재해 시 방재시만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작업을 주게 되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역할이 다른데 기능까지 같은 필요는 없지 않은가?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레크리에이션을 직접 배우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단원 중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나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을 확대하여 이벤트로 접근하는 것이 낳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다. 문화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재해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 중 복구하는 사람들의 심리치료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 어쨌든 화합과 정신적 극복 차원에서 심리치료-레크리에이션-문화행사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 마을만들기를 통한 방재신문 만들기 (강릉시)

강릉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시민단체 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마을만들기를 시범 추진하면서 방재신문 만들기를 하고 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꽃나무 심고 정자 만들고 숲 가꾸기로 끝났는데 지금은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를 만들자 그래서 시범 지역으로 몇 개를 정했어요. 윗동네가 청덕동이거든요 제가 직접 사업을 내서 그동네 가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꽃길 가꾸기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사업이 들어왔는데 청덕동 내에 참살기 좋은 마을하고 여성의 전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마을 신문만들기’ 내용이 여성 관련된 교육 리더양성프로그램이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지역 리더양성교육, 센터에서는 주민자치복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마을 신문 만들기 프로그램에 방재부분을 삽입하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

청덕동에서는 8면 짜리 마을신문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이중방재관련 내용을 1면정도로 할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주민대피요령, 옛날에 수해관련 사진, 복구활동, 올해는 이런 것 잘 합시다 등의 내용을 검토한다.

3) 현장 봉사자들의 효율적 배치와 관리 문제 (강릉시 및 단양군)

자원봉사자들은 대체로 개인 대 단체의 비율이 2:8정도로 단체가 압도적이나 외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으로 오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채널의 일원화 내지 조직화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단체가 현장으로 직접 오거나, 관공서를 접촉하는 경우, 교회 조직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관공서나 봉사센터를 경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채널이 다소 무질서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작동되는 데서 오는 비효율과 낭비적 요소가 만성적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봉사인력을 다소 느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지원, 관리 할 수 있는 지휘소 같은 장소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현장 주변지역에서 현장으로 통하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2006년 단양 영춘면 수해 시 도로두절로 봉사자들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한나절 씩 안내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강릉 자원봉사센터의 관계자는 아래와 같은 현장 혼란 최소화의 방법을 제안한다.

“서울에서 온 센터같은 경우에도 과천 안양에서도 직접 전화가 오는 게 그럴 때 봉사자들이 직접 전화가 와요 그럴 때는 과천시 센터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과천센터

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으로 올 경우에는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단체로 올 경우에는 죄송한데 전화하셔야 하고 차량지원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연락을 하세요. 그쪽에서 몇 명이 오고 저희가 보험 가입해 드릴께요. 못해준다고 그러면 도에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된단 말 이예요 이것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또한 봉사자가 현장에 적시에 투입되지 못하여 겪은 어려움에 대하여 단양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그리고 또 그 다른데서 오는 사람들이 단양만 들어서면 다 거긴 것 같아도 단양에서도 영천리에 들어가려면 4~50분 걸리는데 위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단양군 왔을 적에 어디를 갈 적에 안내자를 소개를 받아서 그 차를 거기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동네에 갔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인원이 몇 명이 다하면 그 밭에 빨리 넣어줘서 효율적으로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고 갈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4) 봉사자 간 네트워킹의 중요성 (평창군)

평창군 진부면의 경우 재난재해관련 봉사활동 네트워킹이 되어있지 않았다. 강릉의 봉사자들이 도착 했을 때는 새마을조직, 녹십자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 봉사단체가 수해현장에서는 학생 그리고 직장인까지 동원되어 현장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평소에 예상대비 계획과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군의 자치 행정과 직원들이 센터에서 접수를 센터가 받아도 인력배치는 군청공원들이 하는 게 빠르게 나온다는 인식도 있었고, 문제는 진부면사무소에서의 관리는 하나도 안 되는데면 공무원들은 아무생각도 못하고 청년회가 물자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었다. 이는 민간의 참여와 역량이 공무원보다 효율적이고 즉시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민간의 협력이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매끄럽지 못하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은 현장에 있고, 민간 봉사자들은 면사무소와 연락이 안 되어서 현장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의 실패 상황은 아래의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

“어떤 봉사단체는 텔레비전 녹화를 찍고 먼저 빠졌어요. 어떤 단체는 적십자를 통해

서 들어와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공무원 수가 부족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과 연계가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의 경우 현장을 직접 들어가요. 자기는 지금 자리에서 조직을 관리해야하는데 현장을 직접 들어가게 되면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와달라고 도와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인력은 없고民間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었고...”

5) 농산촌 수해의 협력적 대응복구를 위한 평소훈련의 중요성 (인제군)

2005년 5월부터 생활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실제 민방위 교육을 했다. 2005년 주변 지역에 발생되는 화재를 보면서 수해보다는 화재대비 훈련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아래의 김영선 이장의 설명 중 민방위 용품 준비와 무전기 사용연습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

“시나리오는 간단하게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량전복을 통한 초기 화재가 발생하고, 아파트 어머니들이 완강기를 통해 탈출을 하고, 그 불은 산으로 번지고 부대에서 연락받아 오고 (119 지상 이동으로 40분이 걸려요 초기진압을 못하니까 대형화재가 되었겠죠) 마지막으로 헬기를 통해 물폭탄이 터지고 화재가 진압되는 훈련을 통해 천만 원의 상금을 받고 이를 450만원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마을이 길고 75세대 260명 정도거주 하는데 8곳에 스피커 설치 전기에 의존하다보니까 5분에서 15분내 초토화가 되었는데 울리려고 했을 때 마을회관 문만 열어주고 재난방송 가동하러왔죠. 재난방송시스템은 기계 값만 지원되고 설치는 무허가로 이루어 졌죠. 나머지는 무엇을 했는가 수화기를 실제 사용을 해보고 로프, 들것, 확성기, 무전기, 구호품세트까지를 포함한 민방위용품을 샀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구입한 구명조끼, 로프가 재해 시 가장 많이 쓰였고요 요긴하게 사용된 것이 무전기 생활무전기 사용이 되었죠.”

두 번째 요인은 2005년부터 반상회를 재미있게 하면서 ‘3사람 칭찬하기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고, 칭찬 운동을 꾸준히 하였고, 1년 정도 지나자 칭찬이 정착 되었다. 이러한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마을 구성원간의 신뢰구축으로 연결되고, 이 사회적 자본이 재해발생 시 대응과 복구, 정신적 공황상태의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수해극복 희망나눔 장터 (마산시)

‘수해극복 희망나눔 장터’ 입점상인 꼬마또래(대표 박광기)와 91개 업체는 폐장이 임박한 2003. 9. 30(화) 19:00에 자발적으로 모금한 수해성금 810,000원으로 전기요와 장판 45점을 마산시에 기탁해 수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수재민에게 도움을 주었다.

마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영자)에서는 “수해극복 희망나눔 장터” 개장부터 폐장일까지 장터를 찾는 시민과 상인들 약 5,000여명에게 18리터 105통의 생수를 공급하였다. 시장이하 실국소장 간부공무원 가족이 장터에서 진주 금산농협의 낙과 배 740박스를 전달받아 7,400,000원에 판매하여 태풍 피해를 입은 낙과농가에게 도움을 주었고, 시장은 수시로 장터를 방문하여 수해상인을 위로·격려하였다.

7) 밤낮 잊은 자원봉사 활동 (마산시)

9월 12일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마산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는 침수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을 양수하는 장비라 판단하고, 직원 3명, 양수기 관리자 10명, 운전기사 3명과 차량 4대, 양수기 20대, 생필품(라면, 세제 등) 구호물품 2.5톤을 가지고 9월 14일 저녁에 도착하여 양수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마산에 체류하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도착 당시부터 전기, 전화 두절로 생활불편이 심한 두산 2차 아파트에 긴급 투입되어 자체 보유 양수기를 설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였다.

침수된 지하 물양은 엄청나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양수기의 잣은 고장으로 양수작업에 어려움을 겪자, 9월 15일 양수기 관리인력 8명과 화물차량 1대를 추가로 투입, 기존 인력 14명과 함께 총 24명이 월영동 대동씨코아, 동서동 한백마리나타운, 어시장 침수 지역에 5일동안 밤낮으로 양수작업을 하였다.

한편 성남시에서는 여러 봉사단체 570여명이 구산면, 진동면과 가포동, 월영동, 동서동의 해안가 침수피해지역에서 16일부터 26일까지 침수 가재 정리, 바다쓰레기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물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8) 장애우의 헌신적 복구봉사 (마산시)

한국 농아인협회(회장 조수영)소속 30명의 장애우들은 9월 25일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침수된 산호동의 공구상가 지역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복구작업에 참여했다. 도움을 받아 살아갈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회의 헌신적 봉사활동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9) 종교단체의 복구지원 봉사 (마산시)

마산 중앙감리교회(장로 지기석)의 신도 300여명은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해 지역인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가포동, 월영동, 동서동 등 피해가 비교적 많은 지역의 복구에 참여하여 파손된 상가물품 정리, 쓰레기 청소, 가사정리 등 사랑의 힘을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재기의 꿈을 이루게 하였다.

10) 건설기업의 마을회관 무료보수 봉사 (마산시·창원시)

진동면 고현리 610번지 오○○(52세)세대 및 고현리 666번지 장○○(82세)의 2세대 4명의 주택이 전파되어 복구 기간동안 진동면 고현리 장기마을 회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거주하고 있었다. 창원시 소답동 44-2번지 소재 (주)신우종합토건에서는 고현리의 마을회관도 이번 태풍으로 출입문, 방문, 창틀, 난방시설의 피해로 겨울을 보내기가 어렵다는 2003년 11월 10일 방영된 KBS방송을 청취하고 오랜 기간동안 경기침체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11월 22일 난방보일러, 방 출입문, 장판교체, 벽지 도배, 화장실 정비 등 6,000,000원을 들여 보수하였다. 태풍피해를 입고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운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수범이 되었다.

11) 농축산기업의 비상발전기 양돈농가 지원 (마산시)

진북면 추곡리 408번지 소재 우원농장(대표 오희석) 에서는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지하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근 양돈농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비상 발전

기를 긴급구입, 양돈농가 5호에 지하수를 퍼 올려 줌으로써,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진전면 오서리 1183번지 성전목장(대표 권오은)에서도 젖소를 사육하는 진북면의 황선용 외 4명이 태풍 ‘매미’로 인한 갑작스런 정전으로 축유를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상발전기를 긴급히 지원하여 축유를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12) 군부대·농협·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한 정부양곡 긴급 이송 (마산시)

진전면 시락마을에 있는 새마을창고에 보관된 정부양곡 542가마(40kg/가마)는 해일로 인해 침수되어 폐기처분할 위기에 처했으나, 인근 병원병력과 관련공무원 등 26명(마산 국군병원 병력 10명, 진전농협 임직원 4명, 농산물품질관리원 2명, 농업기술센터 직원 10명)이 합심하여 9월 14일(10:00~21:00) 밤늦게까지 도로가 파손되고 막혀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므로 고성방면으로 우회하여 함안군 대산면 소재 평화 미곡종합처리장에 긴급 이송하여 건조시킴으로써 양곡피해를 전혀 입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13) 자원봉사조직의 교육문화시설 복구봉사 (마산시)

홍익문화운동연합(대표 조희제) 자원봉사자 70명은 9월 18일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교육문화센터 주차장에 떠밀려온 원목 등을 이동처리하여 주었으며, 지상주차장의 침수로 발생한 많은 쓰레기들을 처리하여 환경정비 복구활동에 참여하였다.

한빛 봉사대(대표 박수선)자원봉사자 10명과 합포도서관 자원봉사자 서등회(회장 박예자) 23명은 자원봉사자 회원의 일부도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9월 14일부터 5일 동안 침수피해를 입은 아동 열람실과 유아 독서실의 침수된 물품들을 정비하여 교육문화센터가 조기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침수된 지하보존서고의 침수 자료들을 지상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당시(9월 19일) 자원봉사자 20명을 시에 지원 요청하여 지하보존서고 복구 작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침수로 인해 신문 등의 보존자료 부피와 무게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고, 침수로 인한 퇴적물들로 심한 악취까지 나는 상태여서 침수된 자료들을 옮기는 작업이 예상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복구 작업 중에 마산시립예술단(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자원봉사자 70여명이 함께 악취 속에서 묵묵히 침수 자료들을 옮겼다.

14) 지역축제와 연계한 안전홍보 추진 (인천시)

인천의 노틀담 복지관에서는 지역축제 시 소방에 대한 관심과 홍미를 유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안전 교육·홍보를 통해 가정·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작전동 야외 공연장에서 약 3,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 가정용 분말 소화기 20대 장애인 기증, ii) 아동안전체험차량 배치 및 체험 참여, iii) 유형별 안전사고 교육용 배너 전시탈 인형(화이어스 등 3종)과 기념촬영, iv) 구급차량(구급대원 2명 포함)배치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성과는 1) 사고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체험위주 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2)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소방홍보활동 전개, 3) 계층별 소방안전교육·홍보로 가정·지역안전문화 정착 유도를 들 수 있다.

15) 2006년 집중 호우 시 한강 제방 예찰활동 (김포시)

민·관·군의 사투로 일부 지역이 대형 수해를 모면했다. 서울 강원 등 중부지방에 물 폭탄이 떨어진 7월 16일 한강 하류에 위치한 경기지역에서는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한강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이 시시각각 불어나면서 하류 곳곳의 둑이 위태롭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 한강 하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대교 아래에서는 강변에 있던 음식점들이 순식간에 침수되고 주민 대피 예비령이 내려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밤이면 서해가 만조를 이뤄 마을 일대가 물바다가 될지도 모를 상황. 오후 7시께 긴급 투입된 공무원과 경찰관, 소방관들은 불어난 물로 위험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주변 한강변에 800~1,000kg짜리 대형 모래포대를 쌓기 시작했다.

주민들도 마냥 대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듯 삼삼오오 모여들어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긴급 투입된 백마부대 장병 200여명 역시 모래포대에 흙을 담기 시작했고 드디어 만조시각인 오후 9시께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거대한 둑이 완성됐다. 높이 1~1.5m, 길이 150m의 둑은 밀려들어오는 강물로 마을을 지켜줬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경기 김포시 공무원들은 한강 하류인 하성면 전류리 봉성배수펌프장 앞 둑을 순찰하다 지름 50cm 크기 구멍에서 빗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를 받은 강경구 김포시장은 즉각 토목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달려가 정밀조사 끝에 둑 내

부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자 오후 1시 수해대책반을 소집하고, 지역 해병대 청룡부대와 경찰서, 소방서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다. 곧바로 공무원 100여명과 해병대 장병 120명, 트럭과 굴삭기 등이 동원돼 포대 2,500여개가 자갈과 흙을 담아 함몰부분을 메우는 작업을 계속해 오후 5시 복구 작업을 무사히 완료했다. 자칫 대처가 늦었으면 불어난 강물에 서해 만조까지 겹쳐 둑이 붕괴될 수도 있었지만 공무원들과 꼼꼼한 순찰, 유관기관의 신속한 지원 등으로 대형 재해를 막아낸 것이다. (한국일보 2006. 7. 18)

16) 재해취약지역 Safety Line(안전선)설치 운영 (파주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현장중심의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안전선을 설치하여 “인명피해 ZERO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주요내용은 인명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재해취약지역에 여름철 우기 및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임시 및 상시로 안전선을 설치, 주민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재해확산방지를 위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안전선 설치 대상지는 1) 산간 계곡 및 하천으로 유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급물살로 인한 낚시객 및 야영객이 유실될 위험이 있는 지역, 2) 산지전용허가지의 절토, 성토로 사면붕괴 또는 산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3) 건물 노후로 붕괴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공사장 지하층에 물이 고여 있어 주민 접근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우선하였다. 안전선 설치 대상지를 선별, 15개소를 선정하고 주의보 발효 즉시 현장예찰 확인 및 퇴거조치(이장, 경찰 협조)를 하며, 해제 시까지 주민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관리하며, 관리카드 작성, 경고판 제작 설치 등도 병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호우, 폭우, 태풍주의보시 하천 및 산간계곡에 낚시객과 야영객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붕괴위험도로, 경사면, 축대·옹벽 등 위험 구역이 있을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17) 읍·면 민간단체의 응급복구 봉사 (함평군)

함평의 자율 민간단체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대민봉사활동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별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

는 프로그램으로서, 주요내용은 단체별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단체별 장비·인력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간 89개 단체가 참여하고, 주요 대상 봉사 활동 영역은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과 관광지, 재해 위험(가스시설 등)시설물, 다중이용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고장수리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민간 자생단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생단체별로 희망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며, 유류대, 제설기구, 간식비 등은 군에서 지원하였다. 주요 활동내용은 i) 단체별 담당구역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D/B구축, ii) 크로샵 프로그램에 의한 가상 상황 전파 3회 실시, iii) 재해 시 주민 행동요령 홍보 3회, iv) 겨울철 폭설 대비 월동 전 염화칼슘 및 습염식 제설재 확보와 비탈길과 내리막길, 급커브길 등의 노면에 모래적치, v) 국도 4개 노선 8개 지구 제설 작업 및 지방도 및 군도 4개 노선 9개 지구 제설작업 등이다.

18) 민-관 합동 자체방재시스템 구축 (예천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상정보와 위험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달을 공무원 및 주민과 함께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i) 상황실과 위험지구와의 핫라인(hot line) 구축을 통해 비상시 집중적으로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위험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ii) 단계적 기상특보 통보체계에서 탈피하여 상황실 및 현장에서 바로 주민들에게 기상특보 및 위험상황을 즉시 통보하는 것이다 (대응체제의 간편화). 실행은 전화 및 휴대폰 방송을 30개소의 마을 앰프에 연결하고, 1일 1~9회 반복 방송하며, 상황실에서는 문자 및 음성으로 주민 1,500여명에게 통보하였다.

○ 2006년 활동 예시

- 2월 7일 (07:47): 대설주의보 발표에 따른 내 집 앞 눈치우기 동참과 마을 내 빙판길 주의 및 비닐하우스 및 과실수의 관리 철저 마을 앰프 방송을 30개소 5회에 걸쳐 실시
- 2월 7일 (08:44): 550명을 대상으로 대설주의보 발표에 따른 이장 및 지도자의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외출자제 요청
- 2월 16일 (19:54): 한파주의보 발령에 따라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작목반장에게 한파에 따른 동해방지 철저 및 노약자와 어린이 등 630명에게 외출자제 문자메시지 전송
- 7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개포면 신음리 죽전제 제방 붕괴 일보직전 현장에서 휴대폰을 이용 마을 앰프 방송으로 주민 35명을 대피시킴

19) 시민안전봉사자 협의회 활성화 (서귀포시)

2005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1) 형식적 조직이던 시민안전봉사대를 활성화하여 봉사 및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2)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조의식을 제고하는 데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i) 2005년 5월 일반시민(동) 12개대 161명, 전문기술단체 5개대 128명, 일반단체 3개대 12명 등 총 20개대 301명으로 안전봉사대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그 명칭을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로 하여 회장, 부회장, 간사, 및 동 대표와 기능 대표를 구성하였고, ii) 6월 8일 시민안전봉사자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사업계획 수립하고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iii) 2005년 6월 27일 시민안전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시민안전봉사자의 역할 및 활동요령(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 속의 안전위험 관리 대처요령(산업안전공단), 응급환자 최초 4분 조치요령(서귀포 소방서) 등이다.

2005년 9월 21일~22일(2일간) 90명의 시민안전봉사자를 대상으로 119소방교육 대체 험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실제 대처할 수 있는 긴급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안전 지킴이’ 역할을 강화하였다 (표 4-1). 그리고 2006년 3월에는 모범운전자 회, 적십자봉사회, 수중환경연합회 등 80여명을 추가로 정비하여 23개대 374명으로 조직정비가 마무리되었다.

(표 4-1)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 119소방교육대 체험교육내용

| 시간 | 과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0:00~10:20 | 등록 | 등록부 서명 및 복장착용 | |
| 10:20~10:50 | 체력단련 | 소방체조 및 구보 등 몸 풀기 | |
| 11:00~11:50 | 응급처치교육 | 심폐소생술 등 | |
| 12:00~13:00 | 중식 | | 구내식당 |
| 13:00~13:50 | 농연탈출체험 | 지하실 농연 속 미로탈출체험 | |
| 14:00~14:50 | 고층건물탈출 | 4층 건물 로프하강 | |
| 15:00~15:50 | 화재진압훈련 | 소방차 및 소화기 이용 화재진압 | |
| 16:00~16:20 | 효과측정 · 정리 | 설문조사 및 정리 | |

20) 수해복구 청소 자원봉사 (영등포구)

새생명복지회 회원 50여 명은 2006년 7월 20일 폭우로 인해 불어난 안양천 둑이 터지면서 피해를 입은 양평동을 찾아 자원봉사에 나섰다. 고무장갑, 장화, 세제, 청소도구를 지참한 봉사자들은 오전 10시경부터 임시 재해복구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피해 주택가로 배정되었다. 소방서 및 군 장병들이 신속하게 거리복구 작업을 끝낸 도로는 물이 빠진 상태였으므로 청소봉사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회원들은 조를 편성 도움이 필요한 가옥을 찾아 흙에 묻힌 옷가지, 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을 일일이 씻고 닦았다. 당산초등학교로 대피했다 돌아와 주택이 완전히 침수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던 조경옥씨는 “그나마 자원봉사자들이 와 줘서 위로와 의지가 된다”고 하였고, 변압기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최종운씨는 초토화된 1층의 부품들을 회원들이 일일이 닦아내고 청소하자 “눈물이 날정도로 고맙다. 모두들 천사 같아 보인다”고 감사를 전했으며, 회원들의 봉사활동은 4시경 까지 이어졌다.

21)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제천시)

제천시 청전동 새마을지도자 40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이 극성을 부리는 모기 퇴치를 위한 방역에 나섰다. 지도자들은 지난달 22일 새마을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갖고, 여름철을 맞아 기온상승에 따른 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 방역단은 매주 목요일 일출 전 새벽 5시부터 청전동 관내 주택가 골목골목을 한 곳도 빠짐없이 누비며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청전동 3.51㎢의 넓은 면적을 9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소규모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편성해 책임 있는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방역 소독용 F-킬라를 배부해 취약계층의 방역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에서는 새마을자율방역단에 격려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높여주었다.

22) 지역적인 특성고려 (경상남도)

2002년 루사 및 2003년 매미에 의한 홍수피해는 변화하고 있는 수문기상 특성에 적

응하여 치수정책의 발상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수공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하천 및 도시의 치수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2년 연속된 태풍 루사와 매미에 의한 피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지역과 기상의 특성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의 유형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치수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함양지역의 경우와 같이 극한 강우가 발생되었을 때 기존의 치수체계 안전도를 평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교량이나 보를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하천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마산시 및 거제시와 같이 대규모 수해경험이 거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해를 가상한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해로 인한 단절, 단수, 통신단절의 문제는 보다 향상된 재해예방 및 관리정책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3) 홍수지도의 주민대피 활용화 방안 (경상남도)

홍수지도를 통하여 홍수발생시 강우량별 침수지역을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침수시 어디로 대피하여야 할지를 사전에 알 수 있다. 또 홍수지도에 대피장소, 대피루트, 식수 및 구호물자, 수방자재 비치 등의 수방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는 대피 및 수방활동을 주민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홍수지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제공하고 강우정도에 따른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 수해백서, 2004).

24) 학교 분담제 실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관내에는 많은 하천이 존재해 있으므로 이를 하천에서의 제반 문제점을 관련 공무원들이 현황을 제때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도는 2002년 태풍 “루사”와 “매미”에 대한 교훈을 통해 각 하천을 각급 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등)에 분담시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필요한 수문자료를 관측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작하고 있으며, 하천 환경측면에서의 적용 사례는 인천시의 장수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5) 민·관 협력을 통한 빠른 수해복구 (산청군)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산청군 신등천이 범람하면서 제방인 신안면 외고제와 신등면 사정제가 유실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총 6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지난해 태풍 내습 당시 이 일대에는 하천 물이 범람하면서 제방 500m가 유실되면서 농경지 2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우수기 전 응급복구를 위한 공사가 2007년 6월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었으나 전체 공정률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7년 4월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유실된 제방 구간을 중심으로 기존 제방보다 평균 1.5m이상의 성토작업과 함께 하천 폭을 평균 15~30m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성토작업을 하는 수준에 불과해 자칫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제방이 유실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다. 도관계자는 “지난해 10월25일 설계용역을 의뢰해 올해 3월에 완료될 정도로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빨리 움직였다”면서도 “발주가 늦어진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제방 구간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신등천의 하류 부분인 외고제 수해복구 공사현장은 달랐다. 이 일대는 지난해 외고제가 유실되면서 제방 900m, 농경지 50ha 등의 재산피해를 낸 곳이다. 사정제와 달리 외고제는 하천 폭을 15~30m정도 넓힌 데다 기존의 제방 높이보다 평균 2m정도 올려 75%의 공정률을 보였다. 이처럼 외고제의 수해복구공사가 빠른 것은 산청군과 지역주민의 노력, 즉 민·관 협력이 잘 이뤄져 진행된 것으로 군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외고제의 범람 이전인 지난 2005년, 산청군은 재해우려지역임을 감안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우선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설계용역을 맡겼고, 지난 2006년 7월에 에위니아가 전국을 강타하고 지나간 뒤인 같은 해 11월3일에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또 인근 주민들로부터 토지보상을 사후에 논의키로 하고 공사 사전 승인을 받아 곧바로 수해복구공사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렀다. 외고제 복구공사 군민명예감시관인 허종석(73·외곡마을)씨는 “수해복구공사가 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 자칫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산청군 이창규 하천관리담당도 “외고제의 수해복구공사 진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빨라진 것은 사전에 준비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위험 제방일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설계 용역이라도 맡겨 놓는다면 피해 발생 시 단가 조정만 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차후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 자원봉사협의회 재해예방 간담회 (거제시)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 2007년 7월 3일 회원 및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가졌다.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회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태풍 등 재해예방 활동에 관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운영을 놓고 2시간 동안 토론회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대응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27)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 (남해군)

남해군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태풍 등으로 주택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해군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재해발생 때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풍수해 보험을 가입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남해군은 풍수해보험가입제도가 개선돼 지자체에서의 보험료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해발생에 대비해 풍수해 보험을 단체로 가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내 기초생활수급자 694가구에 대해 계약자 부담보험금 173만을 지원키로 했다. 이들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될 경우 최고 1500만원, 침수 피해 때에도 1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 풍수해를 당해도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연재해를 입어도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풍수해 보험 단체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주택 1435동, 비닐하우스 등 온실 38동에 3만9596㎡, 축사 18동 등 전체 가입 대상의 8.07%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28) 우정119봉사단 (경상남도)

경남도내 1천100여명의 우편집배원들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챙기고 화재, 산사태,

홍수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나선다. 경남도소방본부는 도내 13개 소방서별로 지역 내 30개 우체국의 협조를 받아 집배원들로 ‘우정119봉사단’을 창단.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초기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006년 3월 20일 밝혔다. 우정119봉사단은 집배원들이 매일 지역을 순회하는 업무 특성을 살려 화재를 비롯한 산불, 산사태, 홍수, 물놀이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정후를 살피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독거노인을 수시로 방문, 건강상 문제, 안전사고 등도 챙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우정119봉사단 창단에 앞서 도내 13개 소방서별로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2005년 거창소방서에서 43명의 집배원으로 우정119봉사단을 구성하고 휴대용 소화기를 집배용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순회토록 한 결과, 화재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초기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특히 무의탁 독거노인 안부 확인, 무선체이싱 단말기 점검 및 예비배터리 교환 등 소방안전요원으로써의 임무도 성실히 수행,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에 동마산 소방서가 2005년 11월 의령지역을 포함해 77명의 집배원이 참여해 봉사단을 출범했고, 2006년 3월 15일에는 통영소방서에서 3번째로 봉사단을 발족했다. 나머지 10개 소방서에서도 2006년 상반기 중으로 봉사단 창단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2절 활동사례의 장애요인과 함의

1. 활동사례의 장애요인

현장복구 경험의 사례와 관련 자료들은 지금까지의 재해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적어도 아래의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1) 자원봉사조직-정부조직 간 공조 미비

자원봉사 조·직과 시군 정부 조직의 공조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의 측면에서 정부역할의 정립이 미비하다. 특히 재해지역에 대한 정보가 실시 효율적으로 적시에 소통되지 못할 경우 공조시스템의 작동은 더욱 어렵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관련 단체들, 특히 구호관련 민간단체들 간의 밀접한 협력체계나 연계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효율적 봉사 및 구호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 리더의 부재와 시기적, 여성 편중

지역 전체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자원봉사단체나 리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리더의 즉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고 배치하며 지원하는 일은 힘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기간이 시기적으로 편중되어 복구 전 기간에 걸친 봉사자들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고, 남성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저조하다.

3) 봉사인력의 지역적 편중과 봉사의 전문성과 지속성 미흡

봉사활동이 언론에 집중 보도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자원의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또한 봉사활동이 특정 활동에 집중되거나 전문성이 낮고(대부분 70% 이상이 육체노동 봉사), 지속성이 부족해(70% 정도가 1일 자원봉사자들) 재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기 쉽다 (전문성 및 지속성 부족).

4) 봉사활동 관련 부서들의 난립과 관리체계 미흡

지역마다 자원봉사자를 접수, 배치하는 곳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시·군에 따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농수산과, 민간협력과,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자 담당 부서가 각기 상이하다. 따라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서 단지 행정구조상에서의 일원화가 아니라 재해 시 자원봉사활동 전체를 관장·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체계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5)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재해보상 미흡

재해봉사나 구호활동에 나선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사고, 상해 등을 당할 경우 공적인 보상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재해 자원봉사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과 상해 위험이 타 봉사현장에서 보다 현저히 높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 2006: 54).

2. 활동사례의 함의

4.1에서 설명한 28개의 사례분석이 모든 도시와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1) 평소 교육·훈련의 중요성

평소 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준비가 없는 주민들은 재해 시 심리적 압박으로 당황하게 되고, 따라서 효율적 대응에 실패한다. 그 결과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로 나타나는 것이다. 평소 지진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해온 일본이 한신 아와지 지진 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교육 및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전문성을 가지는 봉사인력을 개발하고 축적하는 것이다. 재해지역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등은 일반 봉사자가 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지역 봉사자들 중 관련 분야 전공자나 의료 인력들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인제군 가리산리의 수해 경험은 심리치료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3)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자율방재의 기본 요건인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없는 반복적 훈련이나 자신의 문제와는 관련 없는 방재교육은 무관심으로 끝나기 쉽다. 학교운동회에서 방재 관련 게임이나 퀴즈대회를 하거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방재신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소방서나 군부대와 협력하여 방재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4) 민·관·군·산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예방 대비 단계에서의 꾸준한 그리고 재미있는 교육과 훈련은 지역의 모든 조직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가능하다. 예컨대 '우리 마을 방재지도' 만들기와 같은 활동프로그램은 소방서나 경찰 지구대 등의 협력이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방재의식 고양을 위해서는 지역 내 초·중등학교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5) 프로그램 개발 시 지역 특성의 고려

활동프로그램들은 철저히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지역의 자연조건 (특히 지형적 여건), 인문·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맥락 등이 반드시 개발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일련의 활동프로그램들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활용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수정의 단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6) 봉사자의 효율적 배치와 지원

인터뷰와 사례조사에서 제기된 공통의 문제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봉사자의 적재적소의 배치 문제와 지원이다. 혼란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효율적 방식은 일종의 ‘느슨한’ 수준의 소통관리 시스템으로서 현장 지위소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지원관리 시스템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지역자율방재 활동프로그램 개발

제1절 활동프로그램의 정의 및 단계

1. 활동프로그램의 정의

국어사전에서는 프로그램을 (일의) 진행 계획이나 순서, 계획, 계획표, 차례(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계획분야에서 의미하는 프로그램은 설정된 목적(goal)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들의 집합으로 이해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의 선정, 조직 및 활동, 지원체계, 시설 및 자원, 기간 등에 관한 총체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프로그램을 “효율적 재난관리의 수단으로서, 자율방재조직에서 활용 가능한 재난(특히 자연재해) 관련 봉사활동들을 유형화하고 이를 계획안(plan)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활동프로그램의 단계

재난관련 봉사활동프로그램은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단계 역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반적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즉 프로그래밍(programming)의 과정은 학자에 따라 단계별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프로그램의 준비-실행-평가라는 일반적 계획과정을 따르고 있다.

김동배(2005)는 (지역사회 등 봉사대상지의)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목표설정, 업무배치, 관리계획(administrative planning) 및 평가의 5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administrative planning’의 의미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7)에서는 목표설정, 진행 및 평가의 3단계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목표설정을 개발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도 하나(이성록, 2005) 개발이라는 용어의 포괄적 특성으로 인한 다의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익균 외(2002)의 경우도 5단계를 제시하나, 교육프로그램을 기초교육, 전문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함이 특징이다. 미국의 전국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인 'Points of Lights'에서 제시하는 개발과정 역시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자원봉사자업무배치(volunteer position development), 모집(recruitment), 감독 및 평가(supervision and

evaluation), 인정(recognition)의 5단계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관리감독 그리고 사후인정 단계가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 된다 (www.PointsofLights.org).

(표 5-1) 프로그래밍(programming)의 단계에 관한 선행연구들

| 단계 | 연구자 | 비고 |
|--|----------------------------|----------------------------------|
| 5단계: i)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ii) 목표설정, iii) 업무(활동)배치, iv) 관리계획(administrative planning), v) 프로그램 평가 | 김동배 (2005) | 'administrative planning'의 의미 모호 |
| 3단계: i) 프로그램 목표설정, ii) 프로그램 진행, iii) 프로그램 평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7) | 지나치게 단순화된 모델 |
| 3단계: i) 프로그램 개발, ii) 프로그램 실행, iii) 프로그램 평가 | 이성록 (2005) | -'개발'의 애매모호성 내지 다의성의 문제 |
| 5단계: i) 요구분석, ii) 목표설정, iii) 프로그램개발, iv) 시행전략 수립, v) 평가 | 김익균 외(2002) | 교육프로그램개발을 기초교육, 전문교육, 재교육으로 분류 |
| 5단계: i) 욕구사정, ii) 자원봉사자업무배치, iii) 자원봉사자모집, iv) 감독 및 평가, v) 인정(recognition) | Points of Lights (2007) | 인정단계를 두어 심리적 지원을 강조 |
| 5단계: i) 욕구사정, ii) 업무(일감)기술, iii) 모집, iv) 적용 및 면접, v) 훈련 및 평가 | Sikorski 외(1999) | 학교자원봉사자 프로그램 |
| 6단계: i) 지역사회 재난여건의 이해, ii) 재난관련 자원 찾기, iii) 프로그램 준비, iv) 프로그램 실행, v) 파급효과평가, vi) 교훈 배우기 | Shaw & Okazaki (2004) | 순환적 특성의 강조 |
| NOIM model: i) 프로그램 명칭 (Name: N) ii) 프로그램 목표설정 (Objective: O) iii) 프로그램 실행 (Implementation: I) iv) 프로그램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Monitoring and Feedback: M) | 본 연구 | 욕구사정의 생략 |

한편, Shaw와 Okazaki(2004: 78-81)는 자연재난의 반복적 발생에 주목하면서 프로그램의 순환적 특성에 맞추어 6단계의 과정을 제시하는 데 다른 모델의 욕구사정 단계가

이 모델에서는 ‘지역사회 재난여건의 이해’로 정리되며 과급효과 평가 후 교훈을 배우는 환류(feedback) 단계가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표 5-1).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프로그램 간결성, 소통과 이해의 용이성 그리고 내용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활동 프로그래밍을 i) 프로그램 명칭 (Name: N), ii) 프로그램 목표설정 (Objective: O), iii) 프로그램 실행 (Implementation: I) 및 iv) 프로그램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Monitoring and Feedback: M)의 4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NOIM 모델로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재해경험 지역관계자 현지 인터뷰와 기존 활동 사례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활동프로그램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단계로 취급하는 욕구사정³⁵⁾ 단계는 생략한다. 하지만 향후 시군별로 지역자율방재단 등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활동프로그램들을 원용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에는 반드시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한 사정(assessment)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2절 단계별 활동프로그램(Activity Program)의 개발

1. 개발의 원칙

앞의 4장에서 분석된 기존 사례에서 분석된 장애요인과 합의(해결방향)를 반영하면서 관련 문헌고찰(오금호, 200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7;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 2003 and 2005; 김길수, 2002; 이창호, 2002; 볼런티어21, 1999)을 통하여 도출된 활동프로그램 개발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i) 주민의 참여 및 동기부여의 원칙, ii) 상호학습의 용이성, iii) 호기심과 학습의욕(자극)의 고취성, iv) 실행의 용이성 및 경제성, 및 v) 프로그램간의 상호연관성 및 시너지(synergy) 효과

2. 활동프로그램 분류 기준

활동프로그램 분류는 재난관련 봉사분야, 진행주체그룹, 대상지역, 대상집단, 재난유형 및 단계를 기준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프로그램별로 코딩(coding)한다. 이러한 분류작업 들은 각 지역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활용 시 편의성과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35) 욕구사정의 기법으로는 인터뷰, 설문조사, 테스트도구, 테스크포스(task force),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등이 있다 (김동배, 2005: 224).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활동프로그램은 목표, 실행,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의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하고 설명하되 아래의 포맷(format)을 적용한다.

(그림 5-1) 활동프로그램 카드 양식(NOIM 모델)

[프로그램 번호 : 000-00-00]

| | | |
|--------------------|---------------|--|
| 프로그램명(N) | | |
| I. 목표 (O) | | |
| II. 실행 (I) | 누가 | |
| | 언제 | |
| | 어디서 | |
| | 무엇을 | |
| | 어떻게 (실행순서) |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 |

(표 5-2) 활동프로그램 분류 기준 메트릭스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 · 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 · 예찰, (10) 협력 · 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 · 산촌, (4) 어촌 (9) 기타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 · 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 | 단계(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 · 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 봉사주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봉사자 그룹을 지칭함.

** 도농통합시의 읍면지역은 농 · 산촌 또는 어촌에 포함됨.

*** 재난관련 자원봉사가 거의 자연재해에 집중됨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자연재해의 유형만 포함시킴.

3. 단계별 활동프로그램

1) 예방/대비단계 활동프로그램: 23개

| 번호 | 활동단계 | 활동분야 | 프로그램 명 | 개요 |
|----|-------|------|---------------------|--|
| 1 | 예방/대비 | 교육 | 이재민 체험 | 이재민과 동일한 생활을 경험함으로서 보다 실질적 재난현장을 이해 |
| 2 | 예방/대비 | 교육 | 재해지역 탐방 | 재해지역을 탐방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쌓음 |
| 3 | 예방/대비 | 교육 | 재해대비 모의 훈련 | 일반/전문 봉사자별 임무부여-연락-역할-실행 순서 등 도상교육 |
| 4 | 예방/대비 | 교육 | 마을별 방재카드 만들기 | 성명, 연령, 혈액형, 주소, 비상연락처(전화), 사진 |
| 5 | 예방/대비 | 교육 | 지역방재 주민 워크샵 | 주기적으로 지역의 안전관련 이슈에 대한 지도급인사의 발표 및 토론회 운영/ 반상회조직 활용 |
| 6 | 예방/대비 | 구호 | 구호물자 비축관리 업무지원 | 구호물자 비축관리를 위한 업무의 담당공무원 보조 |
| 7 | 예방/대비 | 시설점검 | 제방 안전점검 | 폭우, 태풍대비 제방의 위험요소 점검 및 지차체 통보 |
| 8 | 예방/대비 | 시설점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놀이터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주기적 안전점검 봉사 |
| 9 | 예방/대비 | 시설점검 | 풍수해 감시인 | 우기 이전 제방 등 위험지구의 예찰 (시군에 관련자료 있음) |
| 10 | 예방/대비 | 시설점검 | 안전점검 결과의 지역담당통보 | 지역에 위험한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및 정부에 통보 일정기간 주기로 제방의 파손지역 감시 |
| 11 | 예방/대비 | 심리치료 | 심리적 조력자 교육 | 봉사자 중 심리학 전공자, 상담경력자 대상, 심리치료기본 교육 |
| 12 | 예방/대비 | 심리치료 |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준비 | 재난피해자 지역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극복하도록 심리 치료 교육 |
| 13 | 예방/대비 | 재난정보 | 의정감시 | 자치단체장 안전관련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을 감시함 |
| 14 | 예방/대비 | 재난정보 | 지역 위험지도 만들기 | 동네별 지형도 위에 위험장소, 요소 조사 하여 표시 & 정보공유 |
| 15 | 예방/대비 | 재난정보 | 지역신문 방재란 만들기 | 일상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련 소식을 전파(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물 발간 등) |
| 16 | 예방/대비 | 치안예찰 | 위험장소 조사 및 표지판 설치 | 물놀이, 교통, 등 위험표지판의 설치를 위한 조사 및 실시 |
| 17 | 예방/대비 | 협력행사 | 관련기관의 네트워킹 및 협약체결 | 주민- 방재조직-군부대-학교-종교기관-시군정부 등 연계, 통신 네트워크, 역할 분담, 비상 시 행동계획 등 마련 |
| 18 | 예방/대비 | 협력행사 | 재난극복 게임 | 지역문화축제나 학교 운동회 행사 등에서 활용 (양동이릴레이, 소화기사용 등) |
| 19 | 예방/대비 | 행정지원 | 재난관리 행정보조 (준비) |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지역방재대책 추진을 경험함 |
| 20 | 예방/대비 | 행정지원 | 피해신고 자문요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재난으로 피해발생시 관련 행정절차등 법적자문 |
| 21 | 예방/대비 | 조직운영 | 방재수첩 만들기 | 봉사센터 봉사자 수첩에 삽입하는 방법기능 |
| 22 | 예방/대비 | 조직운영 | 봉사조직 관리 및 운영 | 봉사조직원과의 전화통화 및 업무통보, 비상시 통보등 |
| 23 | 예방/대비 | 조직운영 | 봉사 후 평가 모니터링 | 봉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행 (Post Volunteering Evaluation: PVE) |

[프로그램 번호 : 011-00-01]

| 프로그램명(N) | 이재민 체험 | |
|--------------------|--|---|
| I. 목표 (O) | 1) 이재민과 동일 환경 체험을 통하여 방재의식을 강화하고, 2) 재난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적응력을 사전에 제고함 | |
| II. 실행 (I)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실행순서) | 가족단위로 실시 여름방학 중 1박2일 인근 초등학교 강당이나 교실활용 1) 급식, 급수 및 이재민 생활 실습 2) 구급운반, 심폐소생술 실습 3) 방재퀴즈, 재해지도만들기, 방재관련 영화상영 등 선택적 운영 1) 자율방재단에서 운영팀을 구성 2) 여름방학 중 활용가능 초등학교를 선정 3) 시군구청 홈페이지, 홍보 통해 적정규모 지원가족 모집 (가족캠프 행사의 일부분으로 실행 가능) 4) 각종 체험프로그램 실시 5) 마지막 한 시간 동안 활동내용 토론하고 자료정리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1) 최종 토론시간에 잘된 점, 부족한 점, 개선점 등 정리 2) 차기 체험에서 반영 3) 방재퀴즈 및 지도만들기 우수자 표창 | |
| IV. 사례 | 참고: 방재OX퀴즈: - 소화기의 사용 시 래버만 잡아도 된다 - 정전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구조요청 벨을 누른 후 침착하게 기다린다. - 튀김기름은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히 발화한다. - 콘센트의 플러그는 먼지가 쌓여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 계곡에서 야영 중 폭우로 고립되면 고지대로 대피한다. - 태풍은 진행방향의 오른쪽 아래쪽이 비가 많다. | |
| V. 관련프로그램 | [101-03-01] 재난극복 게임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1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18-03-11]

| 프로그램명(N) | 재해지역 탐방 | |
|--------------------|--|---|
| I. 목표 (O) | 1)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재해위험성과 재난관리의 중요성 인식고취 2) 재해와 친근해지기 3) 재해극복사례의 교훈 학습 | |
| 누가 | 어린이 및 청소년 (최소인원 규모: 15명 내외) | |
| 언제 | 당일 또는 1박 2일 | |
| 어디서 | 주변 재해지역 | |
| 무엇을 | 현장 돌아보면서 설명듣기/체험이야기듣기/방문메시지남기기 기타 가능한 봉사활동 | |
| II. 실행 (I) | 어떻게 (실행순서) | 1) 교육대상 집단 및 인원 확정 2) 방재단 코디네이터(해설사) 연락 3) 탐방지역 선정 및 현지(안내자) 협의 4) 탐방 일정 및 상세계획 확정 5) 집결지 출발 및 도착(버스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 6) 탐방 프로그램 진행 7) 돌아오는 버스에서 평가 및 모니터링(설문지)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들이 경험한 내용이 어느 정도 주변에 전파되는가? - 향후 재난발생 시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대응·복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는가? - 스스로 재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화되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10-00-03] 재난지역 해설자 교육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8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3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1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10-05-01]

| 프로그램명(N) | 재해대비 모의 훈련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지역 자원봉사 조직의 재해발생시 행동요령의 숙지 및 임무 부여 <input type="radio"/> 지역 재난의 사전 모의시행을 통한 간접적 대응경험 축적 <input type="radio"/> 재해대비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한 대응 시설 및 장비의 보완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조직원 및 지역 자원봉사 조직 |
| | 언제 | 재해대비 훈련실시 (우기 이전) |
| | 어디서 | 도청 회의실 및 초등학교 운동장 |
| | 무엇을 | 지역 봉사단체 대표가 모여 재해발생시 활동역할 조정 및 점검 |
| |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매년 우기 전 훈련 시행계획을 마련 - 자율방재조직의 담당 팀을 구성 - 자율방재조직과 함께 활동할 자원봉사 단체 대표 연락 - 지역 재난관리담당 공무원과 함께 추진 2) 훈련 준비를 위한 워크숍(도상훈련) 개최 - 공식적인 훈련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문가 강의 - 지역 재난관리담당 부서와 협력방안 모색 - 지역 참여 봉사단체의 업무 및 역할 모색 3) 훈련 시행 - 재난발생시 행동하는 다양한 상황별로 봉사단체의 역할 운영 - 필요한(준비할)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 봉사단체의 역할에 대한 검증 실시 4) 훈련에 대한 개선 - 훈련에 대한 개선방안 등 반성 및 개선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훈련계획에 지역 자원봉사단체가 모두 참여하는가? <input type="radio"/> 지역 재난관리 담당부서와 협력하였는가? <input type="radio"/> 봉사단체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100-05-01] 관련 기관의 네트워킹 및 협약체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10-32-11]

| 프로그램명(N) | 마을별 방재카드 만들기 | | |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책 및 주민행동요령 등 안전지식을 전파 ○ 긴급상황시 주민간에 신속한 대응 및 역할을 마련 | | | | |
| | 누가 | 이장 및 마을 리더그룹 (주민대표 자격이 있는 자) | | | |
| | 언제 | 평상시 (민방위훈련 시) | | | |
| | 어디서 | 마을회관 | | | |
| | 무엇을 | 마을의 방재카드 및 개인 임무 카드 작성 | | | |
| II. 실행 (I) | 어떻게 (실행순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시를 대비 마을 이장 및 지도자 모임에 방재카드 작성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카드의 활용도 및 방법을 설명 - 방재카드 작성 T/F 팀 구성 2) 방재카드 작성을 위한 모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지도, 인적자원 현황, 위험시나리오 등 준비 - 공통적으로 지역의 재난 예방대책 및 행동요령 작성 - 개인별 마을에 재난이 발생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시 - 개인이 편리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작성 (카드 형식) 3) 주민개개인에게 카드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카드에 명기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주민에게 배포 (비상연락처, 비상행동요령, 긴급 시 담당업무, 비상시 대피소) - 개인 신상명세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성명, 연령, 혈액형, 주소 등) - 이장 또는 마을회관에 비상활용하기 위한 Backup카드 마련 4)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우기전 재난대비 방재훈련시 내용을 수정 | | |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카드 작성된 사항을 점검 ○ 주민이 방재카드 작성 사실을 인지하는지 확인 ○ 분실시 사용하기 위한 Backup 카드의 유무 확인 ○ 정기적인 수정보완 여부 확인 | | | | |
| IV. 사례 | | | | | |
| V. 관련프로그램 | [120-09-01] 방재수첩 만들기 | | |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3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2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1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11-02-01]

| 프로그램명(N) | 지역방재 주민 워크샵 | | |
|--------------------|---|---|--|
| I. 목표 (O) | 1) 재난관련 지역의 의사소통 통로마련 2) 재난관리 중요성 인식고취 3)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BDM) 필요성에 대한 지역여론 형성 | | |
| | 누가 | 자율봉사단원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 |
| | 언제 | 분기별 실시(년4회 기준) | |
| | 어디서 | 시민 · 구민회관, 마을회관, 평생학습센터, 학교강당, 봉사센터 등 다양한 장소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 | |
| | 무엇을 | 지역 재난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 | |
| II. 실행 (I) | | 1) 자율방재단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 주제선정, 강사선정, 홍보, 행사진행 등 전반을 책임진다. 3) 지역발전 관련 주제 강연과 연계하여 실시가능 4) 강의 위주의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재난관련 영상물, 영화 등을 동시에 보여준다. 5) 준비물: 시군구청 홈페이지게재, 일정표, 점검표, 자료집, 현수막, 사진기, 음료수 등 |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 1) 사회자가 흥미롭게 토론을 진행하는가? 2) 강사는 주제와 정보를 정확히 전달했는가? 3) 주민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질문횟수 등) 4) 토론된 내용이 어느 정도 관련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5) 자료집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과 단체에 배포하는가? 6)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실시 | |
| IV. 사례 | | | |
| V. 관련프로그램 | [088-05-00] 의정감시 |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 · 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 · 예찰, (10) 협력 · 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1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 · 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 · 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2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 · 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34-05-01]

| 프로그램명(N) | 구호물자 비축관리 업무지원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비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물을 확보·비축하는 등 관리 ○ 물자관리시 다량의 물품을 1~2명의 담당공무원으로 비축하는 것이 어려우며, 봉사단의 인력지원이 요구됨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단원 (성인 남성 4~5명 정도) |
| | 언제 | 재난대비 (담당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1~2일 정도) |
| | 어디서 | 구호물자 비축창고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
| | 무엇을 | 구호물자 관리 (확보 및 정리) |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구호물자 비축을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구호물자 비축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파악 2) 지역자율방재단원에서 구호물자 배분업무 담당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034-05-02]의 단원 중 시간활용 가능자 우선 3) 담당공무원과 방재단원의 미팅을 통하여 구호물자 비축방법 및 작업요령, 관련서류작성 요령 등 교육받음 4)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비상연락망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팀의 팀장을 선임하여 평상시 연락관리도록 함 5) 재해대비 기간 구호물품 정비시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 집합 6) 구호물자 비축업무 지원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관리자는 업무가 위험하므로 봉사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7) 프로그램 수행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는 구호물자 비축업무 지원 실적을 확인 ○ 지원단원의 비상연락 가능여부 확인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34-05-02]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지원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3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 프로그램명(N) | 제방 안전점검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input type="radio"/> 폭우, 태풍시 제방의 위험요인 점검 및 지자체 통보 | |
| | 누가 | 지역주민 (많을 수록 좋음) |
| | 언제 | 평상시 |
| | 어디서 | 제방, 수문 등 하천지역 |
| | 무엇을 | 방재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신속한 통보 |
| II. 실행 (I)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풍수해 감시단원을 모집 - 지역 제방등 시설붕괴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 우선 2) 풍수해 감시인 교육실시 - 우기 이전에 시설점검 요령, 피해사례 등을 교육 -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초빙 및 토론회 개최 - 지역의 피해우려지역의 사전 답사 및 감시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경보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함 - Safe Zone 설치장비의 배포 3) 하천지역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 - 개발사업 및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제방의 변화 파악 - 제방주변 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4) 위험요인 발생시 통보 - 조사된 제방, 수문, 교량 등 위험요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풍수해 감시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정기적 시설점검 수행계획을 마련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안전점검 결과를 정리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60-05-01] 안전점검 결과의 지역담당 통보 [060-00-11(2)] 풍수해 감시인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6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1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62-03-91]

| 프로그램명(N)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
|--------------------|------------------------------|--|
| I. 목표 (O)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확보 ○ 놀이터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주기적 안전점검 봉사 |
| | 누가 | 지역주민 지원자 (15명 내외) |
| | 언제 | (기간) 무제한, (봉사시간) 주1회 1시간 봉사 |
| | 어디서 | 지역에 있는 놀이터 |
| | 무엇을 | 놀이터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 |
| II. 실행 (I)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봉사팀원 모집 2) 봉사팀원의 임무 및 놀이터 안전점검 기본지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련 전문가 초빙 워크숍 개최 3) 봉사단원은 2인(또는 3인) 1조로 조편성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또는 역할별(사진촬영, 지도표시, 문서작성 등) 분담 4)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놀이터 현황 및 관리부서 파악 - 놀이터별 시설유형 조사 및 게시물(위험표식 등) 조사 - 시설별 어린이 위해요소 정리 및 보수필요성 제시 - 지역지도에 놀이터별 현황을 분석하고 정리 5) 놀이터 관리 담당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재난안전관리과 등) 6) 장기적으로 2~3개월 이후 놀이터 개선 여부를 체크 7) 놀이터 안전점검을 다시 시작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는 지역지도에 놀이터 현황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놀이터별 위험요인 파악, 분석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 놀이시설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였는지 확인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60-05-01] 안전점검 결과의 지역담당 통보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6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2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3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9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60-00-11(2)]

| | | |
|--------------------|---|--|
| 프로그램명(N) | 풍수해 감시인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우기 이전 제방 등 위험지구의 예찰 <input type="radio"/> 폭우, 태풍시 제방의 위험요인 점검 및 지자체 통보 | |
| | 누가 | 지역주민 (많을 수록 좋음) |
| | 언제 | 재난경보 발생시 |
| | 어디서 | 지역 풍수해 피해발생 가능지역 (제방, 수문 등 하천지역) |
| | 무엇을 | 방재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신속한 통보 |
| II. 실행 (I)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풍수해 감시단원을 모집 - 지역 제방 등 시설붕괴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 우선 2) 풍수해 감시인 교육실시 - 우기 이전에 시설점검 요령, 피해사례 등을 교육 -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초빙 및 토론회 개최 - 지역의 피해우려지역의 사전 답사 및 감시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경보 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함 - Safe Zone 설치장비의 배포 3) 재난경보 시 피해우려지역의 현장 점검 - 재난경보 통보를 받으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소집 - 피해우려지역 감시 (교대근무) 4) 위험요인 발생시 상황파악 및 통보 - 제방, 수문, 교량 등 범람 징후 및 피해초기현상을 파악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여 응급복구 실시토록 요청 5)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현장 감시 및 현장감시 기록 작성 - 현장감시에 대한 기록 작성,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제출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풍수해 감시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input type="radio"/> 피해우려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담당 단원을 배치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80-00-02] 재난피해사진의 보급 [080-09-02] 재난피해 지도 만들기 [094-02-02] 안전선(Safe Line) 설치, 운영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6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1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60-05-01]

| 프로그램명(N) | 안전점검 결과의 지역담당 통보 | | | | | | | |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위험 요인 및 개선사항)을 봉사단원이 직접 실행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 |
| II. 실행 (I)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누가</td> <td>안전점검 프로그램 참여한 봉사원</td> </tr> <tr> <td>언제</td> <td>수시로 (프로그램 결과가 도출된 시점)</td> </tr> <tr> <td>어디서</td> <td>지역 안전담당 부서</td> </tr> <tr> <td>무엇을</td> <td>조사결과를 안전담당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시설관리부서를 조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황 및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데 용이함 2) 시설관리부서에 방문하여,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업무의 어려운 점을 경청 - 담당자가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한 사항을 정리 3) 안전점검 프로그램 계획 수립시 담당공무원 의견 반영 4) 안전점검 프로그램 수행 (프로그램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서리의 위험성, 파손된 부분 표시 - 개똥 등 위해물질의 제거 및 게시여부 확인 5) 지도에 시설현황 및 시설별 위해사항/보강의견을 정리하여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토록 함 6) 담당자를 방문하여 향후계획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경청 7) 2~3개월 후 현장조사하여 개선사항 실행여부 확인 | 누가 | 안전점검 프로그램 참여한 봉사원 | 언제 | 수시로 (프로그램 결과가 도출된 시점) | 어디서 | 지역 안전담당 부서 | 무엇을 | 조사결과를 안전담당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 | |
| 누가 | 안전점검 프로그램 참여한 봉사원 | | | | | | | | | |
| 언제 | 수시로 (프로그램 결과가 도출된 시점) | | | | | | | | | |
| 어디서 | 지역 안전담당 부서 | | | | | | | | | |
| 무엇을 | 조사결과를 안전담당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 | | | | | | | | |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는 담당자를 파악하여 방문하였는지 확인 ○ 프로그램 성과를 담당부서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는지 확인 ○ 담당자가 제시한 개선계획을 파악(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 | | |
| IV. 사례 | | | | | | | | | | |
| V. 관련프로그램 | [062-03-9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060-00-11(1)] 제방 안전점검 | | | | | | | |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6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70-05-01]

| 프로그램명(N) | 심리적 조력자 교육 | |
|--------------------|--|--|
| I. 목표 (O)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재민의 심리적 충격을 상담하기 위한 심리적 조력자에 대한 교육 실시 | |
| | 누가 | 지역자율방재조직원 및 지역 자원봉사 조직 |
| | 언제 | 평상시 (주기적 모임 실시) |
| | 어디서 | 봉사단 회의실 또는 강의실 |
| | 무엇을 | 지역 봉사자 들중 심리상담에 관심있는 자 |
| II. 실행 (I) | 어떻게 (실행순서)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심리상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강사료 등 계획 수립 - 피해지역과 현장답사 협의 2) 교육대상자 모집 - 지역 자율방재 단원중 심리적 상담에 관심이 있는자 모집 - 인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나이가 드신 단원 우선 3) 교육시행 - 심리상담 전문가의 초빙 - 재난상황 시 심리적 충격 경험자 초빙 - 재난상황 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지식 교육 - 피해현장에서의 주의할 점 교육 4) 봉사요원의 현장답사 - 주변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방문하여 대화를 수행 - 이재민의 애로사항 등 정리 제출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리상담 전문가 및 이재민의 경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장답사 이후 이재민의 애로사항 등 상담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31-01-02] 현장재난관리센터(현장 95 캠프 운영) [070-01-03(1)]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활동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7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70-01-01]

| 프로그램명(N) |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준비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하여 이재민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극복 준비 ○ 피해발생시 주민들간의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심리치료의 준비 ○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을 평상시에 준비하는 프로그램 | |
| II. 실행 (I) | 누가 | 방재단원 (타지역 지원) |
| | 언제 | 평상시 (주기적 모임) |
| | 어디서 | 자율방재단 사무실 (또는 활동 공간) |
| | 무엇을 | 이재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습함 |
| | 어떻게 (실행순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레크리에이션에 관심이 있는 단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진행 경험자 우선 2)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시 발생되는 다양한 주민갈등 상황을 이해 - 주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을 마련 - 어색한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협동하는 분위기를 생산하는 시간을 마련 - 지난시간을 반성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마련 3) 정기적 공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 공연실시를 통한 이재민의 성금모금 - 타 지역에서 재난발생시 피해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한 준비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모임을 통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가? ○ 정기적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70-01-03(1)]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활동 [070-01-03(2)] 재난 연극 공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7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88-05-00]

| 프로그램명(N) | 의정감시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자치단체장 재난관리관련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을 감시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위원 |
| | 언제 | 수시 |
| | 어디서 | 거주지역 |
| | 무엇을 | 지역 재난관리 현황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지역 교수 등 전문가조직에서 자치단체장 안전 관련 의정감시를 위한 위원을 위촉 2) 지역 재난관리 현황의 조사 - 지역 재난관리 예산 현황 - 지역 재난경감사업 추진 현황 - 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 관련 정책결정사항 등 3) 지역 재난관리 성과의 확인 - 재난경감사업 추진 현장의 답사 - 지역 재난취약지역의 현황 및 정책지원 미흡부분 파악 - 지역재난관리 인적자원의 한계점 및 개선대책 4) 의정감시 결과의 공개 - 홈페이지, 방재신문에 게재 - 주기적인 감시보고서를 발간 |
| | | <input type="radio"/> 전문가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는가? |
| | | <input type="radio"/> 지역재난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충족되었는가? |
| | | <input type="radio"/> 감시결과가 공개되었는가?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11-02-01] 지역방재 주민 워크샵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8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8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0 |

[프로그램 번호 : 086-00-01]

| 프로그램명(N) | 지역 위험지도 만들기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이해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인지능력을 향상시킴 ○ 지역의 위험지대를 조사하여 지도에 표시함으로서 안전의식 고취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 청소년 (중·고등학생 5명 정도) |
| | 언제 | 기간 : 1개월, 활동시간 : 1주일 1일 정도 |
| | 어디서 | 거주지역 |
| | 무엇을 | 지역에 위험정보를 파악하여 지도에 표시 |
|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 수가 많을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팀편성) 2) 위험지역을 파악하는 방법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필요시 전문가 초빙 3) 활동팀에서는 관심있는 재난을 선정하고 특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한 재난에 대한 특성과 피해유형 등 파악 - 위험시설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파악 4) 지역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도 입수 - 5일 1팀으로 함께 다니면서 지역을 조사하고 위험지역을 선정 - 위험지역의 위치를 명시하고,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를 정리 5) 담당 실무자와의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와 면담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지구의 이유를 경청 6) 지역지도에 조사결과를 표시하여 게시함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는 청소년이 위험지역 선정을 위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 지역위험지도 게시 되었는지 확인 ○ 담당실무자와 면담을 하였는지 확인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60-05-01] 안전점검 결과의 지역담당통보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8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6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80-00-01]

| 프로그램명(N) | 지역신문 방재란 만들기 | |
|--------------------|--|--|
| I. 목표 (O) | 1) 지역민 방재정보 공유 및 방재의식고취 2) 우리지역 재해 취약지구 알기 3) 자율방재조직 활동 전파 및 홍보 | |
| II. 실행 (I) | 누가 | 방재단원 중 미디어기관 관련자 또는 전공자 (팀규모 5명 내외) |
| | 언제 | 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발행주기 결정 |
| | 어디서 | 시보, 구보, 군보 등에 1면 기준으로 삽입 |
| | 무엇을 | 자율방재조직 활동소식/ 우리지역 재난소식/ 우리지역 방재자원봉사자 인터뷰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꾸미기 |
| | 어떻게 (실행순서) | 1) 지역신문현황 파악 및 협조요청, 발행 확정 2) 회의 및 편집 공간 마련 (컴퓨터 · 프린트, 디카 등 기본장비) 3) 기획-취재-원고, 기사 작성 4) 편집회의 및 기사 확정 5) 시보/구보/군보 등에 송고 및 발행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1) 팀에서 분기별로 내용 및 편집에 대해 평가 (기사의 시의적절성, 간결성 및 명확성, 교육성, 파급성 등) 2) 년1회 독자의견 설문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 3) 방재란에대한 옴부즈맨 제도 실시를 검토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11-02-01] 지역방재 주민 워크샵 [088-05-00] 의정감시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 · 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 · 예찰, (10) 협력 · 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8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 · 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 · 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살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 · 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094-02-01]

| | | |
|--------------------|--|---|
| 프로그램명(N) | 위험장소 조사 및 표지판 설치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을 예찰하고 안전표지판 설치 <input type="radio"/> 피해시설에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선 설치 및 현장 통제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주민 (성인남성) |
| | 언제 | 평상시 주기적 조사 |
| | 어디서 | 지역 재난위험지역 |
| | 무엇을 | 안전선을 설치하여 현장 통제관리 (재난안전부서와 협력) |
| 어떻게 | 1) |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전선 설치 가능 봉사단원을 선정 - 지역 청년회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통제가능한 자 우선 |
| | 2) | 안전선 설치 교육실시 - 안전선 설치 및 장비, 현장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 -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초빙 및 토론회 개최 - 지역의 재난위험지역의 사전 답사 및 통제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경보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선 설치장비 및 현장통제 장비의 배포 |
| | 3) | 재난우려지역의 현장 점검 - 주기적 위험지역 점검을 시행 |
| | 4) | 위험요인 발생시 상황파악 및 통보 -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안전선 우선 설치 - 피해발생지역 및 위험지역을 지도에 명시, 공개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표지판 설치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표지판 설치장비 및 현장통제 장비가 마련되었는가? <input type="radio"/> 표지판 설치된 지역이 지도에 표시되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60-00-11(2)] 풍수해 감시인 [080-09-02] 재난피해 지도만들기 [094-01-02(2)] 피해지역 치안 [094-02-02] 안전선(Safe line) 설치, 운영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9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2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 프로그램명(N) | 관련 기관의 네트워킹 및 협약체결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지역 자원봉사조직의 네트워킹 <input type="radio"/> 지역 자원봉사 조직 간의 역할에 대한 협약체결 <input type="radio"/> 봉사단체의 지역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 | |
| II. 실행 (I)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 지역자율방재조직 단장 및 지역 자원봉사기관의 장 평상시 사무실 지역자율방재조직 단장과 자원봉사단체장과의 협약 |
| | 어떻게 (실행순서)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지역자율방재 활동을 위하여 참여해야 할 지역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을 마련 -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담당자 연락 - 재난대응을 위한 활동협약 체결 타진 - 봉사단체의 임무 및 역할을 조정 2) 협약의 체결 - 지역자율방재를 위한 봉사조직의 역할 및 임무 명시 - 비상시 역할 시행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마련 - 지역 재난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재난대응계획에 포함시킴 3)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재난대응 관련 봉사기관이 함께 하는 만남의 장 마련 - 임무 협약체결 기관의 참석과 역할을 발표함 - 지역 재난관리 전체 현황 및 체계에 대한 교육 실시 4) 실행 및 개선 - 재난이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개선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M) | <input type="radio"/> 협약을 체결하였는가? <input type="radio"/>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을 수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지역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가? | |
| IV. 사례 | | |
| V.관련프로그램 | [010-05-01] 재해대비 시뮬레이션 훈련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0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101-03-01]

| 프로그램명(N) | 재난극복 게임 | | |
|--------------------|---|--|--|
| I. 목표 (O) | 1) 학교운동회나 마을축제 시 방재경기를 삽입하여 재난에 대한 관심 고취 2) 재난과 친해지기를 통한 재난관리의 생활화 3) 재난 시 주민의 자주적 대응·복구 능력 향상 | | |
| II. 실행 (I) | 누가 | 초등학생 및 학부모(운동회), 지역주민(지역축제) | |
| | 언제 | 초등학교 운동회, 지역(마을)축제 시 실시 | |
| | 어디서 | 초등학교 운동장 또는 축제현장 | |
| | 무엇을 | 방재퀴즈, 양동이릴레이, 훈령용소화기 릴레이, 들것운반(4인1조)경기 등 | |
| | 어떻게 (실행순서) | 1) 운영팀 구성 2) 학교나 마을행사 주최 측과 합의 3) 운영 게임선정 및 행사프로그램에 삽입 4) 방재퀴즈, 양동이릴레이, 훈령용소화기 릴레이, 들것운반(4인1조)경기 등 실행 |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1)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모든 게임이 진행되었는가? 2) 운동회/축제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즐겼는가? 3) 향후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 |
| IV. 사례 | 참고: 양동이 릴레이 방법 ①일렬 릴레이: 약 1.5m의 간격으로 일렬로 서 수원(水源)에서 화염원까지 양동이 릴레이를 한다. 빙 양동이를 운반하는 사람은 반대편(물이 담긴 양동이를 운반하는 팀)의 1/5 정도로 한다. ②지그재그 형 릴레이: 일렬 릴레이 중에서 한사람씩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서로 상대편의 등 쪽의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③이열 형 릴레이: 사람이 많은 경우에, 보내는 쪽, 반대쪽의 2열이 등을 보이고 서서, 각각 안전확인을 하면서 릴레이를 하는 방법이다. 간격은 약 1m이고, 참가인원이 적은 경우, 보내는 쪽을 약 1m 간격으로 배치하고 남은 사람들을 빙 양동이 담당으로 한다. | | |
| V. 관련프로그램 | [011-00-01] 이재민 체험 |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0 |
| | 진행주체 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1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3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111-05-01]

| | | | |
|--------------------|---|---|--|
| 프로그램명(N) | | 재난관리 행정보조 (준비) | |
| I. 목표 (O) | 1) 재난·재해발생시 피해지역의 응급구호 및 복구업무의 급증으로 인하여 정부 기관(시군구 및 읍면동)의 인력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2)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서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함 | | |
| | 누가 | 지역자율방재단 프로그램 관리자 단원 중 전직 공무원 경험자 (또는 타지역 공무원의 자원봉사) | |
| | 언제 | 예방 및 대비단계 | |
| | 어디서 | 재난관리 인력부족 시·군·구청 | |
| | 무엇을 | 대응업무 보조인력 지원준비 | |
| II. 실행 (I) | 어떻게 (실행순서)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지역 재난관리담당자와 재난발생시 업무의 급증으로 인한 인력부족실태 현상에 관하여 논의 - 인력부족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 개최 등 2)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재해발생시 몇 명정도의 인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협의함 - 회의결과를 공문을 통하여 공식화 할 필요성 있음 3) 지역에서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참가자를 모집하며, 전화로 연락하여 봉사자를 모집함 - 활동내용은 아래의 「V. 관련프로그램」을 참조함 4) 봉사자에게 재해발생시 업무내용을 교육함 - 담당공무원과의 미팅을 통하여 집합장소, 지원업무 및 기록지 양식등 교육 5)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비상연락망 유지함 - 활동팀의 팀장을 선임하여 평상시 연락관리토록 함 |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평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의완료되었는지 확인 <input type="radio"/> 평가자는 봉사활동팀의 활동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type="radio"/> 평가자는 비상연락망 가동훈련을 하여 현장지원가능 인력수 파악 | | |
| IV. 사례 | | | |
| V. 관련프로그램 | [034-05-02] 구호물자 배분센터 지원 |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1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110-01-01]

| | | |
|--------------------|--|--|
| 프로그램명(N) | 피해신고 자문요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원인 제공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자문 ○ 자연재해의 경우 정부에 피해신고하는 방법을 자문 | |
| | 누가 | 지역방재단원 (법적 지식이 있는 단원) |
| | 언제 | 평상시 (기간동안 집중적 교육) |
| | 어디서 | 교육기관 |
| | 무엇을 | 이재민들에게 피해신고 하는 방법을 자문하는 요원의 육성 |
| II. 실행 (I)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피해신고 자문요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지식이 있거나 과거 행정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프로그램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부의 피해신고 및 행정절차 담당자와 협의, - 피해신고 자문요원의 필요성 및 교육 필요성 설득 - 지역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강의의뢰 3)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조사방법에 대한 교육 - 재난발생시 국가지원의 개념과 국민의 책임성에 대한 이해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교육 - 담당공무원과 토의 - 비상연락망 구축 - 자문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상담방법, 대화방법 등) 4) 교육이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신고 자문요원 교육이수증 수여 - 재난발생하여 현장 95캠프가 설치되면 자문팀 설치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신고 자문요원의 교육프로그램 기획시 지역정부와 협의되었는가? ○ 교육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p>[031-01-02] 현장재난관리센터 (현장 95 캠프 운영) [110-01-03] 피해신고 자문창구 운영 [111-05-03] 피해조사업무 보조</p>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120-09-01]

| 프로그램명(N) | 방재수첩 만들기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율방재조직원간의 정보교류 및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 ○ 긴급상황시 단원간에 신속한 연락 및 임무 숙지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조직원의 대표 |
| | 언제 | 평상시 (연초 또는 연말) |
| | 어디서 | 지역자율방재조직 사무실 |
| | 무엇을 | 지역방재단원의 방재수첩 작성 및 배포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지역자율방재조직이 구성되면, 조직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방재수첩 작성의 필요성을 대표에게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수첩의 활용도 및 방법을 설명 - 방재수첩 마련을 위한 예산 현황 등 설명 2) 방재수첩 마련을 위한 모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지도, 인적자원 현황, 위험시나리오 등 준비 - 공동적으로 지역의 재난 예방대책 및 행동요령 작성 - 개인개인별 마을에 재난이 발생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시 - 개인이 편리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사자 수첩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참고) 3) 단원에게 수첩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카드에 명기된 내용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연락처, 비상행동요령, 긴급시 담당업무, 비상시 대피소) - 개인 신상명세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연령, 혈액형, 주소 등) 4)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주기적으로 내용을 수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수첩 작성된 사항을 점검 ○ 방재수첩의 활용도 확인 ○ 정기적인 수정보완 여부 확인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10-32-11] 마을별 방재카드 만들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2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9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120-05-01]

| | | |
|-------------------|---|-----------------|
| 프로그램명(N) | 봉사조직 관리 및 운영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지역자율방재조직 단원의 관리 및 연락 <input type="radio"/> 모임 및 업무 통보, 비상시 비상연락망 가동 등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조직 관리자 |
| | 언제 | 평상시 |
| | 어디서 | 사무실 |
| | 무엇을 | 지역자율방재조직 단원의 관리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M)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지역자율방재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단원을 모집 -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담당자 연락 - 조직단원에 대한 연락 및 업무배치 2) 관리카드 작성 - 봉사조직 단원의 관리카드 작성 보관 - 비상시 비상연락체계 마련 3)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지역자율방재조직 단원의 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봉사단원의 예로사항 등 파악, 건의 - 봉사단원의 의복(쪼끼 등) 제작 배포 - 방재수첩의 제작 추진 | |
| | <input type="radio"/> 봉사단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radio"/>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을 수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사기가 높은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10-05-01] 재해대비 시뮬레이션 훈련 [100-05-01] 관련 기관의 네트워킹 및 협약체결 [120-09-01] 방재수첩 만들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2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1 |

[프로그램 번호 : 128-09-00]

| 프로그램명(N) | 봉사 후 평가 모니터링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활동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실시 <input type="radio"/> 봉사자들의 활동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조직 관리자 |
| | 언제 | 활동프로그램 운영 후 |
| | 어디서 | 사무실 |
| | 무엇을 |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 수렴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M)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활동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에 단원 중에 1명을 평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임 -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 2) 활동프로그램 평가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의 작성 - 활동프로그램의 성공적 실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작성 - 모니터링 요원의 수행업무 정리 -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3) 모니터링 수행 - 봉사단원의 예로사항 파악 - 설문조사 실시 4) 결과처리 및 보고 - 설문지의 분석 및 결과 공개 - 활동프로그램의 개선 | |
| | <input type="radio"/> 모니터링 업무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radio"/>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모니터링 결과 프로그램의 개선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2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8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9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0 |

2) 대응단계 활동프로그램: 17개

| 번호 | 활동단계 | 활동분야 | 프로그램 명 | 개요 |
|----|------|------|---------------------------|---|
| 1 | 대응 | 구조 | 사상자 구조·응급처리 | 사상자 구조 및 응급처리 |
| 2 | 대응 | 구조 | 이재민 가족찾기 | 이재민의 가족찾기 창구 운영 |
| 3 | 대응 | 구호 | 현장재난관리센터 (현장'95'캠프) 운영 | 지역여건 부합되게 설치운영 (위치, 구성원, 역할, 시군구 공무원파견)- 느슨한 형태의 유연한 조직운영 |
| 4 | 대응 | 구호 | 재해현장 세탁 | 이재민 세탁봉사 (세탁차량) |
| 5 | 대응 | 구호 | 재해현장 급식 | 재난현장에서 식사제공 |
| 6 | 대응 | 구호 |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운영 | 95캠프와 관련성 있음 (시군구 단위 구호물자 센터) |
| 7 | 대응 | 방역의료 | 마을 방역 | 봉사자 중 관련 전문인력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 |
| 8 | 대응 | 복구 | 물자이송 차량운영 | 군청, 면사무소 등 피해지역 물자조달 차량봉사 |
| 9 | 대응 | 재난정보 | 재난피해 사진 보급 | 피해지역의 재난피해사진을 수집하여 공개 |
| 10 | 대응 | 재난정보 | 재해피해 지도 만들기 | 지역의 피해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 (접근도로 등) |
| 11 | 대응 | 치안예찰 | 안전선(Safe Line) 설치·운영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자발적 safe line 설치 및 현장관리 |
| 12 | 대응 | 치안예찰 | 대규모 행사장 질서유지 |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 개최 시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봉사 |
| 13 | 대응 | 치안예찰 | 재난지역 교통통제·안내 | 피해지역의 교통통제 및 혼잡의 통제 (교통안내판 설치 등) |
| 14 | 대응 | 치안예찰 | 재해지역 치안 | 재난발생지역의 현장보전을 위한 치안봉사(경찰과 협력) |
| 15 | 대응 | 행정지원 | 재난관리 행정보조 (활동) |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서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함 |
| 16 | 대응 | 행정지원 | 재난지역 보육시설 보조 | 피해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활동 |
| 17 | 대응 | 행정지원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행정보조 |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여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함 |

[프로그램 번호 : 024-01-02]

| 프로그램명(N) | 사상자 구조 · 응급처치 | |
|--------------------|--|---|
| I. 목표 (O) | <input checked="" type="radio"/> 피해지역의 고립주민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용 및 응급환자 치료 | |
| | 누가 | 지역단원 (성인남성) |
| | 언제 | 재난발생하여 주민 고립시 |
| | 어디서 | 재난고립지역 |
| | 무엇을 | 고립된 주민의 신속한 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치료 |
| II. 실행 (I)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구조활동 봉사단원을 선정 - 지역 청년회 등 위험지역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산악회 우선 - 군봉사시 수색 및 구조활동 경력이 있는 단원 우선 2) 구조활동 봉사요원 교육실시 - 위험지역 투입시 안전교육 -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실시 (소방학교 등 협의, 교육기회부여) - 지역 위험 및 고립가능지역 정보의 사전파악 및 답사 - 구조 및 응급처치 장비의 사전 준비 - 비상연락망 마련 3) 재난발생시 통신두절 및 고립지역에 신속한 투입 - 119소방대의 상황실과 밀접한 연락, 정보입수 - 가족찾기 수색팀과 연계 신속한 현장 투입 4) 고립자 구조 및 응급처치 -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구조활동 및 구조자 건강 확인 5) 재난상황 종료시 기록 작성 - 구조활동 기록을 작성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구조팀 전문교육 실시 여부 확인 <input type="radio"/>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 확인 <input type="radio"/> 구조 및 응급처치 장비 준비 여부 확인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24-01-02(1)] 이재민 가족찾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 · 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 · 예찰, (10) 협력 · 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2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 · 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 · 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 · 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24-01-02(1)]

| | | |
|--------------------|---|---|
| 프로그램명(N) | 이재민 가족찾기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 <input type="radio"/> 실종가족에 대한 수색작업 결과 통보를 위한 창구 운영 | |
| | 누가 | 누구나 (성인남성) |
| | 언제 | 재난발생시 |
| | 어디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현장 95캠프 상황실 |
| | 무엇을 | 실종가족에 대한 접수 및 수색결과 통보 |
| II. 실행 (I)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지역의 이재민 가족찾기 창구 운영요원 모집 - 누구나 가능하지만, 성인 남성이 바람직 - 창구 개설을 위한 장비의 확보 2) 재난발생시 현장 95캠프에 이재민 가족찾기 창구 개설 - 인터넷 및 전화통화 가능 시설 설치 - 방송 및 게시판을 통해 창구 연락방법을 이재민에게 알림 - 실종가족에 대한 안부를 접수하고 결과를 통보 - 타지역 거주하는 친척 등에게 피해민의 안부를 확인 3) 수색팀 운영 - 실종가족을 찾기 위한 수색팀 현장 파견 - 사체를 찾았을 경우 신속히 상황실에 연락하여 공식절차 마련 - 피해지역 신속 투입하여 이재민의 안부정보를 파악 4) 봉사실적 기록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이재민 가족찾기 창구 장비는 마련되었는가? <input type="radio"/> 이재민 가족찾기 창구를 대국민 홍보되었는가? <input type="radio"/> 수색팀은 신속히 고립지역에 파견되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24-01-02(2)] 사상자 구조 · 응급처치 [031-01-02] 현장재난관리센터 (현장 95 캠프 운영)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 · 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 · 예찰, (10) 협력 · 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 운영 | 02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 · 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 · 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 · 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31-01-02]

| | | |
|--------------------|---|---|
| 프로그램명(N) | 현장재난관리센터 (현장'95'캠프운영) | |
| I. 목표 (O) | 1) 현장 참여그룹간의 협의 · 조정을 통한 소통 및 의사결정의 일관성유지 2) 지역여건에 부합되게 설치 · 운영하되 조정과 통제간의 균형과 조화 유지 3) 봉사자 정보의 공유 및 안내 시스템 구축 | |
| | 누가 | 참여단체: 방재단장(간사), 봉사센터요원, 구호협회, 새마을회, 이장, 관계공무원 등 |
| | 언제 | 재해현장에 가능한 한 즉시 설치하고, 하루 2회(오전9시, 오후 5시→ '95') 회의 간사가 진행 |
| | 어디서 | 현장상황의 효율적 파악 및 정보소통이 유리한 장소에 설치 |
| II. 실행 (I) | 무엇을 | 하는 일: 1) 정부-현장-봉사자-이재민을 연결하는 정보허브(Info-Hub) 2) 봉사단체 간 작업(일감) 분담 및 원활한 조정 3) 일별 봉사 진행의 파악, 기록 및 정리 4) 현장 상황 기록 및 사진 촬영 |
| | 어떻게 (실행순서) | 1) 참여단체 간 캠프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2) 인원확보, 간사확정 등 조직구성 3) 설치지점 선정 및 설치결의 (최소한의 운영 장비 설치) 4) 캠프가 '하는 일'을 선정 (오전9시, 오후 5시 간략한 미팅) 5) 개설통보 및 전파 6) 운영하면서 미비점 보완 계속함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1) 참여단체가 지속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호 협력하는가? 2) 자원봉사자-캠프-시군정부-이재민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정확한가? 3) 재해현장의 상황이 잘 기록되고 정리되는가? 4) 상황변화에 따라 운영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되는가? (느슨한 조직)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 · 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 · 예찰, (10) 협력 · 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3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1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 · 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 · 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 · 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33-01-02(1)]

| 프로그램명(N) | 재난현장 급식 | |
|--------------------|---------|--|
| I. 목표 (O)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에서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들이 재해복구를 하면서 식사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임 |
| | 누가 | 지역자율방재단원 (성인 여성) |
| | 언제 | 재해발생시 |
| | 어디서 | 피해지역 급식봉사 가능한 지역 (수도시설 있는 지역) |
| | 무엇을 |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급식봉사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이전에 모집하여 임무 부여 2) 재해발생하면 피해지역의 지역자율방재단 급식봉사단은 피해지역에 급식소 운영을 위한 장소를 선정하고 도로에 안내판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에서 도착하는 봉사단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 3) 타지역 관리자는 피해지역에 연락하여 봉사날짜(기간) 및 메뉴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에서는 필요한 식자재 및 장비에 대한 지원도 협의 - 장기간 봉사계획시 봉사원의 숙박문제도 협의 4) 급식봉사단원을 모집하고, 관련 식자재 준비 5) 단기적인 봉사일 경우 장기적 봉사를 수행하는 적십자 급식봉사단 등에 연락하여 1~2끼의 식사봉사를 수행하는 것도 장기적 봉사자들의 임무를 교체하기 때문에 필요함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는 구호물자 배분센터 업무 매뉴얼 확인 ○ 지원단원의 비상연락 가동여부 확인 ○ 담당공무원의 비상연락 인지 확인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 <p>[031-01-02] 현장재난관리센터 (현장 '95' 캠프 운영) [033-01-02(2)] 재난현장 세탁 [050-01-03(1)] 응급복구 참여</p>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3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3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 프로그램명(N) | 재난현장 세탁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에서 이재민들은 가재도구 정리 등 응급복구를 수행하면서 의복세탁, 침구류 세탁이 어려움 ○ 따라서 이재민들에게 세탁봉사를 통하여 지원하는 활동임 | |
| | 누가 | 누구나 (성인여성, 타지역 봉사단원) |
| | 언제 | 재난발생시 |
| | 어디서 | 피해지역 세탁 가능한 지역 (수도시설 있는 지역) |
| | 무엇을 | 의복 및 침구류에 대한 세탁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세탁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재해발생이전에 모집하여 임무 부여 2) 재난현장 세탁봉사 요원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차량 소유 기관과 연계 바람직 -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장비 및 소모품을 패키지화 - 이재민의 생활을 알려주고 봉사 시 주의사항 교육 - 대규모 세탁 시 세탁물 관리방법의 마련 3) 재난현장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봉사계획 시 봉사원의 숙박문제도 협의 - 세탁장소의 물색 및 선정 (지역봉사단체의 지원필요) - 세탁봉사 장소의 홍보 및 세탁물 수거 (지도 및 관리방법) - 세탁 및 건조 후 배달 4) 단기적인 봉사일 경우 장기적 봉사를 수행하는 기관과 인적자원 지원 등 세부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5) 이재민의 주거공간에서 직접 세탁봉사할 경우에도 세탁장비(비누 및 세탁용기) 및 건조장비(옷걸이 등)를 준비, 봉사에 투입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봉사 장비를 팩케지화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 지역 봉사단체간의 세탁봉시장소 물색 협의가 되어 있는가? ○ 세탁물 관리방법을 마련하여 숙지하고 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p>[033-01-02(1)] 재난현장 급식 [050-01-03(1)] 응급복구 참여</p>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3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3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34-05-02]

| 프로그램명(N) |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지원 | | |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단계에서 구호물자 배분업무는 많은 인력이 요구됨 ○ 구호담당 공무원의 구호물자 배분업무를 위한 인력지원 | | | | |
| | 누가 | 지역자율방재단원 (성인 남성) | | | |
| | 언제 | 재해발생시 | | | |
| | 어디서 | 구호물자 배분센터 (시군구 및 읍면동) | | | |
| | 무엇을 | 구호물자관리 (접수, 저장 및 배분) | | |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재해발생이전에 구호물자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구호물자 배분센터 소요 인력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시 구호담당 공무원만으로 구호물자 접수 및 배분이 불가능함 2) 지역자율방재단원에서 구호물자 배분업무 담당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시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인력의 2배로 모집 3) 담당공무원과 방재단원의 미팅을 통하여 재해발생 된 상황에서 소집장소, 업무내용, 교대근무 계획, 서류작성 요령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물자 배분센터 업무 매뉴얼 작성 4)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비상연락망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팀의 팀장을 선임하여 평상시 연락관리도록 함 5)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구호물자담당자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단원 비상소집 6) 단원은 구호물자 배분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응급구호세트 배분 7) 장기적 지원을 위하여 단원 간 교대근무 실시 8) 근무완료한 단원은 다음 단원에게 업무내용 및 수행실적을 인수인계함 | | |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는 구호물자 배분센터 업무 매뉴얼 확인 ○ 지원단원의 비상연락 가능여부 확인 ○ 담당공무원의 비상연락 인지 확인 | | | | |
| IV. 사례 | | | | | |
| V. 관련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4-05-01] 구호물자 비축관리 업무지원 [054-05-02] 물자이송 차량운영 [111-05-02(2)]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행정보조 | | |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3 |
| | 진행주체 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48-00-02]

| | | |
|--------------------|--|--|
| 프로그램명(N) | 마을방역 | |
| I. 목표 (O) | <input checked="" type="radio"/>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 | |
| | 누가 | 위생관련 전문가 |
| | 언제 | 주기적 |
| | 어디서 | 지역 불결한 지역 |
| | 무엇을 |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마을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 |
| II. 실행 (I) | 어떻게 (실행순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지역 위생에 관심이 있는 전문자를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약국, 약품 등 관련 업에 종사하는 자 우대 - 해충 등 살충제를 마룰수 있는 자 2) 지역의 불결한 지역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조사 -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시행 - 약품 등에 관한 실비는 정부에서 제공토록 협약 3) 재난대비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시 요구되는 방역 장비 및 약품 등 준비 - 재난발생시 방역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교육 - 재난이후 위생상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 실시 - 피해가 극심할 경우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 실시 4) 지역 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에는 주기적으로 불결한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checked="" type="radio"/> 방역을 위한 전문단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radio"/> 방역 장비 및 약품에 대한 정부지원이 협약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radio"/>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10-05-01] 재해대비 시뮬레이션 훈련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4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8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54-05-02]

| 프로그램명(N) | 물자이송 차량운영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재난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구호물자를 신속히 제공 <input type="radio"/> 재난현장의 다양한 물류이동 수요를 충족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단원 |
| | 언제 | 재난발생시 |
| | 어디서 | 지역전역 |
| | 무엇을 | 구호물자 및 물류 수송 |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물자수송 차량운영 요원을 모집 - 트럭 소유 및 운전 가능 단원으로 모집 2) 물자수송요원의 교육 - 지역의 도로망과 재난 시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 차량 사고 시 대책방안을 마련 - 유류 등 실비용에 대한 정산 방안을 교육 및 공무원 협의 - 물자 인수인계 기록 방법의 교육 - 비상연락망 준비 3) 재난발생시 구호물자 배분센터로 집결 - 배송 지역단위로 구호물자 배송 (센터의 공무원에 확인) - 배송지역 재난상황을 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줌 - 물자 인도서 등에 대한 확인 4) 활동 후 기록 - 물자 수송기록의 제출 5) 실경비의 정산 - 유류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영수증 제출 등 | |
| | <input type="radio"/> 물자수송요원의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사고 시 대책(보험 가입 등)을 마련하였는가? <input type="radio"/> 활동 실경비 정산 대책을 담당공무원과 공식적으로 협의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34-05-02]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운영 [111-05-02(2)]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행정보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5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80-00-02]

| | | |
|--------------------|-----|--|
| 프로그램명(N) | | 재난피해 사진 보급 |
| I. 목표 (O) | | <input type="radio"/> 현장의 재난피해 사진을 촬영하여 주민 및 전국에 배포 <input type="radio"/> 재난피해 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기록 |
| | 누가 | 지역주민 |
| | 언제 | 재난발생시 |
| | 어디서 | 피해지역 |
| | 무엇을 | 피해지역 현황을 사진촬영하여 공개 |
| II. 실행 (I)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진촬영 관심요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진협회자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우선 2) 재난피해 사진촬영요원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도의 배포 및 재난위험지역 정보 제공 - 재난현장에서 안전사고 대비 요령 교육 - 피해지역 사진정보 공개 창구(인터넷 사이트) 개설 3) 재난발생시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피해현장에 도착 현황을 촬영 - 다양한 관점의 사진 촬영/ 촬영지역 상세 표기 4) 사진의 공개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사진을 공개 (공개 시 초상권 침해주의) - 사진과 함께 지역의 상황 및 위치를 명확히 표시 - 지역 재난피해 지도만들기 요원과 연락하여 정보제공 5) 상황 종료 후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된 사진을 모아서 재난사진집 발간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 <input type="radio"/> 재난현장 투입 요원의 안전대비 교육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사진 공개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재난사진집을 발간하였는가?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8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80-09-02]

| | | |
|--------------------|--|---|
| 프로그램명(N) | 재난피해 지도 만들기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지역의 재난피해 발생시 각종 상황자료를 지도로 작성 <input type="radio"/> 주민 및 외지 봉사단원에게 지역 상황정보를 제공 | |
| | 누가 | 주민 (누구나) |
| | 언제 | 재난발생시 |
| | 어디서 | 지도 작성 가능 장소 (재난안전대책본부 1명 파견) |
| | 무엇을 | 지역의 각종 재난상황정보를 지도로 표시 및 배포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지도작성 관심요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지도관련 업종 종사자 우선 2) 재난피해 지도 작성요원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도의 준비 및 작성공간의 마련 - 재난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의 확보 - 피해지도의 종류 (도로현황, 피해현황, 봉사수요 현황 등) - 재난담당 공무원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 입수 협의 3) 재난발생시 지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하면 지도작성 가능지역에 모임 (1명 상황실 파견) - 상황전개 시간별로(4시간 간격) 다양한 지도유형별 작성 - 지도에는 정보제공기관 및 출처를 표시 4) 지도의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지도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우선 통보 - 지도를 다수 작성하여 재난관련 자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에 비치 5) 상황 종료후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지도의 체계적 보관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지역 피해지도 작성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재난정보 입수를 위하여 재난담당 공무원과 협의가 되었는가? <input type="radio"/> 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80-00-02] 재난피해사진의 보급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8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9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94-02-02]

| | | |
|--------------------|--|--|
| 프로그램명(N) | 안전선(Safe Line) 설치 · 운영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을 예찰하고 안전선을 설치 ○ 피해시설에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선 설치 및 현장 통제 | |
| 누가 | 지역주민 (성인남성) | |
| 언제 | 재난발생 상황시 | |
| 어디서 | 지역 재난위험지역 | |
| 무엇을 | 안전선을 설치하여 현장 통제관리 (재난안전부서와 협력) |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전선 설치 가능 봉사단원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회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통제기능한 자 우선 2) 안전선 설치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선 설치 및 장비, 현장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 -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초빙 및 토론회 개최 - 지역의 재난위험지역의 사전 답사 및 통제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경보 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선 설치장비 및 현장통제 장비의 배포 3) 재난경보 시 재난우려지역의 현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경보 통보를 받으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소집 - 재난우려지역 감시 (교대근무) 4) 위험요인 발생시 상황파악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안전선 우선 설치 - 피해발생지역 및 위험지역 현장통제 (교대근무) 5)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현장통제 및 안전선 설치 기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안전선 설치지역 지도화 및 재난위험지역으로 추가편성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선 설치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안전선 설치장비 및 현장통제 장비가 마련되었는가? ○ 안전선 설치된 지역이 지도에 표시되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60-00-11(2)] 풍수해 감시인 [080-00-02] 재난피해 지도만들기 [104-01-02(2)] 피해지역 치안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9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2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94-05-92]

| | | |
|--------------------|---|--|
| 프로그램명(N) | 대규모 행사장 질서유지 | |
| I. 목표 (O)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예술공연 등 대규모 행사시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봉사 | |
| 누가 | 지역 청년회 | |
| 언제 | 대규모 행사시 | |
| 어디서 | 거주지역 | |
| 무엇을 | 행사장 질서유지 활동 |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을청년회 등 지역자율방재조직에 포함된 청년조직을 모집 2) 지역의 대규모 행사 주관기관과 안전질서 관리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주관기관에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성 협의 - 주관기관, 경찰, 재난관리부서 등 관련기관과 역할 분담 - 대규모 인적자원이 요구되는 질서유지 봉사의 임무 조정 -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 3) 대규모 행사시 질서유지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단원의 대표는 행사장소의 답사 - 위험시설 및 갑작스런 통행폭증 대책 마련 - 경찰, 재난관리 부서 공무원의 인적자원 지원방안 마련 - 봉사단원의 배치 및 임무 부여 - 봉사단원의 신분확인을 위한 명찰, 조끼 등 마련 제공계획 4) 질서유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시간에 봉사단원의 배치확인 - 관련부서 직원과 유기적 협조 - 봉사단원의 임무 한계의 주지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관기관과 안전질서 관리 협의가 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질서 관련기관과 공동 역할분담이 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사장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단원 배치도가 마련되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94-01-02(1)]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안내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9 |
| | 진행주체 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종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9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94-01-02(1)]

| | | |
|--------------------|---|---|
| 프로그램명(N) | 재난지역 교통통제 · 안내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시 도로두절 및 봉사차량·복구차량이 모여 교통혼잡 발생 ○ 지역의 교통통제 및 재난복구활동을 위한 안내판 설치 필요 | |
| 누가 | 지역주민 (누구나) | |
| 언제 | 재난발생시 | |
| 어디서 | 피해지역 교통혼잡지역 | |
| 무엇을 |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며 도로안내 실시 |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피해지역 교통통제단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택시기사 등 평상시 지역 교통통제에 관심있는 단체 우선 2) 교통통제 봉사요원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시 발생되는 사회문제 및 법적사항에 대한 교육 -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초빙 및 토론회 개최 - 재난시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유형에 대한 논의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을 구축 (경찰과 협조) 3) 재난발생시 지역교통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 도로피해 정보 입수하면 비상연락망 가동 - 피해현장 안내판 설치 및 도로피해지도 작성 배포 - 피해지역 각종 봉사활동 및 관청의 접근도 작성 배포 - 교통혼잡지역 교통정리 (교대근무) - 피해발생 도로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선 설치 및 관리 - 방송매체와 연계하여 교통정보의 전파 5) 재난상황 종료시까지 현장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피해현황 및 혼잡지역의 상황을 기록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통통제 요원의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교통 통제 안내판 및 관청 접근도를 배포하였는가? ○ 피해발생 도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도를 작성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0-09-02] 재난피해 지도만들기 [094-02-02] 안전선(Safe Line) 설치, 운영 [094-01-02(1)] 피해지역 치안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9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094-01-02(2)]

| 프로그램명(N) | 피해지역 치안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재난발생하여 공적 치안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원함 <input type="radio"/> 지역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심을 도모 | |
| II. 실행 (I) | 누가 | · 지역주민 (성인남성) |
| | 언제 | 재난발생시, 주민 대피발령시 |
| | 어디서 | 재난피해 발생지역, 주민 대피명령 발령 지역 |
| | 무엇을 | 지역의 치안을 담당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피해지역 치안봉사단원을 선정 - 지역 방범대 등 평상시 지역 치안에 관심있는 단체 우선 2) 치안봉사 교육실시 - 재난상황시 발생되는 사회문제 및 법적사항에 대한 교육 -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초빙 및 토론회 개최 - 주민대피 명령시 지역치안 계획의 수립 - 비상연락망을 구축 (경찰과 협조) 3) 주민대피 명령시 주민의 대피지원 - 주민대피 명령을 받으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소집 - 노약자 대피 및 대피거부자 대피설득 - 주민대피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치안 요원 활동 - 지역진입 도로 통제, 안전선 설치 (교대근무) 5) 재난상황 종료시까지 현장통제 - 지역 도난, 사고, 폭행 등 사고발생 현황의 기록 |
| | | <input type="radio"/> 지역 치안봉사대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 <input type="radio"/> 주민대피시 지역치안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 | <input type="radio"/>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94-02-02] 안전선(Safe Line) 설치, 운영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9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4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111-05-02(1)]

| 프로그램명(N) | 재난관리 행정보조 (활동)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재난·재해발생시 피해지역의 응급구호 및 복구업무의 급증으로 인하여 정부 기관(시군구 및 읍면동)의 인력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input type="radio"/>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서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함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단 프로그램 관리자 전직 공무원 경험자 (또는 타지역 공무원의 자원봉사) |
| | 언제 | 재난발생시 |
| | 어디서 | 재난관리 인력부족 시군구청 |
| | 무엇을 | 재난관리 응급대처 업무 |
| | 어떻게 (실행순서) | 1)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관리담당자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재난관리 행정업무를 수행 할 단원에게 비상소집 통보 2) 행정지원 담당자는 재난발생이후 2일이내에 담당부서에 도착하여, 담당업무(응급재난관리 업무)를 실시함 3)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을 지원하며, 장기적 대응을 위하여 단원간 교대근무 실시 - 활동내용은 아래의 「V. 관련프로그램」을 참조함 4) 근무완료한 단원은 다음 단원에게 업무내용 및 수행실적을 인수인계함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평가자는 비상시 행정지원 실시 인원수를 확인함 <input type="radio"/> 평가자는 행정지원 단원으로 업무가 용이해 졌는지 담당공무원 경험 확인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34-05-02] 구호물자 배분센터 지원 [111-05-01] 재난관리 행정보조 (준비)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1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110-01-02]

| 프로그램명(N) | 재난지역 보육시설 보조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에서 이재민들은 가재도구 정리 등 응급복구를 수행하면서 자녀들에 대해 시간할애가 어려워 어린이들이 위험환경에 방치될 수 있음 ○ 선생님도 학교시설 복구에 투입되어 인력 및 시간이 부족 ○ 따라서 이재민 자녀들에 대한 보육시설을 지원 | |
| II. 실행 (I)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 <p>누구나 (타 지역 봉사단원)</p> <p>재난발생시</p> <p>피해지역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p> <p>유아 및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활동 보조</p> <p>1)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린이 보육에 관심 있는 단원을 모집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우선</p> <p>2) 재난현장 봉사요원 교육 및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마련 - 피해지역 교육환경 및 어린이 심리에 대한 토론 - 어린이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준비 (교회, 사찰 등 어린이 학교 프로그램 벤치마킹 필요) - 어린이 식사 및 놀이 장난감 등 준비</p> <p>3) 재난현장 프로그램 운영 - 장기간 봉사계획 시 봉사원의 숙박문제(학교이용)도 협의 - 피해지역 보육시설과 사전 협의 (지역자율단원 협조 필요) - 어린이 대상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의 식사준비 및 위생상태 점검</p> <p>4) 활동완료 후 개선사항 논의 - 활동내용을 기록하여 공개하며, 개선대책을 논의</p>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가? ○ 어린이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 |
| IV. 사례 | | |
| V.관련프로그램 | [070-01-01]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준비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프로그램 번호 : 111-05-02(2)]

| 프로그램명(N) | 시 · 군 ·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행정보조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 재해발생시 피해지역의 응급구호 및 복구업무의 급증으로 인하여 정부 기관(시군구 및 읍면동)의 인력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서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함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단 프로그램 관리자 전직 공무원 경험자 (또는 타지역 공무원의 자원봉사) |
| | 언제 | 재난발생시 |
| | 어디서 | 인력부족한 지방자치단체 |
| | 무엇을 | 재난관리 응급대처 업무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어떻게 (실행순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지역 재난관리담당자와 재난발생시 업무의 급증으로 인한 인력부족실태 현상에 관하여 논의 - 인력부족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 개최 등 2) 지역에서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참가자를 모집하며, 전화로 연락하여 봉사자를 모집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재해발생시 몇 명정도의 인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협의함 - 회의결과를 공문을 통하여 공식화 할 필요성 있음 4) 봉사자에게 재해발생시 업무내용을 교육함 - 담당공무원과의 미팅을 통하여 집합장소, 지원업무 및 기록지 양식등 교육 5)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관리담당자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재난관리 행정업무를 수행 할 단원에게 비상소집 통보 6) 근무완료한 단원은 다음 단원에게 업무내용 및 수행실적을 인수인계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는 비상시 행정지원 실시 인원수를 확인함 ○ 평가자는 행정지원 단원으로 업무가 용이해 졌는지 담당공무원 경험 확인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34-05-02]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운영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 · 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 · 예찰, (10) 협력 · 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1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 · 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 · 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기우,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 · 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2 |

3) 복구단계 활동프로그램: 15개

| 번호 | 활동단계 | 활동분야 | 프로그램 명 | 개요 |
|----|------|------|------------------|---|
| 1 | 복구 | 홍보 | 재난관리 해설자 교육 | 재해 이후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재해 상황 및 복구사업 등 해설 |
| 2 | 복구 | 이재민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 보조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등 설치 (설치장비 정부제공) |
| 3 | 복구 | 복구지원 | 응급복구 참여 | 벼세우기, 낙과수집 등 응급복구 참여 |
| 4 | 복구 | 청소 | 재해지역 청소 | 피해지역 주택 등의 청소 |
| 5 | 복구 | 복구계획 | 재해현장 전문팀 만들기 | 피해지역 복구 시 필요한 전문적 장비 및 인력지원(95캠프에서 운영 가능) |
| 6 | 복구 | 복구계획 | 20년 후 우리마을 만들기 | 복구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
| 7 | 복구 | 정보 | 지역복구계획 주민설문 | 복구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봉사 |
| 8 | 복구 | 심리치료 | 이재민 발맞사지 봉사 및 상담 | 1) 이재민에게 심리적 안정 제공, 2) 재해현장 상황 이해, 3) 이재민의 욕구 파악 (니가타 사례) |
| 9 | 복구 | 심리치료 |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활동 | 재난피해자 지역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극복하도록 심리치료 |
| 10 | 복구 | 심리치료 | 재난연극 공연 | 피해지역 주민들이게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연극을 공연함 |
| 11 | 복구 | 정보 | 실시간 봉사상황도 작성 |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간 봉사상황도 작성(95캠프에서 담당 가능) |
| 12 | 복구 | 지도정보 | 지역 복구지도 작성 | 지역의 복구상황 및 수요를 표시 |
| 13 | 복구 | 복구계획 | 재해극복 회망나눔장터 운영 | 재난지역 경제적 부흥을 위하여 지역상품 등에 대한 홍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난극복 행사) |
| 14 | 복구 | 피해조사 | 피해조사업무 보조 | 면사무소의 피해조사업무 담당공무원업무 보조 |
| 15 | 복구 | 정보 | 피해신고 자문창구 운영 | 재난원인 제공자에 대한 보상방법과 피해신고 방법 등 자문 |

[프로그램 번호 : 010-00-03]

| 프로그램명(N) | 재난지역 해설자 교육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이 재난복구가 완료되면서 타 지역에서 피해현장을 견학하는 수요발생 ○ 피해상황, 문제점 및 극복내용을 일목요원하게 설명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단 |
| | 언제 | 재난복구 이후 |
| | 어디서 | 피해복구지역 |
| | 무엇을 | 지역의 피해상황 및 극복내용을 재난현장 교육생에게 설명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재난관리 해설자 교육요원의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한 선생님 또는 해설 관련하여 관심있는 자 우선 2) 재난관리 해설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지식 습득 - 피해지역의 재난상황 및 복구의 효과 등 정리 - 현장위주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극복 사례의 준비 - 지역에 재난관리 교육장비의 마련 3) 재난관리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장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그룹은 피해지역 방재단에 연락하여, 교육대상자, 시간 및 장소의 협의 - 방재단에서는 해설요원에게 연락하여 준비 - 현장 탐방하면서 교육생에게 설명 4) 교육실적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드백 |
| | | |
| | | |
| |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18-03-11] 재해지역 탐방 [080-00-02] 재난피해사진의 보급 [080-09-02] 재난피해 지도 만들기 [080-09-03] 지역복구지도 만들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31-01-03]

| 프로그램명(N)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 보조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의 관리를 담당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음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의 생활환경, 시설, 설비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 등 다양한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담당공무원과 협의하며, 이재민의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활동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단원 (나이 있는 단원과 젊은 단원의 혼합) |
| | 언제 | 재난발생 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 시 |
| | 어디서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
| | 무엇을 | 임시거주시설 운영, 시설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조치 |
|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운영요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별 2~3명 정도 (노인 1명 + 성인 2명) 2)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운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관련 법적 사항의 교육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담당 공무원과 협의 - 이재민의 심리상태 및 상담방법의 교육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방법 및 계획 수립 3)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 - 임시거주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파악 - 임시거주시설 대상 봉사활동요원의 현황 파악 및 안내 - 이재민의 불평 접수 및 상담, 담당공무원과 통보 - 이재민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자문 시행 4)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운영 실적의 기록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거주시설 설치계획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육받았는가? ○ 이재민의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사항을 습득하고 있는가? ○ 이재민의 상담결과를 통보할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되고 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111-05-02(2)]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행정보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3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1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50-01-03(1)]

| 프로그램명(N) | 응급복구 참여 | |
|--------------------|---|---|
| I. 목표 (O)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난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시 필요한 인력지원 | |
| II. 실행 (I) | 누가 | 누구나 (타 지역 봉사단원) |
| | 언제 | 재해발생이후 복구활동 지역 |
| | 어디서 | 재난피해지역 |
| | 무엇을 | 이재민의 피해복구를 위한 제반 활동 수행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응급복구 참여 단원을 모집 - 타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에 인력지원자 모집 - 프로그램 일자 및 시간을 확정하여 공고 |
| | | 2) 피해지역과 사전 협의 - 봉사를 위한 인력 및 일정을 피해지역 방재단원과 협의 - 이재민에게 필요안 일을 사전에 파악 - 준비물 마련 및 봉사요원의 교육 - 장기간 봉사계획 시 봉사원의 숙박문제도 협의 |
| | | 3) 식사 등의 사전준비 확인 - 봉사활동지역에 재난현장 급식소 유무 확인 - 급식소가 없을 경우, 응급복구 참여자 식사 사전 준비 |
| | | 4) 재난현장 파견 - 봉사단원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표시함 - 피해지역 도착하여 활동에 대하여 이재민(지역 이장)과 면담 - 봉사활동 수행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33-01-02(1)] 재난현장 급식 [033-01-02(2)] 재난현장 세탁 [050-01-03(2)] 재난현장 전문팀 만들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5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50-40-03]

| | | |
|--------------------|---|--|
| 프로그램명(N) | 재난지역 청소 | |
| I. 목표 (O) | <input checked="" type="radio"/> 공공장소 등 재난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 쓰레기 청소하는 활동 | |
| | 누가 | 지역주민 |
| | 언제 | 재난복구시 |
| | 어디서 | 해안가, 하천변 등 공공장소 |
| | 무엇을 | 공공장소 쓰레기를 힘을 합쳐 청소 |
| II. 실행 (I) | 어떻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응급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 해당지역 재난담당공무원과 청소일자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휴일 등 지역주민들이 대규모로 참가할 수 있는 일정 - 쓰레기가 있는 공공장소를 전수 조사 2) 지역방재단에게 재난지역 청소일정을 통보하고, 방재단원은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지역 시민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지역 쓰레기(하천변의 비닐쓰레기, 해안가의 쓰레기 등)의 양은 막대하여 지역사회에서 합력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처치곤란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함 - 담당공무원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 - 쓰레기 처리 이후 재난극복을 위한 주민단합 행사개최 3) 쓰레기 처리의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시와 쓰레기 처리완료하였을 때 전경을 촬영 공개 - 막대한 쓰레기량을 촬영하여 공개함으로서 다함께 힘을 합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느끼도록 함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checked="" type="radio"/>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가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radio"/> 청소되지 않은 공공지역 쓰레기가 남아 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111-05-02(2)]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행정보조 [070-01-03(1)]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활동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5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4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50-01-03(2)]

| | | |
|--------------------|--|--|
| 프로그램명(N) | 재난현장 전문팀 만들기 | |
| I. 목표 (O) | <input checked="" type="radio"/> 재난피해지역의 복구시 필요한 전문적 장비 및 인력지원 | |
| | 누가 | 누구나 (타지역 봉사단원) |
| | 언제 | 재해발생이후 복구활동 지역 |
| | 어디서 | 재난피해지역 |
| | 무엇을 | 이재민의 피해복구를 위한 전문적 장비 및 인력지원 활동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재난현장 복구팀 단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를 위한 전문분야별 인적자원 구성 2) 피해지역과 사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를 위한 인력 및 일정을 피해지역 방재단원과 협의 - 이재민에게 필요안 일을 사전에 파악 - 장기간 봉사계획시 봉사원의 숙박문제도 협의 3) 현장지원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파악 - 관련 분야 및 장비의 지원을 위한 복구팀원의 소집 - 복구지원을 위한 실경비에 대한 비용정산방법 사전협의 4) 재난현장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원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표시함 - 피해지역 도착하여 활동에 대하여 이재민(지역 이장)과 면담 - 봉사활동 수행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checked="" type="radio"/> 봉사활동의 장비 등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radio"/> 봉사활동 수행전에 피해지역과 연락을 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50-01-03(1)] 응급복구 참여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5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50-31-03]

| | | |
|--------------------|---|---|
| 프로그램명(N) | 20년 후 우리 마을 만들기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복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 <input type="radio"/> 재난피해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의 청사진 마련 | |
| | 누가 | 지역주민 (이장 또는 자율방재단장) |
| | 언제 | 재해발생 후 복구계획 시 |
| | 어디서 | 마을회관 등 주민이 모이는 장소 |
| | 무엇을 | 20년후 마을의 청사진 마련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가능자를 모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후 우리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련 자료의 교육 - 복구사업의 행정절차 및 주민이 도와주어야 할 사항을 습득 - 복구 시 주민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교육 2) 재난발생 복구가 시작되면 마을회관에 게시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판 및 필기도구, 스티커 등 준비 - 이장이 생각하는 20년 후 마을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시토록 함 - 게시판에 주민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을 제공 3) 인터넷상에서 의견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 게시판의 내용을 1일 1회 인터넷에 등록하며, 인터넷에 등록된 내용을 마을게시판에 게재함 - 지속적 의견 수렴 4) 반상회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원하는 마을의 모습을 정리하여 발표함 - 복구공사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내용을 공개함 5) 갈등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불만과 공무원의 해결방안을 중재함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재난발생시 마을회관에 게시판을 마련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인터넷에 등록된 내용이 마을게시판 등록 내용과 동일한가? <input type="radio"/> 주민의견이 복구공사 시 반영되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55-01-03] 지역복구계획 주민설문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5 |
| | 진행주체 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3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55-01-03]

| 프로그램명(N) | 지역복구계획 주민설문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복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 <input type="radio"/>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복구에 관한 주민의 의사를 파악함 | |
| 누가 | 봉사단원 (지역단체) | |
| 언제 | 재해발생후 복구계획시 | |
| 어디서 | 피해지역 | |
| 무엇을 | 이재민의 설문조사를 수행, 지역복구계획 주민의견 도출 | |
| II. 실행 (I)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설문조사 요원을 모집 - 설문조사 유 경험자 우선 2) 설문조사 문항내용의 준비 - 요원들은 설문조사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 피해지역 프로그램 관리자는 지역복구계획 및 이재민의 심리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 - 설문방법 및 조사내용을 설문조사요원에게 설명 3) 설문조사 - 이재민 개별방문으로 설문조사 4)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 - 설문조사 내용을 지역 담당공무원 및 이장에게 설명 - 설문결과를 발표함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설문문항 작성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가? <input type="radio"/> 설문결과는 공개를 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50-31-03] 20년후 우리마을 만들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5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5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70-01-03(3)]

| 프로그램명(N) | 이재민 발맞사지 봉사 및 상담 | |
|--------------------|---|---|
| I. 목표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 ○ 발맞사지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 제공 | |
| | 누가 | 누구나 (타지역 단원) |
| | 언제 | 재난발생 이후 복구 시 |
| | 어디서 | 재난 95 캠프 또는 피해지역 마을회관 |
| | 무엇을 | 이재민에게 발맞사지를 봉사하면서 상담을 병행 |
| II. 실행 (I) | 어떻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재민 발맞사지 봉사요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분하게 이재민과 상담할 수 있는 단원 우선 2) 이재민 발맞사지 봉사요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맞사지 요령의 교육 - 이재민의 심리상태 및 상담기법 교육 - 봉사시 필요한 장비의 준비 3) 현장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요원은 피해지역 지역단원(이장)과 통화를 하여 봉사일시를 협의 - 지역단원은 피해주민이 맛사지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확보 (초등학교 또는 마을회관 등) - 발맞사지 봉사요원은 현장에 도착하여 봉사 4) 봉사요원의 현장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당일)봉사일 경우 지역에 현장급식소 유무 확인 - 급식소가 없을 경우, 응급복구 참여자 식사 사전 준비 5) 이재민의 애로사항 등 정리 제출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맞사지 봉사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이재민의 애로사항 등 상담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p>[031-01-02] 현장재난관리센터 (현장 95 캠프 운영) [070-01-03(1)]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활동</p>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7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70-01-03(1)]

| | | |
|--------------------|---|---|
| 프로그램명(N) |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활동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하여 이재민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극복 <input type="radio"/> 피해발생시 주민들간의 갈등 및 오해를 불식시킴 | |
| II. 실행 (I) | 누가 | 방재단원 (타지역 지원) |
| | 언제 | 재난이후 복구단계 저녁시간 |
| | 어디서 |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 (주민이 모이는 장소) |
| | 무엇을 | 지역 행사시 (지역 체육대회 등 포함)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레크리에이션에 관심이 있는 단원을 모집 - 행사진행 경험자 우선 2) 레크리에이션 준비 - 재난시 발생되는 다양한 주민갈등 상황을 이해 - 주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을 마련 - 어색한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협동하는 분위기를 생산하는 시간을 마련 - 지난시간을 반성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마련 3) 재난현장 사전 협의 - 재난현장 단원과 연락하여, 행사일시 확정 - 피해지역 단원(이장)은 지역주민에게 홍보 - 주요행사절차를 마치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 4) 레크리에이션 수행 |
| | | <input type="radio"/>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가? <input type="radio"/> 재난피해 현장과 연락하여 사전 협의를 하였는가?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70-31-03(2)] 재난연극 공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7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70-01-03(2)]

| 프로그램명(N) | 재난연극 공연 | |
|--------------------|-------------------------------|---|
| I. 목표 (O)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 이재민의 피해보다는 재난복구를 위한 미래진행형 사고방식으로 전환 |
| | 누가 | 봉사단원 (타 지역 참여) |
| | 언제 | 재난이후 복구단계 저녁시간 |
| | 어디서 |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 (주민이 모이는 장소) |
| | 무엇을 | 연극을 공연하여 어린이 및 주민들의 심리적 위로 |
| II. 실행 (I)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연극에 관심이 있는 단원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단에 종사하는 단원이 우선 2) 연극시나리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시 발생되는 다양한 주민갈등 상황을 도출 - 주민갈등 상황에서 잘못 선택하였을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잘 선택하였을 시 성공적인 사례를 연극을 통하여 설명 - 주민들의 재난피해로 인한 상실감을 위로해주고, 복구를 통하여 보다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 3) 재난현장 사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단원과 연락하여, 연극공연 일시 확정 - 피해지역 단원(이장)은 지역주민에게 홍보 - 반상회 마치고 연극공연을 하는 등 주민편의도모 4) 연극공연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시나리오가 개발되었는가? ○ 재난피해 현장과 연락하여 사전 협의를 하였는가?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70-01-03(1)]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활동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7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080-00-03]

| | | |
|--------------------|--|--|
| 프로그램명(N) | 실시간 봉사상황도 작성 | |
| I. 목표 (O) | <input type="checkbox"/> 복구사업이 시작되면 대규모의 자원봉사단체가 현장에 투입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간 봉사상황도 작성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단원 |
| | 언제 | 재난발생이후 봉사활동 시기 |
| | 어디서 | 피해현장 (재난 95 캠프에 설치) |
| | 무엇을 | 매일 봉사단체의 활동지역 및 인력, 장비 현황을 지도에 표시 |
|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봉사상황도 작성요원을 모집 - 지도에 대한 관심과 봉사인력 조정에 관심이 있는 자 우선 2) 실시간 봉사상황도 작성요원의 교육 -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지역 정보 파악 방법 이해 - 자원봉사단체의 성향 및 재난지역에 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 이해 - 현장 95캠프 운영시 자원봉사단체별 역할에 대한 조정능력 배양 3) 현장 95 캠프에 봉사상황도 작성팀설치 - 재난발생하여 현장 95캠프가 설치되면 봉사상황도 작성팀 설치 - 자원봉사접수 센터와의 연락수단 준비 - 재난피해지도 만들기 팀과의 연락수단 준비 - 매일 저녁 지역봉사단체의 회의를 주관하고 역할을 부여한 후 당일 지역의 자원봉사상황도를 작성 - 매일 오전 9시 봉사단체 책임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4) 기록 - 작성된 지도를 시간대 별로 정리, 보관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checkbox"/> 봉사상황도 작성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현장 95캠프에 봉사상황도 작성팀이 구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매일 회의를 통하여 자원봉사단체가 배치되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31-01-02] 현장재난관리센터 (현장 95 캠프 운영) [080-09-02] 재난피해 지도만들기 [111-05-02(2)]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행정보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8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 | | |
|--------------------|--|--|
| 프로그램명(N) | 지역복구지도 작성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재난복구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의 개선사항을 지도에 표시 <input type="radio"/> 재난발생이전과 재난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단원 |
| | 언제 | 재난발생 이후 복구사업 완료시 |
| | 어디서 | 지도 제작 가능한 곳 |
| | 무엇을 | 복구사업을 수행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에 표시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지도작성 관심요원을 모집 - 지역 지도관련 업종 종사자 우선 2) 재난복구지도 작성요원 사전준비 - 지역지도의 준비 및 작성공간의 마련 - 재난발생 이전 지역의 사전답사를 통하여 중요시설 및 지형에 대하여 사진촬영 - 재난담당 공무원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 입수 협의 3) 재난복구시 지도작성 - 재해 이전, 재해발생당시, 복구이후의 사진을 비교 - 복구사업에 대한 진행과정별 사진 촬영 - 복구사업 완료후의 지역의 개선사항을 지도에 표시 - 재난복구 이후 보다 재난에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 4) 지도의 배포 - 작성된 지도는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배포 5) 상황 종료후 기록 - 작성된 지도의 체계적 보관 |
| | | <input type="radio"/> 복구이전 및 이후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나? <input type="radio"/> 복구사업에 의해 과거보다 안전해 진 사항이 작성되었나? <input type="radio"/> 재난발생 이전부터 당시 및 이후의 자료가 정리되었나?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80-00-02] 재난피해사진의 보급 [080-09-02] 재난피해 지도만들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08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9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100-00-03]

| | | |
|--------------------|--|--|
| 프로그램명(N) | 재해극복 희망나눔장터 운영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재난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위하여 지역 상품 및 특산품 등에 대한 홍보 <input type="radio"/> 재난극복의 노력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운영 | |
| 누가 | 지역단원 | |
| 언제 | 재난복구시 | |
| 어디서 | 피해지역의 공공장소 | |
| 무엇을 | 재난지역 상인들의 상품을 할인판매 | |
| II. 실행 (I)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희망나눔장터 운영요원의 모집 - 대규모 행사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자 및 상인협회 회원 우선 2) 희망나눔장터 기획 - 관련기관(자원봉사센터, 시군청소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및 지역 상인 연합회 등)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희망나눔장터 계획 수립 - 지역사회의 재난극복을 위한 행사로서 추진 (지역단체장 참여) - 지역정부와 관련 비용에 관한 협의 - 장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계획 (방송시설, 주차장, 간이 화 장실, 상하수도 시설 등) - 장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행사지원반, 급수자원봉사, 방송홍보 반, 교통통제반, 시설준비반 등) 3) 장터 운영의 홍보 -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하여 희망나눔 장터 개설에 대한 적극 적 홍보 실시 - 주민 및 타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4) 장터운영 및 결과보고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다수의 기관이 희망나눔장터에 참여하였는가? <input type="radio"/> 희망나눔장터 마련을 위한 장비 및 경비를 마련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장터에 방문한 사람이 많이 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70-01-03(1)] 재난심리 레크리에이션 활동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0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0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111-05-03]

| 프로그램명(N) | 피해조사업무 보조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피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량이 급증하게 됨 <input type="radio"/> 자율방재단에서 피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적자원을 지원하여 보조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자율방재단원 (성인) |
| | 언제 | 재난발생 후 피해조사 시 |
| | 어디서 | 피해지역 |
| | 무엇을 | 공무원의 피해조사 업무 보조 |
| | 어떻게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피해조사업무 보조요원을 모집 - 법적 지식이 있거나 과거 행정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2) 피해조사업무 보조요원의 교육 -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조사방법에 대한 교육 - 재난발생시 국가지원의 개념과 국민의 책임성에 대한 이해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교육 - 담당공무원과 토의 - 비상연락망 구축 3) 재난발생시 현장투입 - 피해지역 읍면동 배치 후 집결 - 재난발생하면 피해조사 담당공무원과 현장 투입 - 피해조사 양식에 맞추어 피해 산정 - 작성 자료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4) 피해조사 업무 기록 - 피해조사하면서 나타난 기술적 판정의 문제점 피드백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input type="radio"/> 피해조사업무 보조요원의 교육이 실시되었나? <input type="radio"/> 조사 시 담당공무원과 밀접한 사전 연락이 되었나? | |
| IV. 시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110-01-03] 피해신고 자문창구 운영 [111-05-02(2)]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행정보조 | |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1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5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프로그램 번호 : 110-01-03]

| 프로그램명(N) | 피해신고 자문창구 운영 | |
|--------------------|---|-----------------------|
| I. 목표 (O) | <input type="radio"/> 이재민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원인 제공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자문 <input type="radio"/> 자연재해의 경우 정부에 피해신고하는 방법을 자문 | |
| II. 실행 (I) | 누가 | 지역방재단원 (법적 지식이 있는 단원) |
| | 언제 | 재해발생 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시 |
| | 어디서 | 현장 95 캠프 |
| | 무엇을 | 이재민들에게 피해신고 하는 방법을 자문 |
| III. 평가 및 모니터링 (M) | 1) 프로그램 관리자는 피해신고 자문요원을 모집 - 법적 지식이 있거나 과거 행정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2) 피해신고 자문요원의 교육 -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조사방법에 대한 교육 - 재난발생시 국가지원의 개념과 국민의 책임성에 대한 이해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교육 - 담당공무원과 토의 - 비상연락망 구축 3) 현장 95 캠프에 자문팀 설치 - 재난 발생 후 현장 95캠프가 설치되면 자문팀 설치 - 전화 및 인터넷으로 상담가능토록 장비 설치 - 요원들은 2인 1조로 교대근무 4) 자문활동 결과 기록 - 자문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 및 사례를 기록 - 소방방재청에 통보 | |
| | <input type="radio"/> 피해신고 자문요원의 교육이 수행되었는가? <input type="radio"/> 전화 및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장비가 준비되었는가? <input type="radio"/> 자문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
| IV. 사례 | | |
| V. 관련프로그램 | [031-01-02] 현장재난관리센터 (현장 95 캠프 운영) [111-05-03] 피해조사업무 보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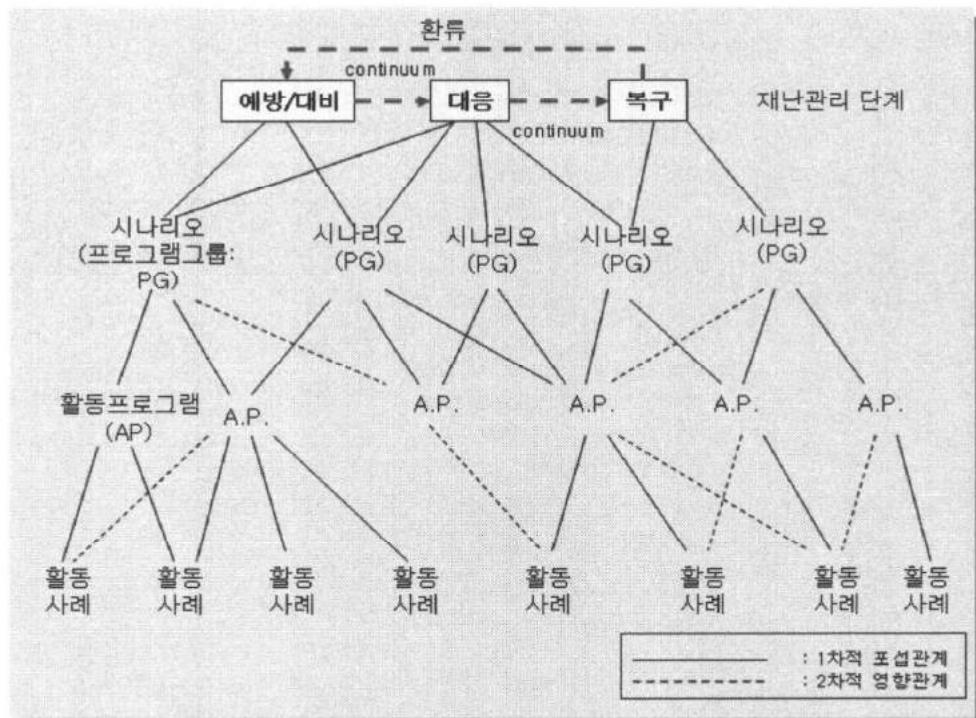
| | | | |
|----|------------------|---|----|
| 분류 | 분야 (Field) | (01) 교육, (02) 구조, (03) 구호, (04) 방역·의료, (05) 복구, (06) 시설점검 (07) 심리치료, (08) 재난정보, (09) 치안·예찰, (10) 협력·행사, (11) 행정지원, (12) 조직운영 | 11 |
| | 진행주체그룹 (Subject) | (0) 일반(남녀노소), (1) 성인, (2) 노인, (3) 성인여성, (4) 성인남성, (5) 대학생, (6) 청소년, (7) 어린이, (8) 전문가, (9) 기타 | 0 |
| | 대상지역 (Area) | (0) 모든 지역, (1) 특별시/광역시, (2) 일반중소도시*, (3) 농·산촌, (4) 어촌 (9) 기타 | 0 |
| | 대상집단 (Group) | (0) 무관, (1) 이재민, (2) 일반주민, (3) 어린이, (4) 중·고등학생, (5) 기관(정부), (9) 기타 | 1 |
| | 재난 (Type) | (0) 모든 재난, (1) 풍수해, (2) 설해, (3) 가뭄, (4) 폭염, (5) 지진, (6) 산불, (9) 기타 | 0 |
| | 단계 (Process) | (0) 전(全) 단계, (1) 예방·대비단계,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3 |

제6장 활동프로그램 활용방안

제1절 시나리오, 활동프로그램 그리고 활동 사례의 관계

본 연구는 지역의 자율방재 조직 관리자와 봉사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난 관련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장 사례와 활동프로그램 그리고 시나리오³⁶⁾, 즉 상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그룹의 관계에 주목한다. 시나리오 및 활동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 당위론적 특성(as it should be)을 가지는 반면에 사례는 과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as it was), 이를 귀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준거(frame)나 실마리(clue)로 삼을 수 있다.

(그림 6-1) 시나리오-활동프로그램-사례의 위계적 관계



이용자 측면에서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i)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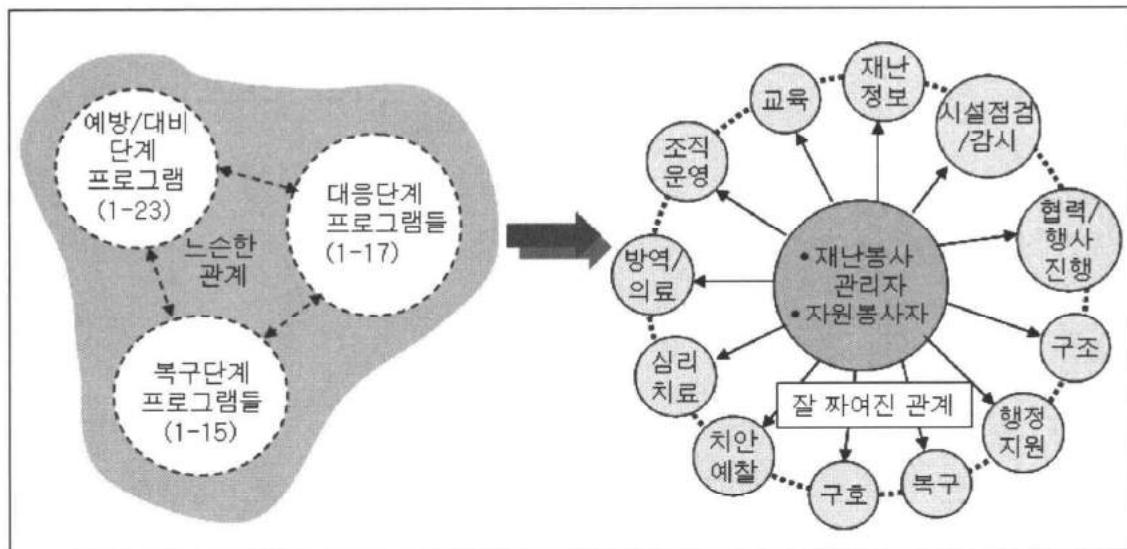
36) 1장에서 조작적 정의를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란 각종 재난재해의 대비 또는 발생 시 봉사자들이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 그룹으로 구성되는 각본의 의미로서, 활동프로그램들이 갖는 공통적 속성(attributes)을 기초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끼리 그룹화(grouping) 하였을 때 도출되는 각 유형을 실천함으로써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것으로 본다.

맞는 프로그램 변형이 요구되는 데 이 경우 해당 분야별 시나리오와 사례를 참고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 ii) 활동프로그램을 그룹화하고 이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면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측 능력이 배가될 수 있고, iii) 지역 여건에 맞게 필요한 활동프로그램 분야별로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2절 분야별 프로그램 유형 그룹

5.2절에서 설명한 총 55개 프로그램들을 상호 관련성 유무를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제시된 활동프로그램들은 재난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기준의 시각, 즉 하향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역 사회기반 재난접근을 위한 관점, 즉 상향적 주민 참여적 관점에서 접근함을 의미한다.

(그림 6-2) 활동프로그램의 분류 패러다임 변화



이러한 활동프로그램 분류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현장에서 재난봉사관리자들이나 자율방재조직이 활동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비용과 시간 절감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자에 따라서 프로그램 간의 상관성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간 토론을 거쳐, 교육, 구조, 구호, 방역/의료, 복구, 시설점검/감시, 심리치료, 재난정보, 치안/예찰, 협력/행사진행, 행정지원, 조직운영의

12개 분야를 도출하였다

1. 교육분야

교육분야 활동프로그램은 피교육 대상(지역주민, 어린이, 청소년 및 이재민들)에게 재난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을 말한다. 봉사활동을 위한 분야별 교육(피교육대상이 봉사단원인 경우)은 각 활동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표 6-1) 교육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현장학습 교육 | 재난현장을 답사하고 이재민의 생활을 체험하는 등의 재난현장에 대한 간접경험 교육을 함 | 이재민 체험 재해지역 탐방 재난관리 해설자 교육 | 예방 예방 복구 |
| 재난대응 훈련 | 주민들이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해야 하는 방법의 준비 및 훈련 | 재해대비 모의훈련 방재카드 만들기 | 예방 예방 |
| 지역방재 참여 | 주민들이 지역의 재난위험을 파악하고 재난을 경감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방재대책을 학습, 토의하는 과정학습 | 지역방재 주민 워크샵 | 예방 |

2. 구조분야

구조분야 활동프로그램의 경우, 구조요원이 재난상황에서 지역주민을 구출하고, 부상자를 응급 처치하는 과정을 습득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분야의 활동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6-2) 구조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구조활동 훈련 | 재난현장을 답사하고 이재민의 생활을 체험하는 등의 재난현장에 대한 간접경험 교육을 함 | 산악지역 현장답사 구조장비 훈련·마련 현장 구조활동 | 예방 예방 대응 |
| 부상자 응급처치 |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처치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활동 | 부상자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조사 | 예방 예방 |
| 이재민 가족찾기 | 재난으로 실종되거나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이재민 가족을 찾아주는 활동 | 이재민 가족찾기 | 대응 |

3. 구호분야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구호분야 활동프로그램은 재난이 발생하여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기관의 인력자원으로서는 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봉사요원이 이재민의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인력 및 물자지원을 하는 활동이다.

(표 6-3) 구호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구호활동 종합 | 피해지역의 전반적인 구호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활동 | 현장 95캠프 운영 (현장재난관리센터) | 대응 |
| 이재민 기초생활 지원 | 피해지역 이재민의 의식주를 임시로 제공해주는 활동 | 재난현장 급식 재난현장 세탁 임시거주시설 설치 | 대응 대응 대응 |
| 구호물자 배분 |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막대한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관리 배분하는 활동 | 구호물자 비축관리 지원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지원 | 예방 대응 |

4. 방역/의료분야

자율 방재조직의 방역/의료분야 활동프로그램은 재난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이재민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및 의료봉사를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방역/의료분야의 활동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6-4) 방역/의료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방역활동 | 지역의 질병이 발생가능성이 있는 비위생시설 및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함 | 마을 방역 | 대응 |
| 의료활동 | 부상을 당하거나 노약자들에 대한 의료활동을 함 | 무료의료봉사 | 대응 |

5. 복구분야

복구분야 활동프로그램은 긴급한 재난대응상황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재민의 생활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등의 지원과 복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향후 주민들이 보다 개선된 생활터전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표 6-5) 복구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응급복구 활동 | 피해지역의 청소 및 이재민 주택의 오물 제거, 농작물 복구 등의 복구활동 | 응급복구 참여 재난지역 청소 | 복구 복구 |
| 장비지원 활동 | 효율적 복구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장비에 대한 지원활동 | 물자이송 차량운영 재난현장 전문팀 활동 | 복구 복구 |
| 지역복구 계획 | 개선된 생활터전을 구축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 20년후 우리마을 만들기 지역복구계획 주민설문 | 복구 복구 |

6. 시설점검/감시 분야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시설점검/감시분야 활동프로그램은 재난예방 및 대비차원에서

위험한 시설물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재난발생이전에 조치하는 활동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표 6-6) 시설점검/감시 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시설감시 |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설물(제방, 놀이터, 도로 등)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활동 | 제방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풍수해 감시인 | 예방 예방 대응 |
| 점검결과 통보 | 감시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위험시설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정부에 위험시설 정보를 통보해주는 활동 | 점검결과 지역담당 통보 | 예방 |

7. 심리치료 분야

심리치료분야 활동프로그램은 재난으로 인해 재산 손실 뿐만 아니라 충격으로 인하여 심리적 혼란을 당하거나 혼란한 상황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재난의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심리적 활동을 하는 분야이다.

(표 6-7) 심리치료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심리상담 활동 | 주민들과 재난피해에 대한 심리적 충격 및 갈등에 관한 상담을 통하여 이재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치료하는 활동 | 심리적 조력자 교육 발맛자지 봉사 및 상담 | 예방 복구 |
| 공연행사 활동 | 연극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하여 이재민의 심리적 상황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활동 | 레크리에이션 준비 레크리에이션 활동 재난연극 공연 | 예방 복구 복구 |

8. 재난정보 분야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재난 정보분야 활동프로그램은 재난의 발생, 대책, 위험도 등의 다양한 재난정보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정보관리 활동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표 6-8) 재난정보 분야 활동프로그램 유형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의정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운영에 대하여 필요정보를 분석하고 공개하는 활동 | 의정감시 활동 | 예방 |
| 지도작성 | 재난정보를 지도에 표시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지역위험지도 만들기 재난피해 사진의 보급 재난피해 지도 만들기 실시간 봉사상황도 작성 지역복구지도 만들기 | 예방 대응 대응 복구 |
| 정보 전파 | 신문 등 지역정보전파 매체에 재난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활동 | 지역신문 방재란 만들기 인터넷 사이트 운영 | 예방 예방 |
| 피해정보 파악 | 광역의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신속하게 파악하여 통보 | 아마츄어 무선통신 활동 | 대응 |

9. 치안/예찰 분야

치안/예찰분야 활동프로그램은 재난위험지구에서 인명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많은 경우 또는 재난시 혼란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봉사단원이 주민을 통제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표 6-9) 치안/예찰 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위험통제 활동 | 지역의 위험지역 또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적극적 통제활동 | 위험장소조사 및 표식설치 안전선 설치 운영 | 예방 대응 |
| 질서유지 활동 | 대규모 행사, 재난 시 무질서한 교통 혼잡 및 주민대피시의 재난지역 치안활동 | 대규모 행사장 질서유지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안내 피해지역 치안활동 | 대응 대응 대응 |

10. 협력/행사진행 분야

협력/행사진행분야 활동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협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표 6-10) 협력/행사진행 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단체 협력 활동 | 지역에 있는 다양한 봉사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활동 | 네트워킹 및 협약체결 | 예방 |
| 행사진행 활동 | 재난지역의 주민단합 및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활동 | 재해극복 희망나눔장터 운영 재난극복 게임 | 복구 복구 |

11. 행정지원 분야

행정지원 활동프로그램은 지역정부의 재난발생 시 나타나는 공무원 인적자원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단순 업무에 대해서 봉사단원이 수행해주는 활동을 말하며, 행정지원과 자문활동의 두 유형이 있다.

(표 6-11) 행정지원 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행정지원 활동 | 정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재난상황 시 부족한 인력자원을 지원하는 활동 | 재난관리행정보조 재난지역 보육시설 보조 읍면동사무소 행정보조 피해조사업무 보조 | 대응 대응 대응 대응 |
| 자문활동 | 정부의 다양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이재민에게 자문해주는 활동 | 자원요원 교육과정 운영 피해신고 자문창구 운영 | 예방 대응 |

12. 조직운영 분야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조직운영분야 활동프로그램은 단원의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활동을 말하며, 조직원 및 프로그램 관리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활동프로그램 유형으로 구성된다.

(표 6-12) 조직운영분야 활동프로그램

| 유형 | 설명 | 활동프로그램 | 단계 |
|---------|--------------------------------|--------------------------|----------|
| 조직원 관리 | 자율방재조직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연락, 지원 활동 | 방재수첩 만들기 봉사조직 관리 및 운영 | 예방 예방 |
| 프로그램 관리 |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개선활동 | 봉사후 평가 모니터링 | 예방 |

제3절 활동프로그램 활용방안

1. 재난자원봉사 관리자(Coordinator)의 중요성과 역할

지역자율 방재조직을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중의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³⁷⁾. 지역자율방재는 기존의 조직을 배제하고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여러 관련 조직에게 어떻게 재난관련 임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협력체계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즉 자율 방재조직은 조직에 대한 인사관리개념의 관리보다는 프로그램 관리를 통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조직들이 지역의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율방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재난관련 자원봉사 관리자 그룹에서 우선적으로 실행되고, 이들 중간관리자의 채널을 통해 일반 봉사자와 방재단원 속으로 확산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들이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며,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등, 다음과 같은 임무를하게 된다.

- 1) 프로그램 기획과 조직(준비와 자료구축 포함) : 지역자율방재조직은 재난관리 활

37)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재난관리 자원봉사조직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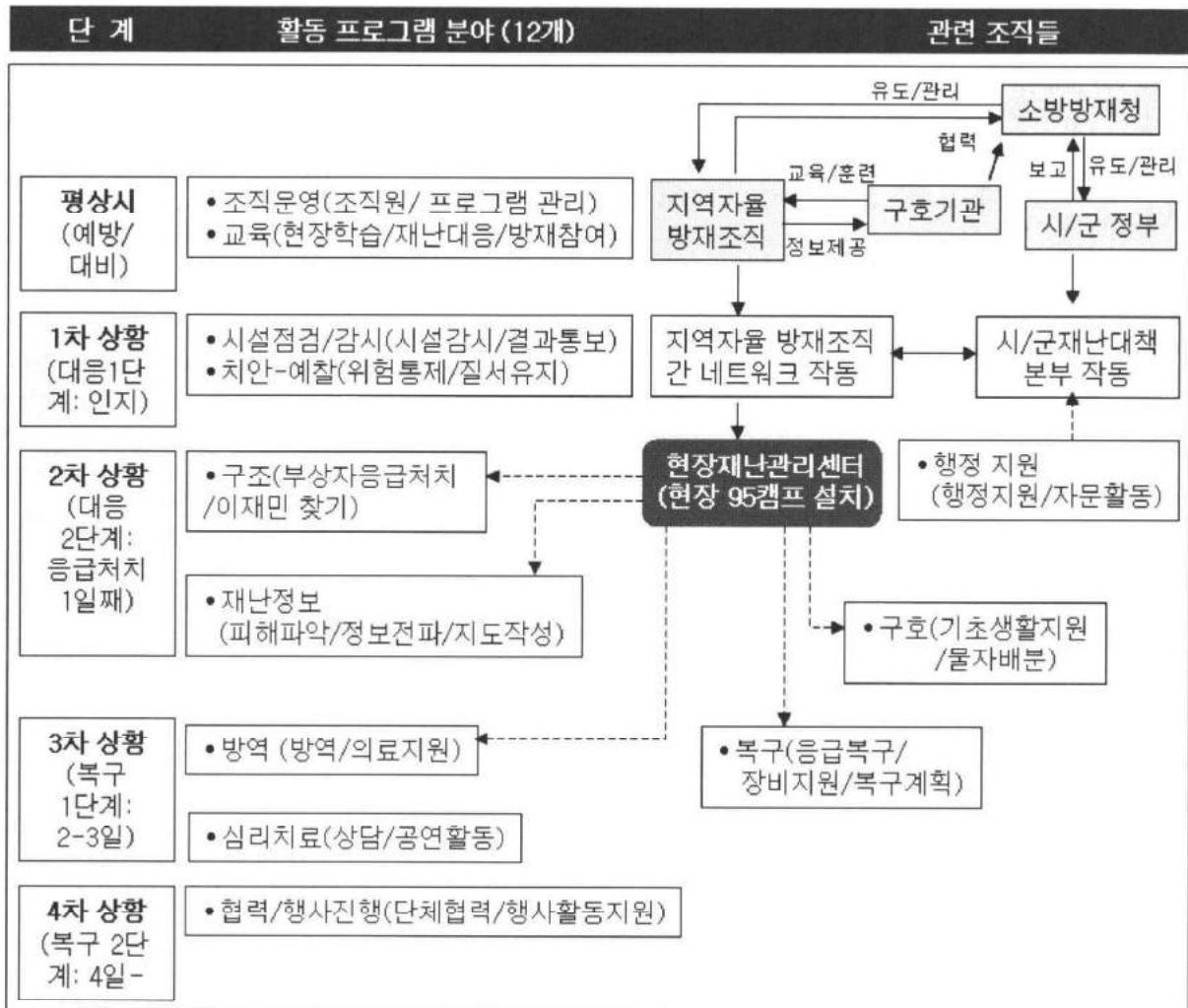
동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획에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조직을 위한 여러 계획을 준비하는 부서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2) 조직배치와 지원 (봉사자 직무설계 및 배치) : 지역자율방재조직의 또 다른 기능은 지역 자원봉사조직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계획, 자원봉사조직들이 수행할 직무의 설계, 자원봉사조직과의 협력방안 모색과 협약, 그들의 적소배치와 그들의 업무를 Feedback하는 일들이 중요한 기능들이다.
- 3) 통제(프로그램 기획-준비-평가) : 통제는 자원봉사조직들의 업무와 그들이 전달하는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는 일이다.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율 방재조직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을 위해 자율 방재조직은 평가계획의 개발과 이용에서 다른 조직들을 가담시키고, 평가에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프로그램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 4) 재난관리 전문조직의 위상 (전문 리더십의 발휘): 지역자율 방재조직은 지역조직, 지역사회, 전문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일을 수행한다. 즉 재난관리 관련하여 리더십을 행사하고, 조직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 방재조직은 지역이 위기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자원봉사자 활동의 범위와 중요성과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이용도의 동향에 관해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 5) 정부와의 관계 (정보 소통과 자원 협력) : 자율 방재조직은 정부기관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 방재조직의 가장 중대한 기능은 정부기관의 자원 가용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조언해주며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율적 방재조직은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과 실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확인하면, 자율방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난관리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앞 절에서 제시된 12개 분야 활동프로그램 그룹의 적용을 상황발생 별 단계를 세분화하고, 자율 방재조직을 포함하는 관련 참가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하면 대체로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6-3) 활동프로그램 그룹의 상황 단계별 적용



주: 한 분야 내에서도 서로 다른 단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그림에서는 지배적인 프로그램들 위주로 적용 단계를 설정하였다.

2. 활동프로그램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점검

4장의 활동 사례에서 분석된 장애요인들을 해소하고, 제시된 함의를 구체화하면서, 5장에서 마련한 활동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i) 지역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며, ii) 지역의 재난관련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iii) 프로그램의 치밀한 준비, iv) 개방적 실행 그리고 v) 파급효과까지를 일관성 있게 평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1) 지역(특히, 재난 취약지구)여건 이해하기의 점검 항목

- 지역의 지리적, 물리적 여건
- 주요 재해 유형 및 발생빈도
- 과거 재해 기록 및 피해수준
-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 지역주민들이 활용가능한 재난 시 생존기술 및 대처 메커니즘
- 지금까지 지역사회가 취해온 재난관리 정책방향 및 접근방식
- 지역주민의 재난에 대한 태도, 경험, 지식

2) 재난관련 지역자원 찾기의 점검항목

- 지역주민의 지원과 참여도
- ‘변화’를 주도할 적극적 선도참여자(change agent: CA) 발굴
- 해당 프로그램관련 유경험자나 전문가를 적극 활용
- 시·군·구청의 협력과 지원 획득
- 모든 참여자가 쉽게 올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 장소 활용
- 지역의 재난 여건에 부합되는 교육, 훈련자료의 준비
- 1단계에서 정리된 지역 재난여건에 대한 SWOT분석³⁸⁾ 실시

3) 프로그램 준비하기 단계의 점검항목

- 참가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한 참가자의 수준을 검토하고 규모는 20-30명이 적당함
- 프로그램의 실행 기간/시간, 스케줄 등이 참가자의 생계를 방해하지 않아야함
- 참가자 위주의 교육방법과 자료가 준비 되어야함 (예: 그룹별 실습, 현장경험의

38) 경영학에서 원용된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 기법으로서 Strength, Weakness, Opportunities, Threats의 앞 글자를 따서 간략히 스왈(SWOT)분석이라 부르며, 도시나 지역이 가진 내부여건의 강점 및 약점 그리고 외부환경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찾아내어 강점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거나 강화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계획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유 등)

4)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의 점검항목

- 실행의 초기단계(또는 교육의 경우 첫 시간)에서 진행자는 참가자를 편안하게 만들고 재미있고 동시에 호기심을 느끼면서 긴장을 풀도록 하는 계기(ice-breaking)를 반드시 제공
- 개방적이고 재미있고 즐길만한 프로그램 분위기 항상 유지
- 필요한 경우 자극이 되는 게임이나 답사 등을 조직하여 실시
- 2단계에서 실시한 SWOT 분석 결과를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강점의 강화방안, 약점의 극복방안, 기회요인의 활용방안, 위협요인의 대처(회피)방안 등을 제안해 보도록 유도함

5) 실행 후 파급효과 평가하기 단계의 점검항목

- 참가자들이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이웃에 어느 정도 전파 하는가
- 향후 재난발생 시 참가자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대응-복구할 동기부여가 충분한가?
- 프로그램종료 후 참가자들이 경험하거나 배운 내용을 직접 실행하는 데 장애나 문제점은 없는가?
- 외부의 구호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재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화되었는가?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재난이 점차 일상화, 대형화 복합화 되면서 정부의 지역사회 기반의 상향적 방재개념 도입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지역의 자율방재 조직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방재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2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그 수단으로서 지역자율 방재의 이념을 강조하고, 3장에서는 지역자율 방재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접근인 지역 사회기반 재난관리(CBDM)와 재난저지공동체(DRC)의 기본적 내용, 그리고 국내·외 자율방재 조직과 사례를 설명한다. 4장에서 현장 중심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현장의 장애(문제점)와 합의(해결방향)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핵심장인 5장은 활동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내용을 설명하고 4단계 NOIM 모델을 제시한 다음, 예방/대비 단계 프로그램 23개, 대응 단계 프로그램 17개, 그리고 복구 단계 프로그램 15개 등 모두 55개의 활동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활동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6장에서는 55개 프로그램을 상호관련성 유무를 기준으로 12개 분야로 재분류하고, 분야별 유형을 설명한 다음, 관리자의 역할과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점검항목을 제시한다.

활동프로그램의 존재근거는 현장성의 반영유무에 있다. 따라서 실행의 성패는 지역 현장의 특성을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활동프로그램들은 하나의 표준안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활용 시 반드시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다소간의 수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정과 변형을 위해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사정(assessment)이 실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봉사조직 관리자들, 공무원 그리고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시된 55개 프로그램을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하향적, 제도적 관점에서 무작위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용자 위주로(user-oriented) 상향적 관점에서 12개 분야별로 활용을 하도록 한다. 이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행하는 것이 학습과 전파효과의 측면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기화, 대형화, 복합화하는 재난·재해의 최근 경향을 감안하면 본 보고서에서 개발된 활동프로그램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한국에서의 재난관련 주민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은 이제 착수단계이며, 향후 각 지역의 자율방재조직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산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지역 적합형의 프로그램 개발을 관-학 연계를 통해 확충하고,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자율방재 관련조직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비체계적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 리더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혼란이 가중되고, 봉사조직과 정부 간 공조가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봉사활동 관련 부서들의 난립과 관리체계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안고 가게 된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조직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내지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활동프로그램들을 매개로 관련 조직의 관리자와 봉사자들이 모여 지역기반 활동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호이해와 신뢰가 강화되어 ‘아래로부터의 신뢰 네트워크(trust network from the bottom)’가 서서히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제언

도시, 농촌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성장 및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문제를 더 이상 일과성으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이슈로 접근해서는 참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가 어렵다.

재난발생과 그 피해를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 경우, 자신은 재난발생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피해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군 정부나 타인에게 있다고 하는 오해(misconception)가 누적되어 지역사회기반의 상향식 방재관리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권으로서의 방재의식, 재난피해의 최종 당사자이자 복구의 책임자로서 주민의 자율적 방재의식의 고취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도 활동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습과 교육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형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K-CBDM) 모델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축적되어야 한다. 구미나 동남아 등지에서 사용되는 CBDM의 내용들은 그들의 역사·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자주방재조직의 경우 대부분

지진에 대비한 모델들이며,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은 자연 재해, 특히 열대성 태풍, 지진해일, 유역범람 등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우리의 재난재해 유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형 모델은 인구규모(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지형적 특성(평야, 해안, 산촌 지역 등) 그리고 도시기능(산업, 농업, 관광, 광산, 어업 등), 재해경험 등을 기준으로 유형 별로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국문자료]

- 강예진(2006),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경상남도(2005), 경상남도 수해백서 2004.
- 국립방재교육연구원(2006),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정, 천안: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국립방재연구소(2003), 우리나라 자연재해 발생추이분석 및 대응방안연구 (I): 풍수해 장기 대응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방재연구소.
- 국립방재연구소(2004), 정부지원 복구비의 지출경로 및 수혜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국립방재연구소.
- 권태호(2007), “재난취약성과 지역,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방향”, 지역자율방재 단과정, 천안: 국립방재교육연구원, pp.85-113.
- 권태호 · 오금호(2006), “지역사회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재난저지공동체 접근과 지역 자율방재단의 위상”.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151-169.
- 김경동(1979), “사회발전의 조직원리”, 동산 신태식박사 고희기념논총, 대구: 계명대학 교.
- 김경동(2007)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아르케.
- 김광두(2005) “이데올로기와 국가경쟁력”, 국제경제연구, 11(1).
- 김길수(2002), “재해발생 시 효과적인 봉사자 참여를 위한 센터의 역할”, 제32회 정기 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
- 김영호(2006),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김의영(2006), 자원봉사론, 서울: 홍익출판사.
- 남궁근(1995), “재해관리 행정체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957-981.
- 노진철(2005), 현대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 33-48.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2007), 2007 재난재해 자원봉사 SOS 지원시스템 매뉴얼, 대구: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 마산시(2004), 2003 재해백서, 마산: 마산시청.
- 맹진학(2006) 위계성장모델(Hierarchy Growth Model)을 이용한 한국의 사회계층 간 양극화 양상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2(1): 1-28.
- 문채·윤혜철·조판기(2003),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양: 국토연구원.
- 박광길(2004). "지역주민 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방안.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방재역량 강화", 2004 국립방재연구소 춘계토론회 자료집, pp.19-35.
- 볼룬티어21(1999), 재해시 자원봉사활동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자원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사)볼룬티어21.
- 서종국(2005), 정보화와 도시공간 및 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7(2): 291-311.
- 선우영준(2003),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질과 환경윤리(I), 국토, 통권 260호. 국토연구원.
- 성기환(2006), 재난관리와 파트너십, 서울: 한국학술정보.
- 소방방재청(2007), 民間의 自律防災力量 強化를 위한 地域自律防災團 擴大推進 指針, 소방방재청.
- 심재현·오금호(2005), "지역방재역량강화와 NGO의 역할", 제10회 방재안전 세미나 및 전시회 자료집, pp.209-240, 대구: 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양기근(2007), "재난자원봉사활동의 효율화 방안", 강원광장, 76: 18-25, 춘천: 강원발전 연구원.
- 오효근(2006),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지혜의 샘.
- 윤명오(2004), "우리나라 재난발생의 특성과 소방방재 대책의 발전방향", 제9회 방재안전 세미나 및 전시회 자료집, pp.13-36, 서울: 세종문화회관.
- 윤상우(2005), "한국·대만의 산업화와 불균등 지역발전", *사회과학연구*, 13(1): 325-355.
- 이동윤(2005),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보*, 39(1): 277-298.
- 이상철 외(2002), 제주지역 성인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서울: 집문당.

- 이성록(2005), 자원봉사 어드바이저, 서울: 미디어숲.
- 이성록(2007), “수해를 대비한 민관파트너십 체계구축”, 지방행정. 제56권 645호. 서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이재은 외(2006), 재난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재은 · 양기근(2004),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현대사회와 행정, 14(3): 53-81.
- 이재은 · 양기근(2005),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과 미국의 재난 관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5(1): 105-135.
- 이창호(2002),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 자원 봉사활동의 성과와 과제”, 제32회 정기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
- 이희민(2003), “미국 재해관리시스템의 변천과정”, 국토, 통권258호, pp.93-98.
- 임송태(1997),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임현진 외(2003),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2003), 재해와 자원봉사활동, 서울: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
-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2003),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
-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 (2006), 재난지역 주민의 재난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전국전국재해구호협회.
- 조원철(2004). “방재안전관리분야의 지역주민 참여제도 현황과 개선.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방재역량 강화” 2004 국립방재연구소 춘계토론회, PP.3-15.
- 조원철(2006), 재난관리론, 한국방재협회 부설 방재연수원.
- 조휘일(2002),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 서울: 학지사
- 주성수(2005), 자원봉사: 이론 제도 정책, 서울: 아르케.
- 주성수(2001), 시민사회와 NGO 논쟁,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한국도시연구소(2001), 현장에서 배우는 주민조직 방법론,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 한국자원봉사포럼(2002), 수해 복구 자원봉사 평가와 미래과제, 32회 정기포럼 자료집.
- 행정자치부(2007a), 재난관리, 잘된 것은 본받고 실패는 거울로, 서울: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2007b), 2006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서울: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2003), 재해연보 2002, 서울: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

홍원화외 3인(2004), “재난 자원봉사자의 지원 및 관리체계 분석 및 제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 337-344.

Hyndman 저, 길영우 역 (2006), 자연재해와 재난, 서울: 시그마플러스.

Dollfus, Olivier 저, 최혜란 역 (1998), 세계화, 서울: 한울, pp. 75-82.

[영문자료]

ADPC(2004), “Building Disaster Reduction in Asia: A way Forward ADPC Looks Ahead To 2015”, Bangkok: ADPC.

ADPC(2006), Community-based Disaster Risk Management, Bangkok: APPC

Allen, Katrina M.(2006), "Community-based Disaster Preparedness and Climate Adaptation: Local capacity Building in the Philippines", Disasters, 30(1): 81-101.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2004), Planning for a Disaster-resistant Community: Course Material, San Francisco: Moscone Center.

Ayres, Ian & John Braithwaite(1992), Responsive Regulation: Transcending the Regulation Deb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chrach, Peter & Morton S. Baratz(1963), "Decisions and Nondecisions: An Analytic Frame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 632-644.

Barber, Benjamin R.(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arry, B.(1999), "US Government Natural Disaster Assistance: Historical Analysis and a Proposal for the Future", Disaster, 23(2), pp.139-155.

Berke, Philip R. and Thomas J. Campanella(2006), "Planning for Postdisaster Resiliency", The ANNALS of the AAPSS, 604: 192-207.

Benson, C., Twigg, J. and M. Myers (2001), "NGO Initiatives in Risk Reduction: An Overview", Disasters, 25(3): 199-215. (to be obtained)

- Boulder County(2002), Flood Protection Handbook, Transportation Department, Boulder County, Colorado.
- Brenda, D. P.(2002), Understanding Vulnerability, Natural Hazards Observer, 31(3).
- Burby, Raymond J.(1998, ed.), Cooperating with Nature, Washington, D.C.: Joseph Henry Press.
- 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2001), Disaster Service Worker Volunteer Program(DSWVP) Guidance, 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 Chapman, John W. & Ian Shapiro(eds. 1993), Democratic Community: NOMOS XXXV.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Clary, Bruce B.(1985), 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 Natural Hazard Poli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20-28.
- Comfort L. K.(1999), Shared Risk: Complex Systems in Seismic Response. Pergamon.
- CUSEC(1997),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A Community-Based Approach to Hazard Mitigation, The CUSEC Journal, 4(1): 2-8.
- Delica, Z.(2002), "Citizen's Participation towards Safer Communities", Regional Workshop on Best Practices in Disaster Mitigation, Bali, ADPC.
- Drabek, Thomas E.(1985),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85-92.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03), Handbook for Estimating th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Disasters, Washington.
- Edelman, Murry J.(1964),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FEMA(1997), Project Impact: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55p.
- FEMA(1999), Public Assistance Guide, 292pp.
- FEMA(2000), Planning for a Sustainable Future: The Link between Hazard

- Mitigation and Livability, 40pp.
- FEMA(2003), A Nation Prepared: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03 – 2008).
- FEMA(2004), Help After a Disaster: Applicant's Guide to the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24pp.
- Erickson, Paul A.(1998), Emergence Response Planning: For Corporate and Municipal Managers, Harcourt.
- French, Steven P.(1991),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Risk Analysis", Raymond J. Burby(ed.), Sharing Environmental Risks: How to Control Governments' Losses in Natural Disasters. Boulder, Co: Westview Press, Inc.
- Geis, Donald E.(1996), "Creating Sustainable and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Working Paper, The Aspen Global Change Institute.
- Geis, D. E.(2000), "By Design: The Disaster Resistant and Quality-of-Life Community", Natural Hazards Review, 1(3): 151–160.
- Gingerich, B.S.(2004), Management Update: "Lessons Learned in Disaster management", Home Health Care management & Practice, 17(1): 48–49.
- Godschalk, David R., Beatley, Timothy, Berke, Philip, Brower, David J. and Edward J. Kaiser(2000), Natural Hazard Mitigation: Recasting Disaster Policy and Planning", V.H. Winston.
- Gramsci, A.(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ed.) and Hoare, Quintin and Geoffrey(trans.), Nowell Smith: International Publishers.
- Habermas, J.(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McCarthy, Thomas(trans.): Beacon Press.
-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1997), National Strategies and Structures for Infrastructure Protection, Report to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 Kafle, S.K. and Z. Murshed(2006), Participant's Workbook: Community-based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Local Authorities, Bangkok: ADPC.
- Kondo, T. and et al.(2004), "Development of Integrated Strategic Planning for

Earthquake Disaster Reduction: Participatory Planning Process and Plan Contents in Marikina City, Philippine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ty Planning.

Mapanjilwa Pius Mulwanda(1992), "Active Participants or passive Observers", *Urban Studies*, 29(1): 89–97.

McEntire, David A. Fuller, Christopher, Johnston, Chad W. and Richard Weber (2002), "A Comparison of Disaster Paradigms: The Search for a Holistic Policy Guid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3): 267–281.(to be obtained)

Mileti, D. S.(2002), *Disasters by Design*, Washington, D.C.: Joseph Henry Press.

Hughey, E.(2004), "Community Size and Response to Hazards: A Case Study of Falmouth Kentucky and the Flood of 1997", MA Thesis, Univ. of South Florida.

Laurie P.(2003), "Disaster Management and Community Planning, and Public participation: How to Achieve Sustainable Hazard Mitigation", *Natural Hazards*, 28(2–3): 211–228.

Lindblom, Charles E.(1990), *Inquiry and Change: The Troubled Attempt to Understand and Shape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avel, A.(1999), "The Impact of Disasters on Development gains: Clarity and Controversy", A paper presented at the IDNDR Program Forum, Geneva.

Mansbridge, J.(1994), "Public Spirit in Political Systems", Aaron, H. J., T. E. Mann, & T. Taylor(eds.), *Values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McLoughlin, D.(1985),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165–172.

Petak, William J.(1985),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3–7.

Petterson, J.(1999),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rograms on Local recovery from Disaster(Part 1 & 2)", *Natural Hazards research working Paper #102*,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Pickett, John H. & Barbara A. Book.(1991), "Day-to-Day Management", Thomas E.

- Drabek & Gerard J. Hoetmer(eds.),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 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 Putnam, Robert D.(1993), "Democracy, Development, and Civic Community: Evidence from an Italian Experiment", Keohane, McGinnis, & Ostrom(ed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on Linking Local and Global Commons,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derson, D.(2000), "Cities, disasters and livelihoods",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12(2), pp.93-102.
- Shultz, J.(1972), "The Voluntary society and Its Components", D. H. Smith, (ed.), Voluntary Action Research, pp.25-38, Lexington, MA: D. C. Heath.
- Sikorski, Melanie F. et als.(1999), "Designing School Volunteer Programs", NASSP Bulletin, January, pp.114-116.
- Smith, D. H.(1973), "The Impact of Voluntary Sector on Society", D. H. Smith(ed.), Voluntary Action Research, pp.387-399, Lexington, MA: D. C. Heath.
- Shaw, R. and Goda, K.(2004). "From disaster to sustainable civil society: the Kobe experience." Disasters, 28(1). pp.16-40.
- Shaw, R. and K. Okazaki(2004, eds.), Sustainable Community Based Disaster Management(CBDM) Practices in Asia: A User's Guide, Nagoya: UNCRD.
- Shrestha, Bijaya K.(2004)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in Kathmandu: A Community Based Approach. (www.icomos.org/iiwc/seismic/Shrestha.pdf)
- Topping, K. and M. Sorensen(1996),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http://www.sustainable.doe.gov/pdf/nature.pdf>)
- UNCRD(2004), UNCRD Tapestry: Defining the Past and Building the Future of CBDM, UNCRD Disaster Management Planning Hyo< Office.
- Victoria, Lorna P.(2002), "Community Based Approaches to Disaster Mitigation", Regional Workshop on Best Practices in Disaster Mitigation, Bali, ADPC.
- Vogel, C.(1998), "Paper on Disaster Management for the Poverty and Inequality" Report(PIR) South Africa.(<http://www.info.gov.za/reports/1998/poverty/disaster.pdf>)

WCED(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Yodmani, S.(2001), "Chapter 13 – Disaster Preparedness and Management" in Drtiz, Isabel D.(ed.), Social Prote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pp.482–502, Manila: ADB.

[일문자료]

内閣府(2006), 平成18年防災白書, 日本内閣府 (<http://www.bousai.go.jp/>).

河田惠昭(2006), スーパー。— 都市災害 から生き残る, 東京: 新潮社.

兵庫懸(2006), 自主防災活動事例集, 兵庫懸.

神戸市消防局(2005), 自主防災活動事例集, 神戸市消防局.

[웹사이트]

<http://www.colorado.edu/hazards/o/>

<http://www.fema.gov/pdf/library/thisisfema.pdf>

<http://www.fema.gov/library/stafact.shtm>

<http://www.fema.gov/library/strategicplanfy03.shtm>

<http://www.tallytown.com/redcross/ds/>

<http://www.PointsofLights.org>

[부록 A] 재해지역 인터뷰 기록

- [A-1]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김선정 소장 인터뷰
- [A-2]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김영선 이장 인터뷰
- [A-3]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영춘면 새마을회 총무 인터뷰

[A-1]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김선정 소장 인터뷰

- 일 시: 2007. 6. 6 11:30-
- 장 소: 강릉시 안목항
- 참석자: 권태호, 김선정, 오금호, 양기근, 이은애 (가나다순)

질문: 레크리에이션 시작은 하셨나요?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무척 좋은 것 같아요! 레크리에이션의 경우는 제가 그것을 생각한 이유가 작년에 이재민 관련해서 왔을 때 이장님 하소연해서 3년 동안 웬수 가 되었데요. 우리 동네와서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질문: 재난재해에서 주민통합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시 기초조사가 데이터가 없었나요?

기존설문조사 기초에 나오지 않았으며 2003년 이후 심리지원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심리지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싸움이라든가 많이 발생했다로 접근했던 거죠 작년 초인가 목원대학원교 심리치료 관련 비슷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강릉센터 와서 인터뷰도 했는데 그 논문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통합프로그램으로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제목보다 “재난지역 국민통합치료프로그램”으로 칭하는 게 옳을듯한데요

그게 맞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와서 서울대학교나 전문가들이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방재단원들이 같이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것을 배면서 … 평상시 상담이나 배움을 통해 프로그램을 을 하고 복구 후 6개월 시간 후 외롭고 하니 그럴 때 날 잡아서 프로그램을 할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럴 경우 자율방재단에게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레크리에이션 진행은 YMCA에 맡기되 같이 가서 어울릴 수 있도록 주민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축제가 되고 진행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이 좋은데… 사실 자원봉사자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감을 주면 혼란스러워요. 방재단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재난재해 시 방재시만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작업을 주게 되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죠 역할이 다른데 기능까지 같은 필요는 없지 않은가?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레크리에이션을 직접 배운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을듯하다. 시민 중 레크리에이션 좋아하는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다섯명 그런분들만 계속 그것만 관심 가지고 그런쪽으로 생각을 한거죠

질문: 레크리에이션보다는 이벤트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복구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연계하여 제안하셨던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서… 문화행사 위문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중에 프로그램이 복구하는 사람들의 심리치료하는 분과 연계하는 부분도 있겠고… 국민화합 프로그램으로 레크리에이션이 하나의 콘텐츠로 시민치료 문화행사 나눠서…

사실 우리가 그분들끼리 직접하는것도 있지만 가수가 와서 노래해주는 부분 남들이

봐서는 아닐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불암씨가 와서 손잡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이벤트부분이… 레크리에이션에 들어가는 콘텐츠로… 이런것들은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매우 바람직하지 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방재실무 회의의 경우는 지역방재단이 주체가 되는 부분이 방재실무를 리드하는 부분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강릉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마을 만들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센터와 시시민단체 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를 쉽게 만들었거든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꽃나무 심고 정자 만들고 숲 가꾸기로 끝났는데 지금은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몇 개를 정했어요.

윗동네가 청덕동이거든요 제가 직접 사업을 내서 그 동네 가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꽃길 가꾸기’, ‘차없는 거리만들기’사업이 들어왔는데 청덕동 내에 ‘참살기 좋은 마을’하고 ‘여성의 전화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마을신문만들기” 내용이 여성 관련된 교육 리더양성프로그램이 있고요. 여성의 전화에서는 지역리더양성교육, 센터에서는 주민자치복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덕동 재난재해에 자유롭지 못하며, 마을신문내 집어넣어 방재신문 넣거나 따로 만들거나 혹은 따로 만들기는 그렇고 한 면을 방재에 내용을 넣자

어제 회의결과 제목이 뭐더라 “주민이 살기좋은 창덕동 만들기” 지역단 구성이 마을주민리더들이 새마을, 센터, 지역부녀회 등 12명으로 지역대표로 구성되었고, 여성의 전화가 사업을 받고 지역단으로 넘어왔고 여성의 전화는 리더로서의 역할만 하고 마을신문 만들기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6월말까지 만들었어요. 4페이지 8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방재면 1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면은 너무 많고 고정란으로 해서 만들면 어떨까요?

아니지 우리지역 취약부터 해서 그것이 방재에 들어가면 들어갈 내용이 많죠! 주민 대피요령, 옛날에 당했던 사진, 복구활동, 올해는 이런 것 잘 합시다 하면 되죠!

질문: 자료를 보니까 요즘은 자원봉사를 단체로 한다는 데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주세요.

단체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봉사활동이 많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거예요 봉사활동 자체가 개인보다는 단체가 와야 하고, 그것이 센터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개인 간 봉사활동을 오더라도 그룹화를 시켜버려요. 혼자봉사활동 보다는 여러 명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질문: 단체와 개인의 경우 자원봉사 운영 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센터를 통한 개인의 경우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바로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단체봉사활동의 활성화도 바람직하지만 활성화보다는 조직화로 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은 단체봉사활동은 너무 많아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단지 활성화보다는 조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의 경우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활성화보

다는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개인으로 왔을 때 센터에서 그룹화 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질문: 개인과 단체 간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개인과 단체의 비율 2:8정도의 비율 1:9 정도가 되죠.

질문: 단체를 통하지 않고 오는 자원봉사자의 수효과적이 안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가 기존 조직을 통해서 교회조직 장로 쪽을 통한 자율적 수요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의 강릉의 경우 자율방재단으로 흡수되었죠. 그리고 파주센터… 나름대로의 단체들 간 시tm템의 경우 센터 통하지 않고 바로… 단체들 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를 통하지 않죠. 이슈화 되었다면 자원봉사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었죠. <중략> 그때 연루되었던 부분이… 센터는 후원금이나 물품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게 담요정도인데, 이도 순수물품의 경우 통보를 정확히 해주고 “이것은 저희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입니다”라는 식으로, 후원금을 그렇게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사실 그때도 여러 환경 이였죠. 센터 내 재난재해 관련해서 센터 운영의 재정적 비용이 전혀 없었고 도비로 100-200만원이 쓰였고 봉사자들의 욕구는 많지 식비해결이 해야 하는데, 돈은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센터가 운영으로 잡아 놓은 게 아니라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센터직원을 교육 할 때는 “자원봉사 후원금이고 물품은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 그건 참고가 있는데 왜 그것을 센터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나오는 데 물품들이 쏟아지면 또 물품중복이 되요

질문: 재해재난 자원봉사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것인… 도대체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를 조직적으로 복구활동을 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요?

해법은… 2002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이유가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구성되었으니까 강릉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평창을 가지 않습니까 직접 안가요 직접 가버리면 평창이 혼란스럽겠죠. 재난재해만 되면 면으로 연락을 하는게 아니라 센터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쪽 면으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센터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간다 보험가입 되어 있고, 자원들이 다 통보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보해줘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온다. 시간은 어떻게 되고,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한다…… 관리를 어떻게 한다.” 등등 가지고 있으면 그쪽의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 인솔 후 정확히 투입하면 혼란이 없는데 센터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센터를 통하지 않고 교회에서 수 백명이 투입 시 혼란이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혼란입니다.

서울에서 온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과천 안양에서도 직접 전화가 오는 게 그럴 때 봉사자들이 직접 전화가 와요 그럴 때는 과천시 센터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과천센터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으로 올 경우에는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단체로 올 경우에는 죄송한데 전화를 지역센터로 하셔야 하고 차량지원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연락을 하세요. 그쪽에서 몇 명이 오고 저희가 보험가입해 드

릴께요 못해준다고 그러면 도에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된단 말이예요. 이것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이예요. 이론적으로 자율방재단 유기적으로 공유가 되고…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열 곳도 안되요.

질문: 재난발생시 인적 물적 자원의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지역자율방재단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를 자율방재단의 자원봉사센터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실질적 업무는 센터가 되어야 하죠. 실무적인 업무는 센터가 해야 합니다. (간사역할로서)

질문: 그럴 경우 적십자 새마을 협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혀 상관없고요. 적십자나 새마을은 강릉 같은 경우 다 들어와 있어요. 이유는 하나 있어요. 저희들도 이거 만들 때 안전한 강릉 만들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분들을 끌어 들었고요 적십자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강릉에서 재해재난이 발생해서 집합하시오 했을 경우 집합시킬 수 있는 곳이 센터밖에 없고 새마을일 경우는 새마을만, 적십자의 경우도 적십자만 집합을 하죠.

질문: 새마을, 적십자도 같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법적으로 적십자는 일주일만 해야 하고, 적십자는 복구 활동이 아니라 구호활동을 하죠.

질문: 강릉같은 지역은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센터보다는 새마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강릉의 경우 센터가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었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센터보다는 새마을이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새마을이 중심이 되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새마을이 하게 되면 다른 단체가 안 온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재난재해시스템을 민간에서는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민간에서도 정부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반대 입장인 게 정부는 정부의 업무와 프로그램이 있는 가운데 관리자들이 있어야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그 중 간접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걸 새마을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쉬운 건 지자체에서 만든 게 센터이기 때문에 평창이나 인제도 자원봉사 하는 건 센터에서 했어요. 그게 바로 재난관리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자치행정과로 넘어 가요 자치행정에서 센터를 관리하죠. 이쪽에서 다 활동이 되는 거죠 이 기회에 관리자들이 많이 육성이 되어서 활성화 되어야겠죠

질문: 지역방재단의 인력구성의 특징은 어떤가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목메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 평상시 일반적 봉사활동 참여하시고, 재난재해 시 조직화하기위해 만든 거란 말이죠. 평상시에

는 기능단위로 묶어 놓았지만 재난재해 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상당히 유연한 조직이죠. 저도 시에다가 말하고 있지만 “자율방재단에 목숨 걸지 말아라” 시에서 집합하라고 하면 안 간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하면 다 온다 그건 자원봉사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 너무 공적인 부분이 개입하면 깨진다.

회의 및 교육 외 다른 비용은 절대 못쓰게 한다. 공적인 조직에다가 편입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처음 만들 때는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만들어 놓고 시청공무원들이 공적인 조직으로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길어지더라도 행정자치부 쪽으로 담당부서와 센터에 업무를 맡겨버리면 되고 센터 업무에 대한 지침을 재난재해 관련된 역량강화로 내려줘요 센터에 자율방재단 조직해라 안하면 안 되거든요. 안하면 평가할 때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안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분명한 것이 역할중 하나가 자원봉사센터가 재해재난관련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센터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죠. 실무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맡더라도 지원은 센터에서 해줘야 한다.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직영의 경우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다르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과 별반 차이가 없죠.

질문: 현장에서 하게 되면 에피소드가 많죠?

마을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리된 교육자들이 요사이 많이 와서 많이 줄었어요.

질문: 자원봉사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거죠?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재난재해 시 현장상황조사하고 봉사자들이 방재단보고 또는 시에 보고 시 요청에 의해서 투입되는 시스템 내부적 외부적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현재 강릉은 자율방재단 편입은 24개 봉사단밖에 되지 않아요. 인력을 다 자율방재단에 편입을 시키면 저희가 자원봉사 단체가 200개가 넘는데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인적자원이죠 지역조직은 자율방재단 전문은 전기기술, 보일러 인명구조만 두고요 인력이 필요하다면 외곽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조직화를 시킨 거죠 이런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죠

질문: 봉사활동 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난재해 시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보내주지 못할 때…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는데 현장에 갔는데 봉사자들이 없어요. 센터에 우리가 시에 “봉사자들이 필요한 곳이면 연락을 해라” 그런데 시관계자 분들은 필요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필요한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봉사자 좀 보내줘도 될까요” 하면 바로 보내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말을 안 하세요.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루사’때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대한 인지가 없었어요. 과연 니네들이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봉사자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그때부터 공무원들의 인식이 조금 바뀐 거죠.

질문: 현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왜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한테 올까”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면 봉사자들이 해야 할이 전부였고요 루사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벼도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벼만 세워주면 되는데 봉사자들은 농촌 들어와요 “보내줄 테니까 세워주세요” 동에서는 왜 봉사자들 필요한데 왜 요청을 하지 않으세요. “거기 다 포기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나온다. 자율방재단에 연락을 하면 인력이 있을 경우 바로 배치가 되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봉사자들이 해야 할 일인가 했는데 요즘은 바로 센터로 연락이 오죠. 센터가 동시에 자율방재단을 맡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 위험요인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원봉사자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역자율방재단 고유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봉사관리도 고유한 역할중 하나죠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면 센터는 왜 있어야 하죠.

질문: 자원봉사센터는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원봉사단체를 이야기할 때 먹이사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처음에 자율방재단에서는 새마을과 비교하면.. 아니다 당신들하고는 다른 보이지 않는 조직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원봉사센터까지도 포함되는 가상의 조직이 되는 거죠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역방재단 이름을 살려서 흔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이죠.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율방재단은 균형적인 조직이다.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지역자율방재단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자기업무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해 보십시오” 비상시에는 전체를 다 아울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상을 어떻게 소화해 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죠. 그때가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중 그래도 나온 방법이 조직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 놓고 전체에게 뿌려줘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질문: 굳이 무형의 조직이 지금까지는 센터가 그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가버리면 센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나요? 센터의 역할은 그럴 경우 다른 지역의 센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차원의 노력도 없고 자원봉사센터와 자율방재단 사이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없죠. 자원봉사센터는 평상시 지배적 조직이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는 재난재해 시 지배적 성격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지역적 특색에 맞게 가야하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저는 공무원에게 하는 말이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라 조직화되고 2003년인가 김천에서 그때 내려왔던 게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단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거죠.

민방위 조직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지 무슨 자율방재단이냐라고 그걸 조직화하면 되는 거지 업무조직에 다 나와 있거든요. 새마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새마을에 주업무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자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의용소방대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였고, 그럴 경우 관리자를 누

가 맡을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조직화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하든 활성화해야하는데 결국 니꺼 내꺼 찾게 되는데 조직으로 유연하게 두어야 하고 할 일을 두고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꾸며야지 이것이 유연하게 움직여서 무언가 되지 이것이 없으면 관리자 측면에서 백번 관리해봐야 일이 안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봉사활동을 재난재해 조직의 중요성에 의미를 두는가 활동을 하는 주체에 중점을 두는가의 차이점이거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든 조직이든 자원봉사 조직화된 시스템화 하는 것이 주안점이죠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데 민방위 조직과 다른 조직화하고 시스템화 해야 되는구나. 방재청에서 조직을 필요로 하지만 그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강릉의 경우 자율방재단은 더 이상 공적인 조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자율방재단에게도 우린 자원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개인봉사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율방재단 조끼입고 나가지를 않죠.

많이 관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센터의 일이죠. 새마을 조직은 재해재난관련 봉사 규모가 작다. 결국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일은 센터에서 해야 한다. 센터에서 그건 자율방재단 실적으로 봐도 되고 실적은 운영관리죠. 자율방재단운영 최우수 프로그램 센터내 자율방재단 운영실적이 충분하다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지고 센터장으로서 지원만하면 된다.

질문: 봉사활동의 잘못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강원도 평창 진부면 재난재해관련 봉사활동 네트워킹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만약 강릉의 경우는 그런 경우 오후시간이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갔을때는 기존 새마을 녹십자만 봉사활동 참여하고 있었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전 봉사단체가 수해현장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직장인까지 동원 현장배치가 이루어져야 했죠.

수해현장은 가구침수를 봤죠. 가구침수 평창 진부면사무소에서 만났는데 그곳이 시내지역인데 주거지역 침수였는데 면사무소 청소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거침수 상가지역침수인데도 자기 집은 자기가, 군부대 투입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부 민간의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수가 부족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과 연계가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의 경우 현장을 직접 들어가요 자기는 지금 자리에서 조직을 관리해야하는데 현장을 직접 들어가게 되면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와달라고 도와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인력은 없고 민간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매고 있고…

질문: 현장은 여러 가지 혼란으로 복구작업이 안되고 그 상황에서는 작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봉사자들 내려와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봉사배치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죠. 어디

에 전화를 해야 배치를 해야 할지 루사 이후 달라진 점이 없었죠. (2002년 루사 이후 달라진 점이 없죠) 똑 같아요. 평창군청에서 다시 진부면으로 자원봉사센터로 외부인의 경우…

자원봉사 현장은 면사무소 군 단위 자원봉사센터 위치 면단위까지는 인력조정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들어가는 현장은 면사무소거든요. 면에 필요인력이라던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그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면사무소 있는 곳인데요. 몇 명이 필요 하냐 우리는 자원봉사 필요 없고 장비만 보내주세요. 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면사무소에서 꾸려질 때 공무원과 함께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공무원이 같이 뛰어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문제점에 이상적인 모델이 지역자율방재단과 전문자율방재단구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휴대폰만을 가지고 요구 시 힘들죠. 읍면동사무소 자원봉사운영 동사무소 안에 공무원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만 비워주면 공무원은 봉사센터에 운영을 맡기고 즉 자원봉사관련 일을 전담해야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죠.

도시지역 자율방법대가 리더로서 역할 자율방법대는 기동력이 좋아서요.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는 일을 하게 되죠 쉽고 기동력이 있잖아요. 읍면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죠. 재난재해 등마다 30-40명 내외 구성되어있죠. 자율방법대 리더가 사람을 데려가고 그곳에서 이장들이 인력 투입하고 공무원들 상황파악만 하면 이상적이죠. 공무원이 할일을 민간인 이관이 바람직한 방향이죠.

질문: 교과서적 표준안이 있을 수 없다면 참고 될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것 외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후평가 사례 기록하는 등은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강조를 하죠. 평가에 있어서 나온 2003년 매미 이후 한번 했었고 폭설로 전라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행정기관하고 센터 이재민 봉사자들 각각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잘 안 하죠.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다. 재난재해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만 시켜봐라

질문: 재난재해관련 강릉센터의 홈페이지도 봤는데 공개된 자료가 없어요. 자료에 자원봉사센터에 자료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구해서 역량까지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은 기록하는 애들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누군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사례가 있고 우린 이런 사례로 성공과 실패를 통해 사례를 통한 기록이 매우 시급하다. 프로그램 진행의 평가를 위해서 결과를 남기죠. 그것이 자료실에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데이터에는 자료실에 미흡하죠. 프로그램을 담당자 및 외부에 노출 시 곤란한 것은 안 되지만 그 외의 모범사례로 보고서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작년의 경우 자율방재단활성화 회의했던 자료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교육할 때 사용을 했죠. 강원도포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 찍지 않나요.

[A-2]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김영선 이장 인터뷰

- 일시: 2007. 6. 6 16:30 -
- 장소: 인제군 가리산리 마을회관
- 참석자: 권태호, 양기근, 오금호, 이은애 (가나다순)

질문: 중심적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위주로 설명해주시고 피해사례 현장복구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배경이 되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05년 5월부터 생활민방위대를 편성 후 실제 민방위 교육을 했었고요 저희 지역은 지리적 환경은 설악산권내 위치하고 천재지변으로부터 위험한곳이죠 2005년 강릉지역에 발생되는 화재를 보면서 수해보다는 화재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죠.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하게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량전복을 통한 초기 화재발생하고, 아파트 어머니들이 완강기를 통해 탈출을 하고, 그 불을 산으로 번지고 부대에서 연락받아 오고, (119출동은 지상 이동으로 40분이 걸려요) 초기진압을 못하니까 대형화재가 되었겠죠. 마지막으로 헬기를 통해 물폭탄이 터지고 화재가 진압되는 훈련을 통해 천만 원의 상금을 받고 이를 450만원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마을이 길고 75세대 260명 정도거주 하는데 8곳에 스피커 설치 전기에 의존하다보니까 5분에서 15분내 초토화가 되었는데 울리려고 했을 때 마을회관 문만 열어주고 재난방송 가동하러왔죠 재난방송시스템은 기계 값만 지원되고 설치는 무허가로 이루어졌죠.

나머지는 무엇을 했는가 수화기를 실제 사용을 해보고 로프, 들것, 확성기, 무전기, 구호품세트까지를 포함한 민방위용품을 샀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구입한 구명조끼, 로프가 재해 시 가장 많이 쓰였고요 요긴하게 사용된 것이 무전기 생활무전기 사용이 되었죠. 무전기의 경우 훈련을 했는데 2006년 4월 가리봉을 등반을 통해 무전기를 통해 청년회장을 마을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하면서 하루 동안 43명 4개조로 나눠서 훈련사례가 있었죠.

질문: 또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까?

2005년부터 반상회를 하면 잘 안 하잖아요 반상회를 재미있게 “3사람 칭찬하기 운동” 의무적으로 해요 5개 반 중 군부대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4반의 반상회만 하면 칭찬을 하고 진행을 해요 어색하지만 1년 정도 지나자 칭찬이 정착 되었죠. 제가 선물을 드리면 실제로 선행을 베풀었던 분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위 두 가지 배경이 수해복구에 있어 싸우지 않은 배경이 되었죠. 2006년도 7월 15일 날 발생하고 나니까 다 끊기고,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군부대로 대피를 했었고, (군부대 대피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민방위훈련도 같이하죠. 매년 봄에는 부대초청 들어가고 가을에는 청년회 주관이 되어 체육활동 같이하고 농번기 대민지원에 나오고 마을 행사 군부대 초청하고 군부대와 관계가 좋았죠.

군부대 낯설고 불편한 게 아니고 인제군 신활력 사업으로 마을교육을 시켰고 제가 마을교육1기를 수료하면서 마을의 스왓(SWOT)분석 인적자원 자연환경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군부대가 일종의 위협요인 이였는데 기회요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2005년부터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2006년도 수해 때 군부대가 그 역할을 그대로 해줬죠.

저희 주민들 중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가 203명 평상시의 150명인원이 그곳으로 대피를 해요 무엇이 좋은 것이 있었는가 하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었죠. 보통 6시간 걸어서 계곡을 건너고 상류지역에서 돌아서 이동 젖은 옷 군부대 옷으로 탈의했고 군부대 4일 가량의 비상식량으로 주민들이 먹고 사병들은 전투식량을 먹고 그리고 내무반으로 주민들이 들어가니까 군부대 텐트 생활로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했죠.

그 당시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오지마을의 유선전화기 한 대의 효과는 어마어마했겠죠? 실제 재난 발생시 군부대 유선전화기 통해 중앙 119, 군부대, 인제군 파견공무원2명, 저 상황전파를 전화기를 통해 해결했고 유선전화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었고, 그 다음 발생하는 것이 구호품인데…

질문: 구호품 문제에 대해 상세히 경험한 대로 말씀하시면...

아직까지 저도 힘든 게 일부분인데 왜 재난이 발생하면 재해구호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을에 와서 늘 있는 일인데, 17일부터 길이 뚫리니까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16일 마을을 한 바퀴 돌았고 17일 날 매일같이 6시에 회의를 했는데, 자리에 모여서 7명 팀장을 만들었어요. 실종자, 차량관리, 구호, 물품, 수송, 급식, 보건 팀장, 7개 구성을 만들고 잘 따라 주었죠. 무전기 각 마을 고립상황 파악 실종자 수색대를 다하는데 군부대 무전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것 보다 성능에 있어 좋지 못했고 최소 비가 오면 1km 안나갔는데 저희 생활무전기는 생활무전기 6-7km로 수색활동에 있어 실제 수색활동을 같이 했죠.

필요했던 건 자원봉사자 오는데 마을에서는 항공사진에다가 마을 자연부락을 그려주면 지형도를 보고 자원봉사가 오면 조직이 있잖아요. 실제 드렸어요. 많이 올 때는 850명이 왔고 매일 같이 평균 200-300명 정도 왔는데 일일일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형도에서 가구 수만 표기하고 여기는 전파유실 여기로 몇 명 그 종이 한 장면 주면 거기 계신 팀장님이 관리를 해줘요 도배할 집이 있다면 어느 집에 몇 명 무착 편했었고 지형도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고급인력이 상당히 많이 오지만 적시적소에 정확한 안내가 부족해요 단 마을이장은 마을상황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오시는 자원봉사자분과 미팅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냥 삽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깝죠.

전국 재난재해에 대한 매뉴얼, 이장의 매뉴얼, 자원봉사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전기전문가, 건축전문가 그런 표찰만 마을에 몇 개 있다면 칠판에 의사표시만 해주면 거기에 동구라미만 해주면 오늘 오신 자원봉사자분은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어디에 배치하면 되겠구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급할 때는 그냥 무작위로 보내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뭐뭐하시는 기술자 있나요” 찾아서 뭐

하고 그게 하루밖에 안되죠.

가장 안타까운 건 물자에요 언론은 산더미처럼 쌓인 물자를 찍어서 내보내면 그렇구나 인식되지만 실제 그걸 집이 파괴되었는데 그걸 보관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배낭하나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고령화 된 분들에게는 짐이죠. 목숨하나 건져온 사람에게 보따리를 주고 도로는 망가진 상황에서 구호물품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공중투하를 하죠. 최소한 필요한 것만 오는데 공중투하로 부탄가스가 오죠. 그러나 가스랜지가 없죠. 부탄가스가 들어올게 아니라 거기에는 군대식으로 최소한 담요, 우비 하나 이동의 불가능한 상황시까지 개천의 물이 범람했고, 필요한 자기 집 처마에서 산속에서 대피를 했어야죠. 가장 기본적인 것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구호물품으로 와야죠.

구호세트가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에서 나오든 구호단체에서 나오든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가장 괜찮았던 건 이랜드에서 나온 것이 괜찮았고… 실제 구호품 초기 지원이 많이 아쉬웠던 건 아기용품, 여성생리대가 없었던 것인데… 물티슈, 실제 저희 주민 외에 관광객 50명 추가되었는데 그중에 어린아이가 (등이 업힌 어린아이) 5명 분유를 먹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분유를 구하지 못해 (분유도 소규모 포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초기 구호세트였고요

작년부터 계속 원한 건 왜 물건에 시달려야 할까 전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다가져 와요. 물, 라면, 부탄가스 쌀… 이건 아니고 자체단체 이름의 통장이 개설되면 그쪽으로 돈을 넣어주고, 인제군 내에서도 피해규모, 피해형태가 달라요 (그곳에는 대형 건물이라도 있어서) 그곳에 필요한 것이 달라요 저희들은 초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텐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똑같은 물건이 오니까 보관도 어렵고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에 맞는 지급을 하고 그것을 감사를 확실하게 하면 오히려 김제군 경우는 물자관리에 50명이 투입되었고, 그밖에 지원차량까지 생각하면 엄청 났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전라도에서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하면 수해현장 물품이동차량 치어서 11시 12시에 도착을 하죠. 그건 분명 구호품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구호품은 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자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쇼핑차를 마련해서 마을에 넣어주면 그런 경우는 더 좋죠. 그런 비슷한 사례인데 순수한 자원봉사차량이 세탁을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가 아닌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었죠. 전라도 전주시에서는 텐트를 치고 테이블이 펼쳐지고 200명 식사를 위한 버너장비가 1시간 내에 펴지고 먹는데 너무 고마웠죠. 이것 또한 정부차원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이죠.

가장 문제는 지금까지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이 죽은 건 수색을 하는데 경찰 의경에서 같이 수색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랬어요. 현장까지의 접근성의 문제인지 몰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땅에서 꺼내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없었어요. 저희는 동네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군가 와서 그것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마을 청년하고 군인들이 그 일을 했는데 군인들의 경우도 사병이기에 같이 가는 것만 허락하고 더 이상 시체 가까이는 접근하지 못하게 했죠. 순수한 마을 청년만 가지고 그 일을 했죠.

처음 발견한 사람은 장비가 없어서 야삽을 가지고 8시간을 돌하고 나무하고 쌓인 틈에서 사람을 꺼내야 하니까 그게 보통일이 아니더군요. 피해지역의 인명을 구조할 때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건 헬기타고오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결국 그런 작업들은 초기에 발견한 인명구조의 경우 소나무를 잘라서 가교를 놓고 구명조끼를 입히고 확성기도 있고 물품도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없는 지역은 가교 설치 후 붙잡고 나와야 했던 문제가 있었고요.

실종자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람이 내려올 줄 알았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10분내 20분내 내린천 유입은 어떻게 되고 토사량은 유입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실제 요구했지만 소방방재청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었고요

질문: 심리치료사는 어떻게 적시에 도움을 주었나요?

16일 마을을 살펴보고 17일 날 유선전화가 와서 군청에 요구한 게 심리치료사(정신 상담사)를 요구했는데 준비된 인원이 한명도 없었어요. 다행히 저희는 2006년 원주 기독교 병원에 농업자세 분석해서 왜 농부증이 생기는지를 연구하고 있던 병원 도움으로 상담사가 하루 오고, 군부대 군의관 양방 한방 상담하면서 마사지하고 침 맞고 학교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담자 교육 중에 계신분이시라 학교에 계신 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위기를 넘겼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18일날 길이 뚫리고 포크레인 장비를 30대가 와서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집을 잃은 두 분이 의견이 충돌한거예요 “너죽고 나죽자” 사건이 발생한거죠 그런데 3시간 전 준비를 했었어요. 주민들 살펴 보니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래서 심리치료사를 요구했고 3시간 후 사건이 터졌다. 결국 칼을 뱉고 치고받고 싸워 코빼만 부러졌는데 그러기를 일주일이 지속되었고 일주일 되기 전에 제가 했던 게 부대에서는 군의관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상담을 하고,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모인 회원들끼리 리더 교육에서 배웠던 레크리에이션을 써먹었어요. 손을 잡고 서로의 안부 물어주기, 죽은 사람들을 위한 묵념, 서로 악수하고 잘해보자고 격려도하고… 그러던 차에 가장 감동 받은 건 수해 후 회의를 하는데 어머니 한분이 “오늘 같은 날 3사람 칭찬하기 운동을 왜 안하는가?” 사람들이 구호세트 하나 때문에 싸우러 왔다가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그걸 온지도 모르고 다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울었죠. 이게 방법이 잘못되었나보다 그로부터 내 욕구는 죽이고 상대방 얘기를 듣는데 열흘 지나서부터 제가 써먹은 게 뭐냐면 자원봉사자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일일이 동영상편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수해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일들 자원봉사자가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것들 넣어서 내가 본 것만 믿잖아요. 내 욕구는 적고 상대방 욕구는 잘 되어 보이고 사람들을 가라앉혔고 다행히 7명의 팀장들이 잘해주었고… 다른 마을과 차별화 된 게 뭐냐면 물품 내역이 있어요. 지금내역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인데 수제의 연금이 돈인데 와서 보면 돈이 필요한 것이 보이잖아요. 종교단체의 경우 현금을 이장들에게 주고 가는 겁니다. 그걸 매일 공개를 해요 매일 8시마다 공개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공개하고 통장개설하고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조용해졌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마을에서는 지금도 그 대한항공 돈도 그 마을에만 준거죠 다른 인근마을에서도 500만원씩 나눠준 거죠 그러나 저희는 집을 잃은 마을에게 주라고

준돈은 함께 수령해서 함께 주었죠.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제가 서명을 받았어요. 이건 누가 준돈이고 16명 싸인을 받았죠.

마을로 온 돈은 제가 다 적금을 했어요. 1억 5,000만원 중학생들 장학금하라고 천만 원주고 마을 회관 필요할 때 쓰려고 천만원 남겨두고 나머지는 같이 쓰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의 피해규모는 1이고, 나의 피해규모는 10인데 너와 내가 받는 금액은 달라야지” 이렇게 된거죠. 정부에서 주는 돈이 너무 획일적이죠. 전파 반파 가장 억울한 건 세입자 죽으나 사나 300백만원 밖에 없으니까...

구호품이 오는 건 내역이 있으니까 전달해주면 되고 TV를 21인치 받은 사람이 와요 누구네 집은 29인치던데, 그거 해결하는데 20-30분가죠 다음에 물건이 올 때 당신네 집은 큰 걸 드리고 다른 집은 작은걸 드릴게요. 그런 것까지 내역에 적었어요. 중요한건 그런 짚은 인적자원이 없는 산골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늘에서 방송을 할줄 알았지요. “길이 뚫리면 당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고 필요한 물자는 언제 (언제) 공급해 줄 것이다” 방송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군청에 보고 후 돌아오고 난 후 헬기 그게 18일날 헬기가 왔어요. 저도 열 받았고 주민들도 화가 날대로 났죠. 군수가 사람이 7명이 죽은 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실이 너무 안 돌아갔어요 누구든지 상황전파를 받으면 그걸 기록해야 하는데 20일까지 3집 침수였어요. 그리고 초기 방송국에 촬영한 후 실종자 자막으로라도 넣어라 얘기를 했는데도 5일이 지난 후에도 상황이 통보되지 않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2007년 6월 22일날 훈련 계획 중인데요 작년에 상황에 버금가는 훈련을 다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군부대 헬기 지원받아서요. 고립된 사람 구출하는 것, 가교 설치, 무전기 사용하는 것 비상연락망 체계를 다시 만들어놨어요 1번이 2번 2번이 3번... 이것도 22일날 통합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하려고 하는 건 이건 주간이었으니까 이정도지 야간 이였다면 마을주민의 2/3 죽었을 거라고 가정하거든요 초기에 내가 탈출을 할 때 어디로 탈출을 해야 안전한가? 그 자연부락이 날이 흔해지면 한곳으로 모여 있다면 거기로 헬기를 보내서 구해내는 방법 이렇게 하고 군부대로 대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군부대의 경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떤 위험요인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22일 날 훈련할 계획이죠.

관의 수혜복구에 투입되어서 제2의 위험요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맡고 있는 부서도 막혀있고요 군과 마을과의 협조로 이루어지고요 마을에 와서 보셨겠지만 복구가 끝났음으로 알고 있지만 응급 복구외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제군의 경우 1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수해관련 공정률은 15%만 된 것으로 보여줘요 이런 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방재청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일은 지자체에서 해요 평시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편재가 바뀌지 않았죠.

특히나 염려 되는 게 토목계와 하천계 인원 2-3배 이상 충원이 필요하지만 수해복구 업무도 안 되지 거기서 시기에 맞는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쌓이고 쌓이겠죠. 주민들의 욕구는 잘 때까지 갔어요. 이런 시점에서 복구를 못해서 제2의

장마철에 사고가 났다가 정부를 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 일놈이 되는 거죠.

엄청난 예산에 대한 조화 공사로 토목계 하천계는 같이 가야죠. 현재 천 옆에는 도로가 있어요. 이걸 복구해주는 시기가 달라야 해요 저희는 인제군 내에서 가장 늦게 복구작업을 했어요. 그 시작은 인제군의 수해이후 항공사진 촬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요 38선 이북지역이니까요 자료를 보게 되면 국정원에 보고를 해야 되요 그 사진만 보면 인제군 수해지역 상황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데 그걸 못보고 발품을 팔아요. 사유림 도로3 하천2 등 공무원들이 세 팀이 나오죠. 수리시설 따로나오고 가옥수리 따로나오고요 공무원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지쳐요 하다 지쳐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재난 재해 선포가 되면 복구 순서는 어떻게 된다.

하천 도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었고요. 제가 가능했던 건 우리는 다른 마을과 다르게 농경지 복구를 늦게 하자 농경지와 다른 곳은 복구가 될 것이고요 농경지는 제일 늦게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마을의 경우 농경지를 먼저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복구된 농경지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도 정부차원의 통제가 필요했고요 그런 동영상은 앞으로 발품을 팔아서하는 시대는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다

저희는 다행히 저는 8월 5일자로 강원발전연구원을 갔어요. 수해를 딛고 일어선 모범사례마을이 되고 싶다 어마어마한 복구 예산이 올 텐데 이것을 환경단체도 좋고 주민들의 욕구대로 복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왔고요

인제군에서 이곳만큼은 주민들 욕구대로 복구사업을 시행해보겠다고…… 그러나 아직 힘든건 국립공원 국유림은 자치단체보다 급수가 높아요. 그래서 말을 안들어요 댐을 지어도 마을사람들 저는 사방공사 하고 사방댐은 도산림정책관 녹지과장하고 경상도를 2박 3일 견학을 갔었고 대한민국 강원도에 맞는 사례를 만들자 그래서 설악산에 나중에라도 불이 났을 때 저수지댐을 하나 만들자.

질문: 사방댐 이야기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그런 곳은 다 국유림이죠. 제가 요구한 게 협조를 해서 인제군에 90몇개의 사방댐이 들어와요 저희 마을에만 23개의 댐이 들어와요 23개가 똑같은 댐이 아니라 보통 6가지의 댐이 있는데 골고루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유림에 대한 사방댐은 되는데 국유림에 대한 사방댐은 안되는 거죠. 00지역에 이상하게도 국립공원을 자기 멋대로 했는데 인근의 여섯 가지 댐을 한눈이 볼 수 있어요 그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걸 누구나 전문가라면 10개 들어간 자리에는 2-3개면 끝나요 그런 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에 예방해야죠. 집중적으로 국립사유가 별도로 예산을 써버린 것이죠. 이건 예산낭비죠.

도로하고 하천이 부서가 달라요 한꺼번에 뮤어야죠. 공사를 하천의 법면이 도로의 법면이 되죠. (그러면 하천 공사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빠진 부분도 있고, 겹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걸 동네 이장이 해결해주는 거죠 행정전문가도 아닌 동네 이장이 이런 일을 해결해 주는 거죠

소방방재청에서 이번 복구는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옹벽을 세웠어요. 다 조적 쌓기예요. 그러면 작년부터 제안했던 게 전석물량하고 수혜복구물량하고 대비를 해야죠. 그에 맞는 물량을 수해복구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특히 그 지역에서 난 것을 사용해야 운반비가 덜들죠. 저희는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다른 곳의 전석 쌓기 물량을 보고 추후 전석쌓기를 하든 다른 공법을 쓰든 시공업체들을 설득시켰죠. “그것은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인근마을에서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다가 저희 마을 것을 사용하다가 제가 공사를 못하게 했더니 인제군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 전석쌓기 조차도 이장이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죠.)

적어도 지금 방재청에 요청 하는 게 농촌 어촌 산촌 도시 중소도시를 책임질 수 있는 지휘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산촌 빠르게 획일적 일관성이 있을 텐데 저희가 받은 구호품세트는 전국이 똑같아요. 지역특성이 반영이 되지 않았죠.

자원봉사 3개월에 끝났어요. 3개월 후에 자원봉사 오신 분들도 없었고요 처음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포화상태로 그걸 관리하는 이장도 힘들었었고 오신 분들도 섭섭하다 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에 치어서 간 거죠. 피해규모에 맞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필요 했었고요.

재해구호협회도 좋았던 게 상품권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기간을 길게 2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쿠폰을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한달짜리 상품권의 경우 150만원의 돈을 한달내에 써봐라 한달에 10만원을 쓰는 사람에게 한달내 150만원을 쓰라고 하는 건 엄두가 안나죠 안 해본 일이니까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1시간 만에 천막을 치고 전주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잘 때는 분무기 고압분무기 텐트치고 ... 의료행위도 너무 많아요. 약이 무리하게 공급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의료 행위한 다음 환자 기록 같은 건 없죠. 그런 것들 상당히 필요한데 처방 같은 것도 필요했었죠.

질문: 6월 22일 마을과 군부대만 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나요? 시청 대표자만 이라도 참여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요?

관에는 종합적인 문제예요 어느 산골 마을의 사례잖아요 제가 이건 마을에서 할것이 아니라 보고된 이후에는 행정에서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스트레스죠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관이 못해주니까 동네이장이 해야 하고 산골마을에 이장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이장이 다해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민원이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주민들은 가서 의사전달을 할 때 자기 것 만해요. 최대한 수혜현장의 어려움이 그거예요 마을 슬로건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알아서 대처하자” 그 뒤로 벌어지는 일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이장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사람 죽은 건 묻으면 되고 집 무너지건 새로 지우면 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내 속내를 보여 준거야 부끄러운 거야 내 것만 챙기던 것이 일주일이나 공개 된 거죠.

어떤 예가 있냐면, 오늘 쌀 20kg를 가져갔어요. 내일 또 와요 우리 청년들이 아니 20kg를 하루에 다 먹었어요. 이게 인사에요 제가 보고 우린 이렇게 하면 안된다 어

른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그분 심리를 이해를 해야 한다. 뭔 일이 날줄 무언가 챙겨야 살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어르신 어제는 그거 갔잖아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걸 드릴게요.” 챙겨 보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막 그렇게 했는데 전국의 통장 이장들이 알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품 하나 가지고 사람을 달래주는 방법… 가장 큰 건 홍분된 사람들을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이시대의 이장은 민방위 대장이 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하죠. 그것이 최고로 가장 큰 어려움을 푸는 중요한일이다. 이장님들은 이해를 하지만 통장님들은 이해를 못하셔 왜 자원봉사센터 가까우니까…

문화가 다르고 생활환경이 다르기에… 통장의 경우 “이장이 그런 일까지 해요. 고생많이 했네요” 이장들이 다 동감을 하죠. 그러나 통장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소방방재청 방재청에 와서 교육을 해라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관리 6급 공무원에게 한 번했는데 당장 6월 달에 3번 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재청장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큐멘터리 촬영팀에게 방재청장이 방재청이 욕을 먹어도 좋으니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 보자 7월 달 방영을 해보자로 말했다고 하네요. 잠깐 찍고 자세하고 할 내용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질문: 가리산에서 경험했던 걸 세세하게 다 기록에 남기려고 집중적으로 와서 조사하게 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죠 저희는 하나의 사례잖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와서 계속하고 다른 자료조사하고 인제구청 돌아다니고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드는 건데 저도 들으면서 현장 많이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생생한 경험이거든요)

질문: 일년이 대략 지났는데요. 주민간의 이웃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제3자의 입장에서의 좋아졌고요 어떤 것이냐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문을 구해서 하천의 제가 현장 설계를 해요 저도 정답은 아닌데요. 전문가들이 보고 “거 괜찮네요”라고 말을 해요 법면정리는 어느 정도나? 바닥은 평평해야 준공이 되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개울에는 돌도 있어야 하고 수해 이후에 살아야 되는데 사방댐이 있으면 그만큼 토사가 유출이 안될 꺼 아닙니까. 징검다리도 좀 놓고 지금 문제는 친환경정화를 하라고 했더니 돌망태예요 그건 사람도 짐승도 못 올라가요 그것이 짧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석쌓기는 농경지에서 천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지역은 그 말을 들어요. 귀찮은 일이고 사실 별것도 아닌 일에 들어주는 것이 고맙죠. 만약 징검다리를 놓아주면 징검다리 앞에 농사에 필요한 농수를 확보할 수 있고요 제가 몇 차례 시공업체들을 불러서 이야기 했을 때 다 그렇게 해주셨고요 소하천공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천에서는 수변공원을 세 곳 설치하려고 인근마을도 다니고 인터넷도 보고 수변공원이 예산에는 없지만 수변공원을 세 곳 정도에 놓으려고 하고요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국립공원 바로 밑인데 아래쪽은 농경지와 이어지는 데요 인근군부대 야영 및 관광객들도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안전하게 무릎높이까지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좋은 사례죠 그분이 왔을 때는 준설만하면 되요 물 지나가게

그러나 설계방침을 굽이굽이로 바꾸었죠.

질문: 수해가 처음이죠. 수해 후 마을주민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졌는지, 이와 비슷한 수해 발생 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으로 보나요?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돈돈해졌는지. 사람이 해결하고 시간이 해결한거죠. 투명한 구호물자 제가 고마운 건 이런 거죠. 집중적으로 돈하고 물자가 가는 건 전파된 사람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니까 이들의 주거는 전파가 되었으니까요 텔레비전 냉장고 콘테이너 받은 집에만 와요.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대피해 있는데 달란 말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계속 기다리죠. 나도 전파되었으니까 뭔가 올 거야. 선풍기가 한집에 5-7개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받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 선풍기가 있어요. 제가 돈을 받았잖아요 물건으로 도와주겠다는 사람에게 명함드리면서 “저희를 돋고 싶으면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그 돈을 1억 5천까지 모았죠. 물품이 오면 75세대에 맞게 물품이 안 오잖아요. 50개 정도가 오면 나머지는 그 돈 가지고 25개를 사 가지고 와요 그렇게 했더니 주민들이 불만이 쌓일 이유가 없죠.

생필품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공급을 했고 생선 배달까지 해봤는데… 공산품은 갯수가 모자라면 필요하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죠. 돈을 가지고 오랜 시간 회의를 했는데 호당 100만원씩 다주고 피해규모는 다르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립된 고통은 다 똑 같은 것이 아니냐 단지 사람이 죽은 경우는 다르죠. 그리고 침수이상의 실제 피해를 본 경우는 20만원을 추가해서 주었죠. 그리고 나니까 주민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죠.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내 집 앞에 기반시설이 없던 곳에 다른 마을에 있는 것 논농사 짓던 곳 밭농사로 바뀌었어요. 논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에 잡혀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금액으로 달라 공무원에게 주민들의 욕구 지목상 복구비 개천은 아무도 복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중에 사람살고 있는 근처만 일곱 곳을 용도를 바꾸었죠. 지금 평창이니 인재가 어려운 게 바로 이부분이에요. 수해 때문에 집단이주를 하는데 20집이 그 당시에는 제가 하천하고 도로를 예산지역까지 해서 20집을 옮렸고요 당장 관에서는 당장 피해본 집만 옮린 거죠. 그리고 환경평가 때문에 3,000평이 넘어가면 안 된데요 농촌의 100평은 말이 안 되죠 이건 1년 지나면 문제꺼리야 그래서 관에서 3,000평 하고 마을에서 1,600평, 그래서 4,600평 마을에서 집단이주를 하고 있어요.

이달부터 착공이 들어가는데 20집이 딱 맞는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예방이 잘 되었죠. 다른 마을과 차별화되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나가면 “하천도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 동네주민으로서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6월 22일 훈련은 아직 시나리오가 안 짜여졌지만 그것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우리는 훈련하면서 헬기한번 타봤어” 하면서 좋아 하겠죠.

지금도 보면 관이 재난재해대응책이 미흡 했었고요. 복구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별도의 기관에서 수해지역의 욕구를 듣기만 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요 와서 보신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안 되고 수해마을에서 나라를 칭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

야겠죠.

질문: 수해기간 동안 센터가 자원봉사자를 보낼 때 제 역할을 잘하고 있었는가?

인제군 관과 비교 시 잘 되었는데요. 인원충당이 아쉽죠. 인제군의 전직공무원들이 그만 두신 분들이 비상체계로 들어가고 군에서나 경찰에서나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고급인력이 군청으로 동원되어 들어가고 군청공무원들이 항상 대기할 줄 알았어요. 현장 마을에서 진두 지휘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16일 와서 17일날 간다는 걸 달래고 달래서 2박 3일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 게 너무 아쉽죠. (공무원이 오면 안정이 되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도 도시읍내에서 팬찮은 분들이 자원봉사참여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자원봉사기구는 덜 힘들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초기에 인근 마을에서 청년회 자발적 물품을 수령하고 자율적 인근마을 피해가 적은 마을에서 도움을 주었는데 평시에 도시가 되었던 인근마을이 인근마을의 구호체계를 어떻게 할지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제군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84개 마을에 대책이 있느냐 없다는데 만들어라 (대책을) 그러나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죠. 민방위 훈련을 해본결과 시나리오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건축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는 리모델링 관련되는 분들이 알려주면 서울에서 폐기처분된 것을 받아왔고요 그런 것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녀가신 분들이 관련되는걸 알려주시고 가면 저희가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도로가 지금도 농로는 시멘트 길이지만 일부가 끊기고 전체를 복구를 다해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시멘트를 깨서 이걸 농경지 법면에 써요 그러니까 깨진 부분끼리 물려서 거기서 풀도 나고 나무도 심고 그러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 해보려고 하니까 이건 불법폐기물 처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업자하나 잡아서 이거 폐기물로 잡지 말고 나에게 돌려서 내개 농경지 어느 곳 한곳 시범으로 만들어보고 이건 팬찮을 것 같다고 추진하려고요.

농경지 법면에 조작쌓기를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걸 왜 못하게 하죠. 농경지를 부동산에서 말하는 필지로 만들어 놓은것 같아요. 불법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되니 분류되어 법면을 못하게 하지 않는가.

질문: 마을을 생태마을로 만들기 위해 호주 다녀오신 후 그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생태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평당 가격이 500대에요. 그것은 못했는데 그나마 그때 한 것이 기반사업을 200평씩 맞췄고요 집만 짓게 되면 집 옆에는 다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산촌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전원주택 택지 축사정도는 못들어 오지만 농촌에 필요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보자 제가 원했던 건 사방댐이 몇 개 들어오니까 사방댐의 수력발전의 경우 마을회관이나 공원에 가로등 해보려고 했고 가장 크게 욕심냈던 게 정화조를 빗물저장 후 그것을 써보고 지렁이 좀 넣고 분해해서 걸러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행정이 전혀 안되요.

행정은 조기공사 조기 복구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잖아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로수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여기는 획기적인 것보다 제각각 집을 지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림이 나오게 이것이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구나. (싼 집은 못짓게 해요.)

태양열 지열을 통한 건축행위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을 상대로 편지를 보내서 우리 마을에 한집에 한 기업씩만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지붕 위 로고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집집마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조심스러운 게 사람들의 욕구가 무서워요 4,600평 처음에 택지개발을 했고 제가 말한 건 일단 10집만 들어가라 귀농인을 넣자 우리 마을이 잘되려면 귀농인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귀농인으로 받자 처음에는 좋아하시더라는 것이죠. 추진을 했더니 이 사업만큼 이걸 더 사겠다는 것이죠. 조건이 우리에서 끝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공원만 하고 못했어요. 생태건축 설계도까지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 국유림에서 협조를 받았는데 주변에너지 잘 써보자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속내를 보고는…)

생태건축의 경우 경제적으로 생계쪽을 끌고 가면 얼마나 한집에 돌아올 수 있다 등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위험요인 기회요인으로 돌려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재난방송 시스템을 갖춰요 제가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그것이 방송이 되는 걸 2개설치를 할 것이고요 초등학교가 저희가 폐교위치까지 갔는데 700만원대 발전기 한 대만 들여놓으면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기만 공급해주면 온돌 온수 나오죠. 앞으로 학교를 계속적으로 대피소이면서 문화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숙원사업이고요.

저희는 군부대와의 협조가 잘되었다고 강원도지사가 1억원 인센티브를 내려주었고 이것을 가지고 체육공원계획하고 있죠. 초등학교 학생들, 군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죠. 관광객들도 쓸 수 있도록 하겠죠.

국방부 재난재해 재난 상황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은 당연하다 군부대 지원 시 추후 금액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군납으로 금액산정 후 사회지출 공중 급식계산의 예산을 군부대 정산을 해주었죠. 그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부대로 대피했다 먹었다 그러면 바로정산을 해줘야겠죠. 이장님의 경험 전부다 녹취를 해서 후속배경을 다 담아서 다 검토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내면 매우 가치 있을 것 같아요.

군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넣었으면 좋겠어요. 수해기간이나 어린이음악회 사진으로 수해 시 (70년대 군부대 들어오면서…)하천부지 내 무허가 건물 2005년 후 하천에서 사망을 하셨던 거죠. 정부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강력해야 한다. 하천에 사람이 살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쉽죠. 농경지복구 농경지내 개토사업 불법개발행위를 하니까 농경지가 유실이 되는것이죠 농경지 확장을 못하게 하니까. (연령대 30대1분, 50대 1분, 90대 2분, 60대 2분, 30대, 50대까지)

질문: 심리치료 문제가 주요한 데 수해를 겪은 아이들은 어떻게 된가요?

비가 오면 아이들이 “부대를 갔기 때문에 사는 거야”, “비가 오면 엄마 우리 부대가 야지” (위령제) 실종자 수색 위령제를 지내고 나서 난 이렇게 살았는데 넌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난 후 복구 작업을 한 것이죠. 사체가 나왔을 때 방재청 관계자분은 접근 못하게 해라 당신들이 해줄게 있는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방재청이 롯데월드 다녀오고, 방재청장까지 만나고 오고. 작은 음악회 촬영도 하고, 국립중앙 예술단체 군부대 함께 웃음도 주고 하루 정도 웃고 했던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질문: 수해복구 후 산촌의 모양새 (도로) 등이 바뀌지 않았나요?

도로선형이 바뀌었고요 농사를 지울 수 있는 하천은 수변공원을 만들기로 했고요 왜 강원도 인재 내린천을 청계천처럼 복구하려고 하는가. 시공업체의 천만큼은 주민들 요구를 적극 수용함이 고맙죠. 전 시골로 귀농한 사례인데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지 못 한 것이 시골인데요.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농촌을 농촌답게 해놨을 때 (그러나 그 소유의 70%는 외지인 그 소유주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덕정리 민원발생 인제군 인제읍에서 죄연소고요 그분도 40대 세요 하추리... 수해복구 이후 체육대회 “이 천(川)을 상대로 같이 살아보자” 외지인과 협조가 잘되는 모든 농촌의 문제가 하추리는 원주민의 고급인력을 매우 잘 이용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수해나기 전부터 자리를 하나씩 주었으니까 정신교육담당 자리를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주니까 잘된다.

[A-3]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영천면 새마을회 총무 인터뷰

- 일시: 2007. 6. 16 1100-1330
- 장소: 단양읍내 레스토랑
- 참석자: 권태호, 박희, 장경성, 조지화, 허영 (가나다순)

배경설명

총무님: 제가 알기로 거의 30년 이상 세월을 갖다가 우리 이제 현재는 사장님이신데 저희 회장님께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신데요. 새마을 60년대 새마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해가.. 수해가 72년도에 한번 났지 않습니까? 우리 용천면에 단양군에 수해가 크게 났었는데 그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고 조건이 그러다보니깐 막 그대로 물힐 수도 있고 또 그때 우리 단장님은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위치에 계시지는 않았고 하시다가 작년이 되 가지고 줄지에 냅다 일을 맡아서 하신 거예요. 그때 방제단 이제 막했죠. 새마을 또 협회와 관련있죠. 부녀회장 맡아하시죠 그러면서 하필이면 방제단장 맡으면서 수해가 나가지고 너무 많은 어떤 일들이 소명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 (용진에서) 첫 수해가 난 곳이 용진이에요. 용진리 거기가 첫수해가 났었어요. 왜 이제 뚝방이라고 말하는 뚝방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거기에 처음에 새마을 총무하다 보니깐 회장님의 요한을 가시는데 교문부 지나고 몰라 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해서 이래서 날랐다 하니깐 한번 가보십쇼 대신 그래 가지고 가보니깐 엉망이에요. 그때 제가 KBS 인터뷰하고 처음 인터뷰한거에요. KBS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국방송 나간 거죠. 그때부터 제가 그다음 그러니까 거기 수해가 난 날이 8월 18일인가 19일인가 16일인지.. 16일날 아침 8시에 터진거예요. 동벽리까지 다 터진거예요. 그래 그냥 놔두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요즘 한가한 편이에요(웃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중요한 게 군부대 향토대대가 처음에 와 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장병들이 아니면 다 폐사된 소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했는데 밤에 수해가 났으면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밤에 수해가 났으면) 아침 8시에 수해가 났으니까 그런데도 노인들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은 들어가서 꺼내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2, 3명 떠내려가는 걸 구해내고 그랬거든요. 할머니들은 밤에 났으면 거의 다 죽었다고 할 수 있죠. (밤에 났으면 다 죽었죠.) 산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또 동네 새마을 지도자하고 또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나한텐 큰 복이라 싶더라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굴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했는데 그다음부터 단양에 복이 된 거야. 천막을 쳐 놓고 이젠 업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죠. 그다음 군 사령 왔을 때 (이제 대머리 예예 사람 아주 좋으신 분) 제 어깨를 만지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현재 군수님들 머 우리 단장님과 저 때문에 칠백 몇십억이라는 수해 복구비가 나왔을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라고 저도 용천면의 책임자니까 우리 단장님의 노

력과 희생이 필요했고 나도 그렇게 했고…

질문: 재밌는 우여곡절도 많았을 거고 가슴 아픈 사연도 많았을 거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조단장님: 처음에 정말 이제 비가 오니까 우리한테… 그냥 우리가 봉사자로써 해면은 수해가 큰 대형 수해가 3번 연속으로 난다 싶어 하는데 72년 수해 때는 정말로 나이 어리고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 학교 피신하는 것만 보고 저는 참여를 못 했고요. 89년도 92년도 수해에 현암계곡이 모두 유실이 되고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아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나라도 뭐가 뭔지 찾아봐야겠다.

그때부터는 산림 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무를 그전에는 때고 막 그러니까 비가 쪽 빠지니까 되었는데 그답서부터는 90년부터는 연탄이다 뭐다 기름보일러를 돌리면서 산에 나무가 방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고사목이나 사람들이 가고 난 잔여물이 비가 오면 그런 게 다 떠내려와 가지고 다리를 다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역순환이 되 가지고 농경지로 다 들어와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았으나, 그게 제일 문제였는데 요번 2005년도 여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10여년 동안 지나오면서 보면 산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광산을 한다. 머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네 나름대로 드라이브를 합니다. 산이 다 울릴 정도로 발파를 하니까 다 울린 상태에서 지금도 그게 계속 한다면 관리 쪽에서 무너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 지금 다 방치된 상태예요. 다 방치된 상태니까 올렸던 산들이 이번 산사태에 원인이 되지 않았었나 그런 의심도 저희로는 해볼 수 있고요. 나무는 하물며 뿌리 깊게 내린 나무 같으면 어디가 되 가지고 돌과 나무사이를 막아주는 묶어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뿌리만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말씀하시는 것은 소나무나 참나무 같은 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깊이 박히지 않습니까?

조단장님: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깐 그렇게 해서 산사태가 유발되면 같이 쪽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다 그렇게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산 그 산이 서로가 보호를 해줘야하는데 서로 울리는 상태에서 이것도 하나의 뭐 상황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이산이 무너지면 저쪽산도 같이 무너지니까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골짜기를 아예 바꿔놓는 이렇게 되 가지고 지금 큰 손실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미리 예방을 못했던 거예요. 알아보질 못했던 것 뿐 이렇게 큰 수해를 낳게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해가 나고 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저기서 온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에 처음 와 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장비가 들어와서 장비가 길을 닦아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과 장비가 같이 어우러지니깐 오고가는 사람들이 서로 묶여 가지고 발도 묶여 가지고 몇 시에 떠났다고 해도 여기 오면 한두 시간 밖에 일을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깐 우리가 농촌에 들어가서 흙밭에서 저 그릇하나 꺼내봐야 쓰지도 못할 것인데 (결국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꺼내놓으니깐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저기에 묻혔네” 이 고마워하는 주인의 마음은 그 아픔이 저한테는 이렇게 가슴에 서려있어요. 저한테는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새살림이 들어오면 다 버릴 것인데 그 오늘이 그 흙탕물이 옷 속에 다 박혀있어도 우리가 대충 뺏아 주고와도 그게 다 흙

이 다 돼 있어요. 그래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때 당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그쪽 상황을 알아가지고 그 집에 뭐가 필요 한가 필요한 것을 해다 주는 게 좋지, 되지도 않는 물난리가 났다고 하면 물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물이 귀한 게 아니라 시내 쪽에 물이 귀한 겁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 빨간 물이 없어지고 나면 동랑에서 맑은 물이 금방 내려와요. 근데 이 자체에서는 시내 쪽에서는 물이 정말 없는 거예요. 여기 상수도가 완전히 막혀진 상태니까 그런데 그게 시행착오란 말입니다. 수해를 영천면에서 봤다고 하니깐 다 영천면 쪽으로만 물이 영천면 쪽으로 다 들어가니깐 시내 쪽에는 하나도 관심을 안두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그런 걸로 해서) 며칠을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갈등이 생겼었고 물이 없는데 며칠씩이나 놔두면 화장실 관계, 밥해 먹는 거는 조금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여름이니깐 빨래 문제, 모든 게 다 얹혀서 사람의 민심을 흐려놓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수해가 났을 때는 우산이 먼저겠습니까? 우비와 장화가 제일 먼저죠. 그리고 들고 뛰었을 적에 이걸 내가 비 오는데 우산을 받쳐 들 때가 있어요? 우비입고 먼저 막 뛰어야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빨리 파악을 하면 이게 진행도 참 빨리되겠다.

질문: 다른 지역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필요 없는 구호품들이 온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필요 없는 걸 줘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이 짐만 된다고 이 문제는 어떤가요?

조단장님: 예 그렇죠. 영천 같은 경우에도 그때 집이 7채가 8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먼저 준비를 해줬어야 되요. 그러면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누구네 집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오는 사람물건은 거기에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사실이요. 그런데 정신이 없고 나도 어디 가서 자야 될 판인데 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갖다 준 사람들은 왔다가 이장님들하고 싸움 붙기 일보직전이야. (싸움붙이기 절 쉬운 방법이야) 이장님들은 이장님들대로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동네사람들한테까지 같이 부딪치려니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동대리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갖다 줘야 될 게 천막을 쳐주던지 지금 7집이 8집이 집이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사람 거주지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문제점인거 같아요. 제가 본 결과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른데서 오는 사람들이 단양만 들어서면 다 거긴 것 같아도 단양서도 영천리에 들어가려면 4~50분 걸리는데 위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양군 왔을 적에 어디를 갈 적에 안내자를 소개를 받아서 그 차를 거기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동네에 갔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인원이 몇 명이 다하면 되니 그 빨리 넣어줘서 효율적으로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줘야 됩니다.

질문: 외지에서 왔을 때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하겠네요?

조단장님: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다가 길이 막혔는데 어디로 돌아

가야 되면 빠른지 그거를 안내해줄 그런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위치선정이 딱 정해져야지만 내가 뭐를 한다 난 뭘 할 역할을 한다 이게 딱 돼 있으면 아주 좋겠다. 그것을 파악을 했고 그 동네에 가서는 어차피 봉사자들이 와서 일을 해줄 것이니까 너무 우왕좌왕 내꺼 먼저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동네사람들대로의 그것도 합의도 되어야겠죠.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쯤 되면 동네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고 누구네 밭이 어디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도가 되어 그 개발위원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누구네 밭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자원봉사가 오면 밭의 일을 해줄 것인가? 무슨 일을 해줄 것인가? 선정을 해서 빨리 빨리 일을 도와야죠.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천명이 왔니 이천 명이 왔니 말로만 하지 말고 쓸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이장님한테 가니깐 슬리퍼를 신고 나오셨어요. 그날 사람들이 천명이 온다고 하는데 아 이장님 이러시면 안 돼. 정신 차리셔서 운동화를 신으시던지 장화를 신으시던지 그래가지고 일할거리를 빨리빨리 만들어놓으세요 그러니깐 그러다 가겠지요 뭐 정신이 나가있어. 그런데 동네사람들도 반성해야 될게 이장한테만 그래서 누구네 담만 해주고 우리 밭은 언제해주냐 막 싸우는걸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싸울 시간 같으면) 이 사람들 세워놓고 싸울 시간 같으면 빨리 가서 붙여라 어디일거리를 빨리 주지 왜 이러느냐 그런 안타까운 광경들이…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안타까웠고…

봉사를 갈려면 정말 한두 시간 거리에 가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주고 와야겠다는 그 마음자세가 안되면 갈 필요도 없겠다. 그 사람들은 하나의 단체에서 수해 복구를 갔다하고 여행 삼아 오겠지만 여기 밭 여기 앉아서 받는 입장은 너무너무 힘이 든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기다 한걸 써놓은 게 있는데 국회 OOO의원님 그 보좌관이 정말 기쁘더라고 오동석씨라고 왔는데 와가지고 내가 실망을 했어요. 내가 써놨는데 불일라고 써놨는데 불이지는 못하겠더라고 솔직히(웃음) 이런 모든 게 환경들이 이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더 와서 바람만 잡고 가느냐 (바람만 잡고 말아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가슴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식한테 꺼내놓고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써놨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수해났을 때 내가 이제 그 일부였는데 7월30일서부터 이제 동대재단이 왔다고 해서 이제 봐가지고 “동대리에서 지원요청을 어디어디서 합니까?” “무엇을 해드려야겠습니까” 내가 파악을 하니까 김동진씨네 그날 축사를 이제(반파가 되어서) 복구한다고 하여서 그날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면 할머니 댁하고 OOO씨네 OOO씨네 요렇게 그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오는 분들한테 어디(어디)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미 우리는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고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8월5일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1일 날 우린 비가 또 와가지고 어디에 일을 했으면 좋겠나 해가지고 안내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총무님: 그 다음날 뛰어 오셔서 제가 어차피 새마을 총무를 맡고 있고 제가 수해 당사자니까 저한테 어려움을 이야기 하라 그러더라고요. 당장 중요한 것은 큰 포

크레인도 아니고, 인력도 인력이지만 장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장님의 어 떻게 지원을 받으셨는지 아직도 궁금해요.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드리는데 처음 우리 회장님 자체분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 두 대를 지원해 가지고 원래 회장님은 하루나 이틀 쓰신다고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한 일주일을 제가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엄청 힘을 얻었어요. 포크인 두 대가… 가장 큰 힘이죠. (큰 포크레인이 아니라 다 작은 포크레인인데…)

총무님: 그래서 두 대를 지원해주고 일주일을 선생님 말씀하신 미담이나… 누구한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참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도 힘을 얻고 포크레인이 있는 바람에 주민들이 다 감격을 한거에요.

질문: 장비(포크레인)는 어떻게 준비되었나요?

조단장님: 단양 포크레인은 제가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웃음) 그때 장비가 120대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어디 다 들어가 있는지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은 작은 장비들이 필요해서 빨리 집 주위를 치워줘야 집들의 집들을 꺼내는 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니까. 제천장비, 영주장비, 하여튼 간 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3대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시오라고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그곳을 못 찾아 가는 거야. 오다가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빼돌리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그곳까지 안내를 해주어야 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하다 보니 재미있는 일도 많아요. 어제 저녁때 찾아보니까 이렇게 물난리가 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수해난 것을 보니 가슴 아프다 그러면 서 그쪽 침목계원들이 많이는 못주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음료수라도 사주라고 돈 오만 원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지나가다가 객지에 나와서 동참을 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것도 다시 보게 되고 군은 이렇게 큰 일을 해나가려면 아직까지도 군인들이나 전경들 그 사람들이 힘이 아니면 큰일을 못해내요. 민간인들이 자원봉사 한두 시간 일이지 그 사람들을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데 소 껴낼 적에 악취를…(향토대대) 제가 그래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군의관이 와가지고 발이 베여서 왔는데 … 아휴 자네들 아니면 이거 하나도 못한다. 너희 엄마 보면 얼마나 울겠나, 내가 너의 엄마라도 내 자식 보내고 이런 곳에 덤벼들어서 나도 울겠다. 그래서 내가 갈 적에 “고생했어 그리고 내일 또 봐” 이러면서 그 격려해주던거……

질문: 그럼 취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면 집단 이주는 아니고 학교로 피신을 시키던지 군부대로 피신을 시키든지…

조단장님: 거기에서는 텐트를 내서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집 없어진 사람들은 이웃 집에 같이 있거나 회관에 같이 있거나 하는데 회관도 빨리 청소를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침수가 처음 되어서 작업이 7월 30일 날 되 가지고 노인 회관 청소를 해주고 나왔어요. 이거라도 해야 동네 사람들이 쉼터라도 있겠다 싶어서 해주었는데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름에 그 집도 수해는 안 당했지만 그 집 역시도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람들이 옷만 벗고 씻을 라고 해도 불편할 것이고 같이 난리를 겪는 것입니다.

이제 군인들은 아예 텐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숙식을 했어요. 동대리 사랑의 집 그 곳에 본부를 차려 놓고 단양군 수해 상황실을 옮겨놓고 그곳에서 군인과 같이 합동 작전을 한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군인들이나 전경들 어디서 먼데서 와도 그 시간에 와서 해주고 가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 역시도 누가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면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군인들한테 어느 누구나 격려를 많이 해주어야겠다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총무님: 단장님의 역할은 군인들의 역할과 전혀 별개였습니다. 군인들은 진짜 필요 한 곳에 가서 일을 해주었는데 모든 안내라든지 아마 필요성 때문에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안내라든지 입구에서 텐트를 쳐놓고 음료수라든지 진짜 어려운 자리 긁어 주는 것 우리 회장님이 다하셨어요. 그다음에 새마을 봉사단들이 엄청 중요한 일을 했어요.

조단장님: 오늘은 이 동네 가서, 그 동네가 동대1리에서 동대2리 까지 연락처는 다 알아둬야 어떤 일이 발생해도 빨리빨리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동대2리 이장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것이 있었고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 어디서 오시나 그것을 적어 놨고, 누가 음료수라도 몇 박스 가지고 오시면 적어 놓고…

질문: 그런 그 충격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충격을 받으니까 심리치료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 이죠?

조단장님: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인들이 1,000명씩 이상 온다고 그러면 군인들이 한 700명 정도 되고 일반인들이 300명 정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구인사에서 현호 스님이 600명분을 군인들에게만 주고 싶다. 600명분 국수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군부대 장병들 600명분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별곡2리 주민회에서 500명분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여성단체면 여성단체로 영춘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냉커피를 가져와서 격려를 한다. 어디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와서 격려를 한다. 자원봉사자는 위낙 있어야 되고, 서로 격려를 해가면서 그 나날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감동적인 것이죠.

질문: 농작물 피해는 어떻게 되었죠?

총무님: 농작물 피해는 농지 복구 위원회가 결정이 되었어요. 농작물의 피해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었고 농지가 파손된 부분은 농지 복구를 해준 것이에요. 아직까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군의 지원도 대단했었어요.

질문: 보실 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단장님: 제가 나중에 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나 앞으로 할 일을 현장 안내자가 부족했고, 자원봉사자들 방문 시 친절하지 못했던 점이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소리들을 들었고요, 복구현장 안내는 동네 주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해야 할 점이다. 일손을 도우러 왔으나 안내자가 없는 관계로 일찍 돌아간다고 하더라. 어느

동네라도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들은 다 있으나 역할 분담이 미약하다. 각 단체에서 오신 봉사자, 군 장병들 기동대원들 고생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응급 복구를 빨리 끝냈습니다. 안내(웃음) 안내 운영소에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웃음)

조단장님: 그래서 여기에서 단양을 도착해서라도 단양 툴게이트까지 왔다 이러면 단양툴게이트에서부터 영춘 동대리까지는 어느 안내자가 필요하다. 동네에 들어가서는 동네 안내자가 필요하다 이러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니겠나 싶네요. 내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시간은 더 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구호품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데 불필요한 것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이런 것 보다는 쿠폰이나 상품권 같은 것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단장님: 좋죠. 하지만 그것은 바라보는 쪽에서 욕심 있는 관계이고, 내가 사다주고, 우리 단체에서 사다주고 싶은 것도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알아서 사다주면 좋겠는데 정말로 돈으로 붙여주고 싶더란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단체에서 얘기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이겠죠. (단체의 돈으로 쓰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얘기가 이불이 필요하겠다. 이불 몇 개를 하자 겨울 이불은 몇 개밖에 못하니까 여름 이불로 하자. 이렇게 나을 것이라 말입니다. 하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난 집도 없고 어디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선풍기가 왜 필요 합니까? 라면이 박스로 쌓여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총무님: 역할 분담이 중요한 것이죠. 역할 분담을 누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질문: 자율 방재단에서 평소에 교육하고, 훈련하고, 대비를 연습하는 수밖에 없겠죠?

조단장님: 정말 내가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안 나오고 내가 현장 운영반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약소하지만 그 분담이 필요합니다. 태풍 긴급 사태 때 했는데 이번에 자율 방재단에서 많이 나오셨어요. 30명 정도 나와서 주민 대피반도 있었고 음식봉사단 등이 있어서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열른 한 바퀴 돌아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육을 한번하고, 위촉장도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해서 한번 모임을 갖고 이제 정말로 우리 방재단끼리 한번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총무님: 주민들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구호품마저도 중구난방이에요. 각 단체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주고가고 어디에 줘야 할지 모르니까 군에서도 나오고 중복이 되어 나오니까 회장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선도적인 입장에서 분배를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 같아요. 그래야 서로 골고루 분배되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것이 가지 않겠어요. (어느 집에는 선풍기 다섯 대가 들어가고 우리 집에는 냉장고 두 대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서 자율 방재단에서 책임지고 공정하게 했을 때 이렇게 믿고 해야 합니다.

질문: 몇 일정도 통신 등 도로(교통)가 두절 되었나요?

조단장님: 통신두절은 한 일주일 갔어요. 아주 전화기가 안 터져가지고, 배터리도 다되고 핸드폰도 터지는 곳과 안 터지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연락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직접 다닌 거죠.

질문: 이장님들이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조단장님: 이장님들이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동네사람들과 이야기만 하고 했는데 찾는 사람이 이장님만 찾고, 오는 사람들마다 방송국이다 어디다 해서 찾아와서 이장님만 찾고 그러니까 혼이 나가버린 거야. (총무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지도자나 방재단에서 하는데 찾는 사람은 이장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조단장님: 수해를 몇 번 겪고, 수해복구에 참여를 해보고 골짜기(골)마다 다녀봐서 얻은 지식을 가져다가 활용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용진 삼거리에 텐트를 쳐달라고 했던 것도 이게 필요하다. 이 동네 들어와서 이골로 가야 될지 저 골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 역할이라도 내가 해주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해서 하루에 만원 이만 원씩 내가 얼음 사려 가면서…)

질문: 지휘소를 하나 만드신 건가요?

조단장님: 안내소를 했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고 수고했다. 어디를 가도 잊지 않겠다. 그날그날 얼 만큼 썼다 그런 것을 적어보고 했는데 수해관련 서적을 만드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8월 5일 날 이곳 철거를 하면서 현장 철수 관계를 상황실에 문의를 했어요. 철수하는 점은 봉사자도 없고, 복구 상태도 쉬는 단계로 전화도 바쁘지 않게 요청함 이렇게 해서 현장 안내 전화를 놓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내놓고 나니까 얼굴이 다 탔죠. 처음에 31일 날 용진리에 서울 기동청에서 왔는데 몇 명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안내를 했던 거죠. 용진리에 102명, 백사리에 99명 보내고, 남천리에 102명 보내고, 의풍리에 84명 보내고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죠. (교수님: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해야만 인적 물적 자원이 낭비가 없는데…) 총무님: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배치하고 포크레인 작은 것이 필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요.

조단장님: 8월 1일 날 투입 인력 부분 상한 500명 정도 잡는데 숙식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청에서 오겠다. 500명을 어디에 배치를 시킬 것이냐를 나름대로 군과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분담이 필요하다.

조단장님: 별일이 다 겪어봤고 이제 이렇게 봉사해준 사람들 중 포항서 온 사람인데 그곳 자원봉사 쪽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을 걸어놓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다가 얘기도 못했던 것들인데 오늘 오신다고 하니 가지고 나와 봤어요.)

질문: 의료지원은 어떻게 잘 되었나요?

총무님: 예. 의료지원은 잘되었습니다. 앰뷸런스는 상주를 했었으니까요. 보건소 직원들도 상주하고 있었고…

조단장님: 참 생각지도 못했던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천 명 정도가 와 있다 하면 급식차가 와가지고 삼일을 밥을 했어요. 군인들은 자기들 밥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워낙 큰 텐트를 치고 여기서 정말 일주일을 한다. (그러하면 그 부분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어느 누구나 집에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날은 딱 거기서 먹고 일하러 가고 (텐트에서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얘기도하고 그런 텐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급식 텐트 본부는 있어야겠다. 누구는 이곳이 수용소냐 이러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숙식 밥 먹는 급식 텐트를 해서 어느 누구나 동네 사람(수해당한 사람)은 다 와서 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질문: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 되었나요 천명씩 와 있으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조단장님: 동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동식 화장실이 한참 있다가 왔지.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해가지고…

질문: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통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통신이 되고 안 되면 또 한 두집씩 끊어지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문제점도 있을 테고…

조단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보은 회관에서 김호원 할아버지를 동대리 270번지에 살고 계시는데 연락이 안돼서 가봐달라 해서 내가 이것을 써 봤어요. 이게 8월 3일 날이네.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해 준거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 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총무님: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지면 모든 것이 이동식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연락을 할 때 하고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아닌…)

질문: 혼란상황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집단은 민간인이 아닌 군인 아니겠습니까? 군인은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연습을 하자나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지역 자율 방재단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군부대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군인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시는 혼란스런 시대 아닙니까? 수해가 났는데 일종에 하나의 전시 상황이거든요. 군인들이 질서 정연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조단장님: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나 전경들은 대장이 시키는 그만 딱 하지 더하지도 않고 기다리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에요(봉사정신이 약하지요.) 우리는 빨리 한군데라도 더해놓고 갔으면 좋겠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교수님: 내려갔더니요. 가리산 쪽에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군인들 와서 복구 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군인들이 하도 많이 현장에 가서 동원이 되니까 군인들이 소원수리를 했대요. 우리가 국방의 의무 다하러 왔지 복구하러 왔냐고, 그래

서 제가 그랬죠. 아니 복구하는 것도 나라의 국방의 의무랑 똑같은 거라고…

총무님: 그런데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군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질 않죠. 축사에 악취가 진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스크도 안 끼고, 일반인들은 근처에도 못가는 것을 군인들이 해냈어요. (조단장님) 공수부대가 해요.(작전개념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못할 거야. 공수부대니까 하지 공수부대도 다 하사급들인데.. 공수부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못하는 것을 해서 제일 큰 역할을 했죠.

질문: 방역하는 것도 전염병도 돌 수 있고 하니까 중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조단장님: 계속 방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아는 기관이며 시민 단체 다 알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면 되니까 이왕 그 사람들은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상 불편하지 않게 왔다가 온 보람 있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보내드리면 그것으로 이미지 살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일을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나. 어떤 것 좀 해주고 가세요. 이건 놔두세요. 아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놀러왔어요.(웃음) 그 역할이 짜증나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문: 그런데 이제 농촌지역은 포크레인도 말씀하셨지만 다 아시잖아요. 서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이런 게 있어서 되는데 대도시에는 이런 게 안됩니다. 대도시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회장님 같은 이런식의 지휘가 불가능 한거에요., 안양천이 범람을 했을 때 대도시는 전혀 판판이에요, 그럼으로 농촌지역이 복구하는데 유리한 거죠. 다 알고 도와주니까요…

조단장님: 가옥 완파나 축사가 잘못되었다. 가옥 침수는 이렇게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미리 조사를 해놔야 그래서 집이 언제쯤 될까? 집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해봤어요.

총무님: 구호품이 참으로 예민한 거예요. 앞으로 구호를 하신다고 하시면 장부(기록)가 더욱 많아져야 될 거에요. (조단장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일일이 그 사람들도 받아서 고마워야 되고, 주는 사람도 보람 있어야 되지. 갖다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줘봐야 짐만 되지)어느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겠다 느꼈어요.

질문: 글쎄 그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혼란된 상황에서 그 수백 수십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다 상황이 여건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시행착오 없이 빨리 분배하는 것은 힘들 거예요.

조단장님: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점이 저에게 미숙한 것으로 보였냐 하면 단체마다 수해가 어디에 났다 하면 먼저 갖다 주고 와야지 신문에 난다 이런 걸 하나씩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이쪽 상황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먼저 가서 사진하나 찍고 와야 신문에 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자원 봉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 한단체가 와서 한집 청

소를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것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다시 들어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비춰졌을 때 정말로 내가 이집 하나라도 깔끔하게 해 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뭐 그 사람들한테 뭐 이거 다해놓고 가세요. 못하지 않습니까. 뭐 자원봉사라서 자기들이 왔다 가는데 그렇게 해놓고 가면 다음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죠.

질문: 올해 장마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영춘 쪽에 올해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조단장님: 아직 미숙한 게 공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한 50%정도 보면 될 거예요. 한 50내지 60%정도) 비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해놔야 되는데…(조금 늦은 것 아니에요 회장님? 수해 복구비에 공사비) 늦었지. 그게 돈이 떨어져야, 항상 그래 돈 나오기 전에 일을 먼저 시켜놓고 돈을 줘도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그게 안 되었다고요?) 돈은 나오기 전에 얼마짜리 공사가 될지 모르니까 못시키는 거야 돈이 떨어진 다음에 일을 하려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록 B] 재해지역 인터뷰 사진

| | |
|--|---|
|  |  |
|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 인제군 가리산리 이장 |
|  |  |
|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 단양군 영춘면 새마을회 총무 |